다문화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목회전략

PASTORAL STRATEGY FOR NEW IDENTITY OF MULTI CULTURAL CHURCH

BY

EARM, SOON HEE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South Plainfield, New Jersey, USA

2010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monstration project entitled

다문화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목회전략
PASTORAL STRATEGY FOR NEW IDENTITY OF MULTI CULTURAL CHURCH

presented by

Earm, Soon Hee

has been accepted towards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____

Director for D. Min. Program's Signature

____

Academic Dean's Signature

2010.5.

ABSTRACT

PASTORAL STRATEGY
FOR NEW IDENTITY OF MULTI CULTURAL CHURCH

By

EARM, SOON HEE

This essay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the formation of new identity in a multi cultural church consisted of two congregations in order for that church to grow as a sound faithful church and for two congregations to become one body of Christ.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is a multi cultural church that consists of two language groups, english and korean. Then, because of a lack of its identity as a multi cultural church, two congregations could not recognize that they are members of a multi cultural church and they should work together as one body of Christ in everything without any discrimination. The lack of identity is the problem of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But this church has a possibility to do its duty, only if to build up its new identity as a multi cultural church.

In order to form the new identity of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the writer as the pastor of this church made a pastoral strategy, based on the three principles, for all of the members of this church to become one community in Christ and to love and serve one another and to preach the gospel to its local society. The three principles are as follows:

1. All of members should recognize that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is the one body of Christ.
2. All of members should hold the leadership in common and try to work together in everything of church without any racial discrimination.
3. All of members should determine that they will lead the multi cultural mission for Bronx and serve the local society and open their church for dwellers of a local society.

Because this essay is about to make a pastoral strategy for formation of the new identity as a multi cultural church of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the key words of this essay are Multi Culturalism, Identity, and Pastoral Strategy. And this essay composes of three parts according to these three key words.

Chapter I as the introduction of this essay mentions the subject and the purpose and the limit of this study. It refers to the reality of the multi racial policy of America and the reality of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as a multi racial one.

The key word of Chapter II and III is multi culturalism. Chapter II mentions a sociological approach to the multi culturalism and studies some aspects of the multi culturalism and the multi cultural policy of America

Chapter III mentions a theological approach to the multi culturalism. First, the approach of the Biblical Theology refers to the multi culturalism in the history of Israel, in the concept of ancestor, and in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family from the Old Testament, and multi culturalism in the Epistle to Ephesians and in the Epistle to Galatians from the New Testament. The approach of the Systematic Theology refers to the theology of marginality as the basis for the theology of a multi culturalism.

The key word of Chapter IV and V is identity. Chapter IV mentions the psycho-sociological approach to the formation of identity, especially the identity theory and the life cycle theory of E. H. Erikson.

Chapter V mentions the theological approach to the formation of identity, especially the faith development theory of James Fowler and his idea of public faith and public church as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new identity of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The key word of Chapter VI and VII is pastoral strategy. Chapter VI

mentions a pastoral strategy for formation of new identity of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as a multi cultural church.

Chapter VI refers to the background of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pastoral strategy for formation of new identity of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and specific plan for formation of new identity of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The detailed strategy for formation of new identity of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is bilingual service, sermon for identity, communion, retreat, gospel preaching, service and friendship, and reconstruction of organization.

Chapter VII mentions the evaluation of the execution of pastoral strategy and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of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and the writer as a pastor.

TABLE OF CONTENTS

APPENDICES

도표 및 지도 목차

I.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A. 문제제기

1. 미국의 다인종 정책과 그 현실

인종문제는 미국 문화 연구에서 중심적인 주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17세기 초 제임스타운에서 영국인들과 인디언들이 만난 이래로 20세기 후반 보트피플에 이르기까지 미국 안에서의 다양한 민족적 기원과 종교를 가진 인종들의 상호작용은 오늘날 미국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E Pluribus unum은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the one from the many)라는 뜻으로, 미국 정부의 문장에 새겨진 글귀이다.[1] 이것은 다양한 인종들로 이루어진 미국이 지향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목표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미국은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왔다.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이었고 미국의 다원적인 사회에 동질성을 이루는 것이 필요했다. 이것은 다양한 인종들이 각 인종들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통일된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처음부터 "여럿으로 흩어져 있는 느슨한 하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 왔다.[2]

미국은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 즉, 백인이면서 앵글로색슨족이고 프로테스탄트인 사람들을 주축으로 미국을 규정하고 하나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아일랜드로부터 카톨릭 교도들이, 20세기에는 유럽 남동부 지역으

---

[1] 이유정, “미국인의 정체성에서 동질성과 다원성의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 대학원, 2003), 1.

[2] 김봉중, *미국은 과연 특별한 나라인가* (서울: 소나무, 2001), 11.

로부터 카톨릭 교도들과 유태인들이,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흑인, 아시아인, 라틴계 등의 다양한 소수인종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이 다양한 인종들을 융화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 미국은 "용광로"(melting pot) 개념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용광로 개념 역시 WASP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1960년대 이후에 다문화주의 이론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3]

오늘날 미국사회에서는 모든 인종을 성, 생활방식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존중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다양화된 인식, 즉 다원주의적 사고가 미국의 중심적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인다.[4] 1960년대 이후 미국은 다양한 인종들의 문화 정체성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함께 공존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인종을 형성하려는 노력들을 해왔다. 미국의 동질성과 다원성이 함께 공존하는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를 추구하면서 미국인의 정체성을 규명해 보려는 시도들을 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인 시도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사회는 다인종들이 함께 통합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동화정책에 실패함으로 인종간의 갈등과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5]

미국은 유럽계 백인과 흑인, 중남미계, 아시아계의 이민자들을 하나로 통합하여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내의 모든 인종들을 강제적으로 통합해서 일체성을 가지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점에서, 그들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를 포용함으로써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미래의 미국의 발전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미국인들이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며, 서로 다른 인종의 문화에 대한 인정과 공동체의식, 여러 민족 간의 관계를 우월과 열등이라는 상하개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다문화주의는 모든 그룹과 그 구성원들이 다같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일종의 보편적 요구사항이다.[6] 그동안 미국사회는 오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이를 통해 다

---

[3] Nathan Glazer,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서종남 · 최현미 역 (서울: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09), 2.

[4] Ibid., 14.

[5] Ibid., 18.

[6] Ibid., 42.

문화를 포용하려고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개개 민족과 인종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미국이라는 틀 속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Nathan Glazer는 다문화인들에게 최소한의 공통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나아가 그들이 진정한 미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조화로운 사회추구를 위한 올바른 다문화주의라고 본다.[7]

바람직한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이 평화롭게 조화된-최소한도의 가치관적 공통분모를 동시에 가지는-사회 구현을 위한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미국이 다양성과 동질성의 조화를 통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미국의 국가형성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다문화사회에서의 교회 내에서도 역시 이러한 다문화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유기체적 공동체이다. 다양한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의 몸을 이룰 때 진정한 교회됨을 이룰 수 있다. 다문화 속에서의 교회공동체는 이러한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개념이 더욱 살아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형성하는 일은 다문화사회에서의 다문화교회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문화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정체성이 존중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다문화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회로서의 정체성확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할 수 있다.

한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정체성형성은 아주 중요하다.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결정되고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형성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 의해 영향을 받고 형성되기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은 한 개인의 인격형성과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한 면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며, 다른 한 면으로는 집단으로서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진다.[8] 개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형성은 가정이라는 최초의 공동체에서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으로

---

[7] Ibid., 18.

[8] Howard. J. Clinebell,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5), 16.

서의 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은 그가 속한 교회공동체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교회공동체의 정체성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기초 공동체가 된다. 다문화교회 안에서 다양한 각 개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형성에 있어서 그 교회공동체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만약 그가 속한 교회공동체의 정체성이 부정적이어서 억눌려 있다면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역시 그들의 삶이 부정적이고 억눌려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존은 개인 정체와 집단 정체 두 가지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중요하다.[9] Howard Clinebell은 교회구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의 존재적 측면에서 가장 유일한 근원이라고 강조한다.[10]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가 다문화교회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언어 회중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기 위해서 교회공동체의 정체성형성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실천하는 목회전략을 세우고 실천했는가를 다루도록 할 것이다.

2.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의 배경

1) 교회가 위치한 지역상황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Bronx의 서북쪽의 북쪽에 있는 Bainbridge Ave.와 Bedford Park Blvd.의 코너에 위치해 있다. 지난 과거 동안 특히 이 지역은 인구수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을 해왔다. Bronx의 Bedford Park 지역에 더 많은 종류의 인종들과 다양한 경제력,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들이 새로운 주민으로 오게 되었다. 노회의 보고에 따르면 Bronx에서 히스패닉과 아프리카 아메리칸의 인구가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교회에 더 많은 히스패닉의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고 스패니쉬 미니스트리가 발전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

[9] Ibid., 20.

[10] Ibid., 31.

게다가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많은 좋은 지역적 조건들과 편리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으며 공립 학교와 사립학교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Bronx 동물원과 New York Botenical Garden, Fordam University, Lehman College 가 아주 가깝게 있다. 지금까지 이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지역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경찰들과 함께 일하면서 지역의 범죄율을 줄이고 마약을 줄이는 일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2) 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

2001년 작성된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의 Mission Review Report를 보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앙공동체의 신앙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격려해 왔고, 이것이 이 교회의 정체성임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11] 따라서 이러한 통합된 정체성의 진술 아래 이 교회는 개방성과 포용성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와 인종과 상관없이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을 추구한다.[12] 특별히 Bronx 지역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히스패닉과 아프리카 아메리칸 공동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들과 지역사회의 필요들과 요구들에 반응할 것이다.

현재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1994년 9월 11일에 두 개의 개체 교회가 통합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룬 교회이다. 그 중 한 교회는 1900년 6월 17일 창립된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라는 이름의 미국교회[13]이며 다른

---

[11] *Mission Review Report*,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Mission Review Committee (New York: 베드포드파크 장로교회, 2001), 1. 이 Mission Review Report는 2001년 4월 29일자로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의 8명으로 구성된 Mission Review Committee가 미래의 이 교회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따르는 목회 비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이 교회에 대한 간단한 역사와 지역사회의 특성, membership, 교회내의 조직, 예배시간과 특성, 기독교교육과 성경공부, 교회선교의 원리, 지역사회를 향한 현재의 선교상황, 미래를 위한 교회의 비전, 예산내역, 교회내의 영어 회중과 한국어 회중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부록 1 참고).

[12] Ibid.

[13] ""*History of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70th Year Anniversary Booklet*",(New York: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1970).

한 교회는 1970년 12월 6일 창립된 "Bronx 한인장로교회"라는 이름의 한국교회이다. 이 두 교회는 각각의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 그리고 이 두 교회가 소속한 뉴욕시 노회의 대표가 모여 합의서를 법적으로 작성하고 노회의 승인을 얻어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룬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다음과 같은 선교목적을 가지고 통합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함에 있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게 하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함에 있다.[14]

이 교회는 새롭게 교회를 통합하면서 지역사회를 향한 새로운 목회의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이 통합교회의 목회자는 Bronx 한인 장로교회의 목회자가 될 것이며, 두 교회가 가진 재산을 공유하고, 각각의 교회가 유지해 오던 선교를 이어가는 것을 합의하였다.

통합된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통합교회는 두 차례 교회가 분열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현 원로목사의 방북과 김정일 주석과의 회동으로 인한 것이었다. 뉴욕일보에 이 기사가 사진과 함께 보도되면서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공산당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200명에 가까운 한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이런 위기의 와중에서 두 교회는 통합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 당시 이 교회의 담임목사가 공산당 논쟁에 휘말리면서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은 온 New York시내와 Bronx 한인 이민사회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초대 목사의 은퇴와 새 목사청빙에 대한 것이다. 2000년 1월 초대 목사가 은퇴를 하면서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로 또 한 번의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 후임목사를 선정함에 있어 각각의 두 그룹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분열하고 만 것이다. 그 중 한 그룹이 The

---

[14]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Agreement of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New York: 베드포드파크 장로교회, 1994), 1.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를 떠나 이 교회의 바로 맞은편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 후, 통합교회는 pastoral leadership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계속 겪어 오게 되었고, 공식적인 위임 목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pastoral leadership이 부재해 오던 중, 2002년 임시목사가 부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시목사 역시 뉴욕시 노회가 요구하는 목회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임하고 만다. 이후 매 주일 설교목사의 도움으로 주일예배를 드리며 겨우 교회의 명목만을 유지해 오고 있었으며 통합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쇠퇴하게 되었고, 현상유지가 어려울 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2004년 주일 초청설교 목사로 이 교회의 목회사역을 시작하게 된 필자는 2005년 정식 설교목사로 초청을 받아 노회를 승인을 얻고 통합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 2006년 9월 노회가 요구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하면서 뉴욕시 노회는 필자를 노회의 멤버로 승인하고 2007년부터 임시목사로 일하도록 하였다. 2008년부터는 당회장으로서 통합교회를 이끌게 되었다.

3.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의 현실

1) 통합교회 이후의 정체성 갈등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1994년 9월 두 개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통합된 이 후 계속해서 교회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다. 두 언어 회중은 각기 한 건물에서 35년 동안 생활해 오면서 서로에게 익숙하면서도 그들의 신앙관과 교회관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어를 구사하는 회중은 유럽계 백인, 남미계 백인과 흑인, 아시아계로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다인종, 다문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다문화공동체이다. 다문화와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두 교회가 통합할 당시 두 교회는 다문화교회임을 서로가 동의하였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도 미

국교회의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와 한국교회의 Bronx 한인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변경하여 다문화 교회의 정체성이 담긴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통합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통합하면서 통합교회의 역사는 1900년을 시작으로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인식하고 있다.

반면 한국어 회중은 여전히 교회의 역사를 40년의 역사로 기술하며 두 교회가 통합되었지만 통합교회로서의 정체성 보다는 한국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영어회중과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이들은 두 교회의 통합일을 기념하는 것보다 여전히 Bronx 한인장로교회의 창립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통합된 교회의 정체성과 역사에 대하여 다른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통합교회 이후의 구조 갈등

통합 당시 두 교회는 각기 다른 당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통합하면서 두 교회는 두 교회가 가진 당회원을 그대로 통합교회의 당회원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통합 당시 한국어 교인의 수는 200여명이며 영어 교인의 수는 20여명이었다. 한국어 회중의 수와 영어 회중의 수의 차이가 현저하면서 한국어 회중은 한국어 회중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당회원의 숫자도 비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영어 회중은 숫자 보다는 다양한 인종의 대표로 구성되는 당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갈등을 빚고 있다.

3) 통합교회 이후의 선교 비전에 대한 갈등

통합 당시 두 교회는 각자 교회가 해 오던 선교를 계속 유지하고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영어 회중은 선교의 영역을 Bronx 지역 전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함을 인식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어 회중을 Bronx 지역안의 한인 커뮤니티를 선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영어 회중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방적이며 포괄적이고 교회의 사명을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과 돌봄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한국어

회중은 지역사회에 대한 선교에 있어서 기존의 Bronx 한인장로교회가 해 오던 선교정책을 고수하고 전체 커뮤니티를 영역으로 확대하는 변화된 새로운 선교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통합교회는 영어회중이 소유해 온 교회의 건물을 공동의 건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건물 사용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게 다르므로 빚는 갈등이 심하다.

4) 통합교회 이후의 목회적 리더십 갈등

두 교회는 통합하면서 Bronx 한인 장로교회의 목사를 통합교회의 목사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통합교회의 목사는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자가 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뉴욕시 노회가 요구하는 목회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적절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과 교회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목사청빙을 오랜 동안 해오지 못한 결과 목회적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있다. 초대목사 은퇴 이후 10년 동안 목회적 리더십이 없는 상태이다. 이 결과 교회의 목회와 모든 행정을 계획하고 지도할 목회자가 없이 장로들에 의해 운영되므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부재하며 행정담당자가 교체되지 않고 10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고질화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는 정체된 구조이다.

4.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의 과제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다인종이 모여서 이루어진 다문화교회이다. 영어를 구사하는 영어 회중은 유럽계 백인들, 남미계 백인 히스패닉과 흑인 히스패닉, 아프리카 흑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어 회중이 있다. 비율적으로는 영어 회중이 전체 회중의 25%를 한국어 회중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합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지역사회를 향하여 선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과제는 다문화교회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교회의 모든 영적지도자들과 멤버들이 인종과 언어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룰 수 있을 때 통합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하여 선

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위원회는 2001년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의 미래의 선교 과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선교의 과제는 계속해서 이 교회가 해야 할 선교적 과제이다. 미래를 위한 교회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15]

첫째,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적어도 2개의 언어, 즉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예배가 포함되어야 한다. 영어를 구사하는 회중과 한국어를 구사하는 회중들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기타 특별한 행사에서 이중언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활동한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그들의 언어인 영어와 혹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예배를 드린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교회 회중을 넘어 지역사회에 까지 뻗어 나가도록 격려할 것이다. 그리고 영어를 구사하는 회중의 평균 출석인원을 25-50명까지 성장하도록 계획할 것이다.

셋째, 미래에 노년층의 영어 구사 회중멤버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목사는 영어구사 회중들을 영적, 지적, 중요 이슈들에 대하여 돌볼 뿐 아니라 목회적 돌봄을 위한 깊은 감각을 가져야만 한다.

넷째, 다인종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Bronx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향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3세계 감각을 가져야만 한다.

위에서 언급한 미래의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의 선교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어 구사 회중이나 한국어 구사 회중이 모두 다문화교회로서의 통합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교회의 선교위원회는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Our church has been able to inspire many with reviewed consciousness of the community of faith and Christian love, so that they may have confidence in their identity. Our church seeks to embrace, with a gospel-induced spirit of openness and inclusiveness, all in our community, without any regard for their social status, race, ethnicity. It is especially incumbent upon us to recognize in our programs and our outreach the changing demographics of the community, gearing ourselves to meet the challenge of the Hispanic and African-American

[15] *Mission Review Report*, 6.

communities' needs.[16]

> The merged congregations, as a united church, will continue ongoing efforts to enlarge and expand our new ministry to the community, in obedience to our Lord and for His Church.[17]

이 보고서에서 선교위원회는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신분, 인종,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인 교회라고 규명하고 있다. 이것이 다문화 교회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그럴 때 지역사회를 향하여 선교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B. 연구목적

1. 연구개요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가 다문화교회로서 양적 성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선교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교회이다. 이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는 다문화 교회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여 다양성 속에서의 조화를 이루어 교회성장과 선교를 위한 역동성을 키워야 한다. 둘째는 다문화 교회로서의 새로운 내적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문화교회로서의 목회전략을 실천하고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으로부터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행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는 다문화교회로서의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지역 사회를 향한 개방된 마음과 섬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는 다문화교회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해야 한다. 그래서 인종과 언어를 초월하여 리더십을 공유함으로 함께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

이 논문은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가 다문화교회로서의 새로

---

[16] Ibid., 1.

[17] Ibid.

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함을 인식하고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한 목회적 전략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연구범위

본 논문에서는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가 다문화교회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목회전략들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I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II장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성서적, 조직신학적 연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심리-사회적 연구를 Erikson의 정체성 이론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V장에서는 정체성형성에 대한 신학적 연구로 Fowler의 신앙발달 단계론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으로 공적 교회와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공적 신앙을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의 모델로 제시할 것이다. VI장에서는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가 다문화교회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하여 실행했던 목회전략들을 다룰 것이다. VII장에서는 실행했던 목회전략에 대한 연구반원들의 평가와 결과, 그리고 목회 유능성에 대한 평가와 개발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II.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A. 미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

1.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을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그러나 짧은 시일 안에 이 단어는 급속히 확산되었고, 현재는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현상들에 적용되면서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한 비판과 옹호에도 함께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직 전자사전에 이 단어가 들어있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개념의 단어이다. Petit Rovert 사전은 다문화주의를 간단하게 "한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18]

'다문화주의'란 단어는 옥스퍼드 사전 원판에는 나오지 않지만 1989년 개정판에 처음으로 등장했다.[19] 그 사전 속에서 이 단어가 쓰인 예문들은 거의 모두가 캐나다의 경우를 다루고 있다. 캐나다는 오래 전부터 두 개의 주류 언어와 두 개의 주류 문화(영국계와 프랑스계)문제를 다루어 왔고 그 밖의 소수 이민자들도 제3의 사회세력으로 격상시켜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를 향유하게 만들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호주는 캐나다에 비해 다문화주의를 포용해야 할 직접적인 원인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으며 학교와 타 영역에서 다문화주의 확산에 적극적이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다문화주의란 단어가 신조어이다. 미국의 다문화주의란

---

[18] 이유정, 29.

[19] Nathan Glazer, 33.

단어는 미국사회 특히 미국 교육이 다양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다. 다문화주의라는 단어는 미국 내 소수민족과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현실을 중립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도 중립적인 기술용어는 아니다.[20] 미국에서의 다문화주의란 미국 내의 다인종들이 하나의 문화, 역사, 언어 및 종교를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통합된 국가를 이룰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통합된 국가를 이루어 가면서, 다시 말하면 미국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종들의 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소외되고 억압된 그룹들의 존재로부터 다문화주의의 본질이 드러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21]

미국은 건국 초기의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구이민자 집단과 신이민자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제 유럽계 이민자들 간의 갈등은 마무리 되었지만, 흑인, 아시아계, 라틴계 등의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 주류사회의 편견, 차별, 배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 아시아계와 라틴계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으로 백인 주류사회로 편입되겠지만 밑바닥 층을 유지하는 흑인들의 사회적 고립과 저항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22]

그래서 미국은 이제 다양한 인종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정체성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공존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국가정체성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2. 동화 정책

동화란 단어는 요즘 그리 인기 있는 말이 아니다. 초기에는 이 말이 미국을 대표하는 말이었다. 이 말은 이민자들을 '미국화'(Americanization)시키려는 정책에서

---

[20] Ibid., 37.

[21] 이유정, 4.

[22] Ibid., 5.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American이라는 말은 미국인들의 태생이나 생득적인 국적을 지시하는 것이기 보다는 그들이 '시민권자'로서 미국인이라는 사실, 즉 이주자들이 정치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23] 따라서 동화라는 단어는 미국의 인종과 민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 왔다. 동화는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멜팅팟(melting pot)이라는 용어와 같이 사용된다.

이 'melting pot' 개념은 다양한 종류의 미국인들이 '용광로' 속에서 용해되어 새로운 미국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하면서 생겨난 용어이다.[24] 동화란 인종들이 서로 분류되지 못할 정도로 혼합되어 모든 미국인의 삶의 핵심요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혼합이란 그 혼합체의 각 구성요소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섞여 있어서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결여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혼합체 자체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합체되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멜팅 팟'이란 용어는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환영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유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단어 또한 많은 그룹과 인종을 환영하는 미국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미국사회가 입국을 허락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일체성과 동화정책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동화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예가 있다. 이 인용된 글은 미국의 이민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된 글이다.

> 할아버지는 영국계이고, 할머니는 네덜란드계이며 아들은 프랑스 여성과 결혼하여 그들이 네 아들은 또한 각각 다른 네 민족의 여성들과 결혼한 미국 가족을 알고 있다. 이들이야 말로 유럽의 오랜 편견과 차별 그리고 행동양식을 버리고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양식, 새로운 정부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갖고 살아가는 미국인이다.[25]

이 인용된 글은 미국의 다양성을 찬양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새로운 국가 가치관과 자아의식을 형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었다. 동

---

23 Ibid., 15.

24 Ibid., 2.

25 Ibid., 171.

화라는 개념이 차지했던 발자취를 현재의 가치관과 관점에서 본다면 그 속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민족과 인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동화라는 개념은 오히려 유럽계 이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결과 탄생한 것이다. 1920년대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럽계 이민자들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정착하자 이를 대량 이민 유입의 마지막 단계라고 미국 사람들은 믿었고 이들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어떠한 경험을 통해 영구적으로 미국 사회와 정신세계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를 기대하면서 동화라는 관점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0세기 초까지는 미국적인 것의 주제는 앵글로 섹슨계의 미국인이었다. 이들이 말하는 용광로 개념은 새 이민자들이 그들의 다양성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모습에 맞추어 새로운 미국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종'은 기존의 앵글로 섹슨계 미국인의 전통과 가치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은 유럽의 새 이민자들을 겨냥한 것으로서 이외의 유색인종들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아니었다. 흑인, 아시아계, 인디언, 그리고 라틴계는 용광로 개념에 포함되는 대상이 아니었다.[26]

3. 동화 정책의 실패와 새로운 방안의 모색

초기의 미국화 정책은 이민자들과 미국인들 간의 사이를 좋게 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운동은 미국 시민권과 참정권을 부여해 주는 대신 이민자가 영어와 미국의 정치문화를 배우게 강요하는 강제적이고 배타적인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27] 이러한 동화정책의 실패와 변질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모든 인종과 민족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James A. Gevit은 「Americans by choice」란 책에서 시민권 취득과 미국인이 되는 과정에 대하여 논하면서, "미국인은 인종과 민족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

[26] 이유정, 38.

[27] Ibid., 185.

특정 사상에 대한 충성을 통해 정의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인은 인종적 유산을 갖지 않는다"[28]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인종적인 구분과 유산이 없다는 것이 미국인의 가장 큰 물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국인만이 모든 인종의 산물이고 결정체인 것이다. 지금도 이러한 미국인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아직도 미국인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인종에는 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어떠한 이민자도 인종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세계가 인정하는 '미국인'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29]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화 운동의 포용성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의 고조와 전후 극단주의, 볼세비키주의에 대한 공포가 맞물리면서 퇴색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미국화 개념은 강제적이며 가혹한 형태로 변질되었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만을 배우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관대하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 출신자들과 외국인의 배신 가능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30] 따라서 미국화라는 용어가 점점 부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이 미국화라는 용어는 사회과학 백과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미국화 운동은 1930년대에 다시 이민과 미국사회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갈라졌다. 이때 논쟁에 불이 붙은 계기는 히틀러의 대두였고, 그의 인종주의와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의 역사였다. 1차 세계대전 때의 미국화 운동이 강제적인 동화와 미국화였다면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의 강조를 통해 히틀러에 저항하고 인종주의를 반대하게 되었다. 히틀러의 대두와 전쟁에 대한 공포는 소위 '문화적 다원주의'와 비슷한 가치관을 미국 사회에서 재탄생시켰다. 그리고 이때부터 흑인 중남미계 그리고 동양인들이 인종과 민족에 관한 논쟁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미국이 히틀러와 그의 인종적 우월주의에 대항하고 있었기 때

[28] James A. Gavit, *Americans by Choice* (New York: Harper, 1922), 11.

[29] Ibid., 12.

[30] Nathan Glazer, 185.

문에 미국은 자신들의 사회 속에서 이류 국민으로 분류되어 법적이고 비공식적인 분리, 차별, 그리고 선입관에 의해 많은 고통을 받던 인종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다. 따라서 1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만 해도 몇몇 철학자들과 언론인들의 환상적인 희망에 지나지 않았던 문화적 다원주의가 이때부터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미국사회의 관심도 점차 유럽계 이민자들로부터 백인이 아닌 소수민족들로 옮겨 가기 시작하였다.

시카고 대학에서 인종과 민족에 대한 학문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미국에서 인종과 민족에 대한 연구로 가장 유명한 사회학자 Rovert E. Park는 '동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의 학문을 펼쳐나갔는데, 그에 의하면 동화를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인종이었다.[31]

1960년대 말부터 동화에 반대하는 주장이 터져 나왔고, 그대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새로운 주장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되어 왔다. 온건한 문화 간 교육은 강압적인 다문화주의 교육으로 대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란 개념은 이미 죽은 단어가 아니라 아직도 건재하다.이민자들은 미국에서의 물질적 부의 성취를 얻기 위해 영어를 배우며 미국의 상업문화에 물들어 있고 영화, 라디오, 잡지 등 미국문화를 통합시키는 매체들이 이민자들의 동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남미계와 아시아계에게 있어서 동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는 선택이다. 이들 중에는 영어와 자신들의 언어를 동시에 자녀들에게 교육하면서 그들의 독특한 자아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기반을 구출하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흑인들의 경우는 동화가 확실히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32]

그러므로 현재 미국사회는 백인들과 흑인들, 그리고 중남미계와 아시아계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문화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힘들이 존재하면서 동화적 조류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동화를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의 그룹들이 한 사회에서 공존하기 위

[31] Ibid., 194.

[32] Ibid., 201.

해 필요한 대응책으로 보았고, 사회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이상형 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를 미국 사회에서 거부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동화라고 하는 이 개념은 미국의 자아의식 형성과정에서 흑인, 토속 인디언들, 그리고 다른 많은 민족과 인종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33] 동화는 미국 사회의 인종적, 민족적 현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이가 인정받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최근 인종에 대한 논의들은 다양한 인종집단이 이전의 충성심과 정체성에 대한 유대를 잃지 않고 미국인으로서의 공통적인 관련성을 여전히 공유하게 한다. 합의적인 순응보다는 문화적 자율에 대한 가능성과 인종에 대한 자부심,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장점이 되도록 하게 하였다. 이것이 새로운 현실이며 이것을 '문화적 다원주의' 혹은 '다문화주의'라고 부른다.[34]

지난 30-40년간 문화와 정체성에 관련한 주장들은 동질화 신화의 실패에서 비롯한다. 미국적인 동질성에 대한 인종주의 또는 다문화주의의 도전은 미국 문화의 영국적 기반에 대한 영국 이외의 유럽계 미국인들에게서 처음 나타났고, 그 이후에 비유럽계 미국인들에 의해 확대되었다.

비유럽계 미국인들은 동화론이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면서,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미국에서 앵글로 색슨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온 비 유럽계 이민자들도 미국 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미국 문화 형성에도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앵글로 색슨계가 주도하는 가치와 문화에 동화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미국의 근본이념, 즉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며, 앵글로 색슨계 이외의 인종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로 간주한다.

이러한 다양한 인종들의 다양한 문화정체성과 단일한 국가 정체성간의 요구가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의 정치학자 Samuel Huntington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억눌

---

[33] Ibid., 174.

[34] Ibid., 257.

려 나타나지 않고 있던 문명 간의 갈등이 냉전 이후 세계 질서의 기본 축이 될 것"[35] 이라는 전망이다. 이들은 인종의식을 강조한다는 것이 미국인이 되는 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투쟁이라고 말하고 있다.[36]

따라서 낡은 가치와 문화의 폐기를 통한 인종 동화라는 과업과 하나의 새로운 의미에서의 다원적 다문화적 사회를 위한 계도 사이의 긴장은 계속 남아 있고, 이 둘 사이의 긴장은 앞으로 미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다.

B.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1. 다문화주의의 논점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개념은 1970년대 캐나다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캐나다에는 원주민이나 퀘백인처럼 인종, 민족, 종교 등에서 다수자 집단과 차이가 있는 문화적 소수 집단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다문화주의 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37]

현대사회는 한 국가와 민족공동체로서의 국민을 연결하는 전통적인 민족국가 개념이 더 이상 현대의 사회적, 정치적 변천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전 세계에 걸친 이민으로 인한 변동, 소수 민족과 국민 내 소수 집단 등의 권리에 대한 자각을 들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는 결코 내적으로 동질적이지 않다. 물론 그 다양성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다문화적이고 다민족적인 집합체로서 때로 그기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개인 혹은 집단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동질성을 추구하던 정치체계 내에서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등장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38]

---

[35] Samuel Huntington, *문명의 충돌,* 이희재 역 (서울: 김영사, 1997), 40.

[36] 이유정, 46.

[37] Nathan Glazer, 33.

[38] 이유정, 4.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요구와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 그리고 정체성의 다양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찾는 것과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다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정치적인 통합은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주의의 핵심 이념이나 목적은 소수자들에 대한 문화적 차별을 제거하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문화적 동화나 통합보다는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소수자들이 존재하는 국가나 지역에서 다문화주의는 더 중요한 의제가 된다.

다문화주의의 담론에서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다. 그것은 다문화주의가 공동체의 분열과 파편화를 낳지 않는지, 다문화주의가 내부 구성원에 대한 억압을 용인하지 않는지, 만약 소수자 집단의 특수한 문화적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에 대한 관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등의 문제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다문화주의를 고찰해보는 것이다.[39]

특정 공동체가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면 공동체의 약화와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다문화주의의 수용은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복수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는 다원적 또는 다문화적 공동체주의인데 이것은 강한 공동체주의에서 후퇴한 완화된 공동체주의이다. 그렇지만 다문화적 공동체주의 모델도 공동체들 사이의 문화적 충돌이라는 문제에 부딪칠 수 있으며 그래서 상위 공동체가 하위 공동체를 어느 정도까지 관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문화주의는 정치적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시민권의 정치도 아니며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재분배의 정치도 아니고 바로 문화적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차이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나아가 소수자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이다.[40]

---

[39] Martinielo,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 2002), 111-128.

[40] 손철성.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대한철학회논문집, *철학연구* 107집 (서울: 대한철학회,

다문화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쟁점들 중에서 여기서 다루게 될 것들은 다음과 같다.[41] 첫째, 다문화주의가 소수자 집단의 특수한 문화적 정체성이나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해치고 분열과 파편화를 낳지 않는가? 둘째, 이러한 집단의 차별화된 권리가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셋째, 다문화주의가 비자유주의적인 소수자 집단을 용인함으로써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할 것이다.

2. 다문화주의 모델

여기에서는 다문화 모델을 통해서 바람직한 통합모델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적 소수자 집단이 문화적 다수자 집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기준으로 다문화 모델을 '동화 모델'과 '정체성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42] 동화모델은 소수자 집단이 다수자 집단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통합되기를 원하는 경우이며 정체성 모델은 소수자 집단이 다수자 집단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이다.[43]

1) 동화 모델과 정체성 모델

도표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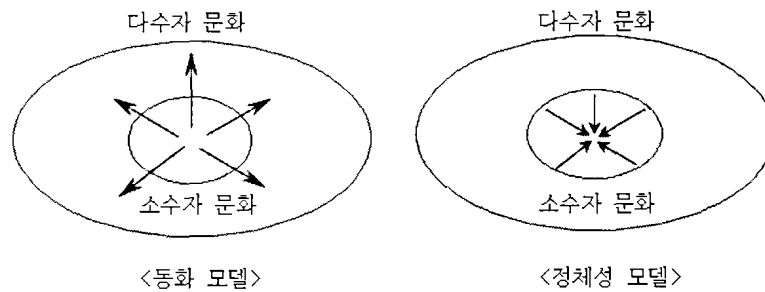
2008), 4.

[41] Ibid., 4f.

[42] Ibid., 5.

[43] Ibid., 6.

[44] Ibid.

<동화 모델> <정체성 모델>

동화모델의 전형적인 모습은 이주민들이 새로 이주한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다수자 집단의 문화에 자발적으로 통합되기를 원하는 경우이다. 이주민들이 원래 속했던 문화보다는 새로운 문화를 선호하여 여기에 기꺼이 동화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적응과 통합을 위한 동화정책이나 동화 교육이 실시된다. 여기서는 이주민들이 주류문화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방해하는 문화적 차별이나 편견을 제거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주민들의 주요 관심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해서 시민권이나 경제적 권리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데 있다.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체성 모델'이다. 정체성 모델의 전형적인 모습은 원주민이나 특정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이주민들이 지배적인 문화에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원주민이나 퀘벡인들이 이에 해당된다. 카톨릭을 믿는 프랑스계 퀘벡인들은 주류인 영국문화에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독특한 문화공동체를 유지하기를 원한다.[45]

퀘백인들은 주류집단의 시민들에 비해 시민권이나 경제적 권리에서 특별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적 차원에서 독자적인 문화 공동체의 존속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미국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이주자 집단인 히스패닉계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들이 동화나 통합보다는 자신들의 문화 공동체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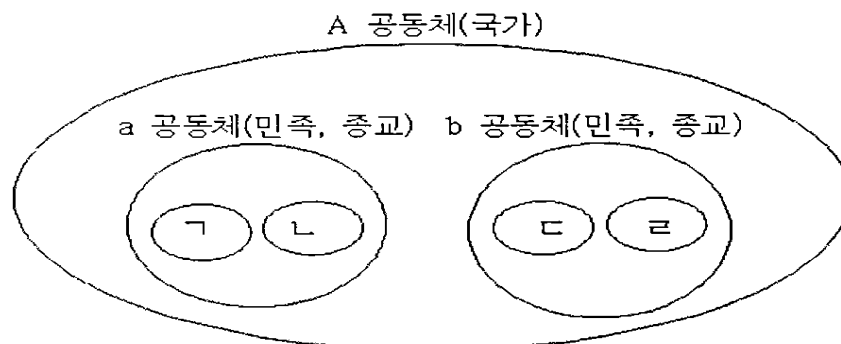
[45] Ibid., 7.

다문화주의는 소수자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권리를 강조하다보면 이것은 자칫하면 공동체주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수자 집단들이 문화적 정체성들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간의 갈등을 없애고 통합하여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개인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는 안되며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나 전통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주의는 자아의 형성과정이나 삶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 공동체가 다문화주의 관점을 수용하여 그 내부에 이질적인 하위 공동체를 허용한다면 이것을 특정 공동체의 연대성과 통합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즉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다문화주의의 수용은 자기 모순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 상위 모델과 하위 모델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은 하나의 공동체에만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여러 공동체에 동시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다. 특정 종교나 민족에 기반을 둔 작은 공동체도 있으며 또한 이보다 더 작은 단위의 문화 공동체도 있다.

도표2[46]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삶의 단단한 뿌리가 되는 공동체가 어느 것인가 이

[46] Ibid., 12.

다. 만약 도표 2 에서 보듯이, A(국가 수준)가 삶의 단단한 뿌리가 되는 공동체, 즉 중심적 공동체라고 한다면 A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지평을 제공하며 그 구성원들에게 공동체가 추구하는 특정 덕목이나 가치관을 교육시킨다. 그런데 공동체주의가 다문화주의 입장을 수용하게 되면 A 공동체는 그 하부에 이질적인 공동체가 들어서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다문화주의를 수용한 A 공동체는 이질적인 하위공동체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의 연대성과 통합성이 약화되고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력도 쇠퇴한다. 즉 다문화주의의 수용이 공동체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계속 다른 하위공동체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다문화주의의 수용은 일종의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점점 더 많은 소수 집단들이 결성되어 문화적 인정과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과 같은 차별화된 집단적 권리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

특정 공동체가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면 공동체의 약화와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상위 공동체가 하위공동체들에 대해 강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하위공동체들은 상위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가치들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개인들은 예전처럼 하나의 공동체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위 공동체와 하위 공동체라는 복수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린다. 이것을 완화된 공동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장점은 공동체주의가 다문화주의를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 모순적인 측면들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47]

그러나 상위 공동체의 가치와 하위 공동체의 가치가 서로 양립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만약 이것들이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다문화주의는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주의는 옳음(정의)의 문제는 좋음(행복)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체주의는 옳음의 문제는 좋음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특정 공동체에서 인정되는 좋음의 가치를 바탕으로 옳음이 판단된다고 주장한다.[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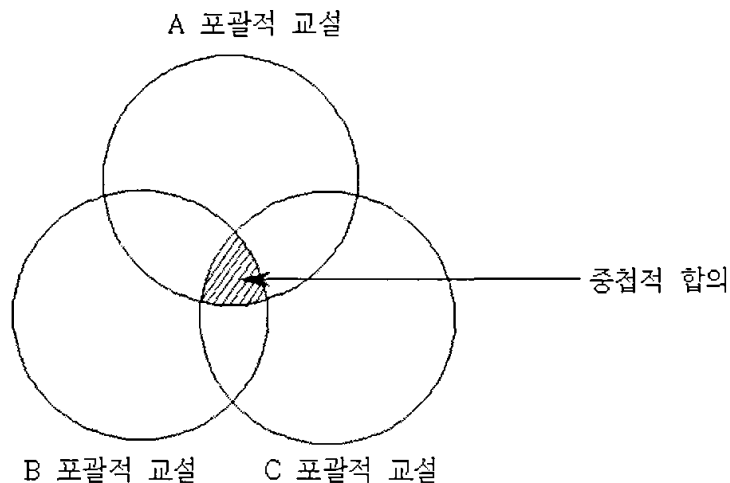
---

[47] Ibid., 14.

[48] Ibid., 14f.

3) 중첩적 합의

자유주의가 다문화주의와 충돌할 때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특수한 문화적 정체성이나 차별화된 집단의 권리를 주장하는 다문화주의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거기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려고 한다.

도표3[49]-중첩적 합의

예를 들면 자유주의자인 J. Rawls는 단순한 다원주의가 아니라 '합당한 다원주의'(reasonable pluralism), 즉 서로 양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합당한 포괄적 교설들로 이루어진 다원주의를 주장한다.[50]

이러한 합당한 다원주의의 원칙은 포괄적 교설들의 '중첩적 합의'를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원칙들을 수용하는 교설이나 사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당한 것으로서 허용되지만 이러한 원칙들을 거부하는 교설이나 사상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회로부터 배재되어야 한다. 다원주의적 자유주의 사회에서 특정한 교설이나

---

[49] Ibid., 15.

[50] J. Rawls, *정치적 자유주의,* 장동진 역 (서울: 동명사, 1998), 21-22.

집단이 합당한 것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헌법적 질서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중첩적 합의 내용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도 J. Raz나 W. Kymlicka와 같은 이론가들은 소수자 집단에게 보편적 시민권을 넘어서는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자들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소수자 집단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한다.[51]

W. Kymlicka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나쁜 소수자 권리'와 개인의 기본권을 보완하는 '좋은 소수자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52]고 말한다. 전자는 '내부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집단의 내부 구성원들이 전통적 관행이나 관습의 준수를 거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예를 들면 내부 구성원이 특정한 종교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특정한 믿음에 대한 의문이나 비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특수한 집단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후자는 '외부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집단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예를 들면 소수자 집단에게 특별한 대표권, 토지 소유권, 언어 사용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그 소수자 집단이 다른 집단들과 좀 더 평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수한 집단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소수자 집단의 특수한 집단적 권리가 인정되는 다문화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교육을 통하여 하위공동체들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받으면서도 상위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헤치는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53]

바람직한 하위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국가와 같은 상위공동체에 속한 시민으로서 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지만 탐욕적인 하위공동체는 그러한 원칙을 어기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보호받기 원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

51 Ibid., 16.

52 W. Kymlicka,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장동진 외 역(서울: 동명사, 2006), 471-5.

53 Ibid., 17.

있다.

현재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하위공동체가 지나친 정체성 모델을 추구하면서 상위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위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상위공동체의 가치와 정체성을 수용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III. 다문화주의에 대한 신학적 연구

A. 다문화주의에 대한 구약신학적 연구

1.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주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는 다문화주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주전 1220년경의 메르넵타 승전비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54] 그런데 이 승전비가 언급하는 이스라엘이 과연 구약성서가 말하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알스트룀은 '가나안'은 문화적이고 도시적인 지역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은 군사요충지가 거의 없는 산간고지대를 가리킨다고 말한다.[55]

성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구릉지대에 살거나 그곳에 정착한 상이한 여러 민족 집단들이 결합해서 형성된 것이다. 후에 그들은 사울 왕국에 속했다. 왕정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정치적인 단위를 가리키게 되었다.[56]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은 국가를 가리키기도 하며, 또 민족을 가리키기도 한다.

메르넵타 승전비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까젤은 '히브리'와 '이스라엘'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와

---

[54] J. Maxwell Miller & John H. Hayes,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68. 밀러와 헤이즈는 메르넵타 승전비 연대를 주전 1230년경으로 본다.

[55] Gösta W. Ahlström,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from the Palaeolithic Period to Alexander's Conquest*", JSOTS 146, 1993: 285.

[56] Gösta W. Ahlström, 286.

백성들을 가리키고, 히브리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에 합류한 사람들을 가리킨다.[57]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58]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민족들의 계보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후대에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전형적인 서아시아인들이었고, 그들은 간혹 '히브리인'으로 불리기는 했어도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불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역사에서 상당히 후대에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그들을 단일민족으로 생각하는데, 순수한 단일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도 없었다. 이스라엘은 어느 특정한 시기부터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복합적인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국가는 배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밀러는 "이스라엘을 단일한 민족이 아니라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 즉 유목민으로 정착한 사람들, 이주한 아람인들, 해양 족속들, 해양 족속에 쫓겨온 해안지역 주민들 등 모두가 섞여서 이루어진 집단"으로 보았다.[59] 정중호는 "이스라엘은 결코 단일 민족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경제-사회-정치적인 이유에서 여러 다양한 집단이 모여서 이룩되었으며 이것은 고대중동의 국제사회가 만들어낸 작품 중의 하나였다.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웨 하나님 앞에서 야웨께서 자신들을 낳으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했다"고 말한다.[60]

팔레스타인에 국가가 건설되기 이전에 그곳에서 사람들은 작은 도시국가를 이루면서 살았다. 정중호는 "이 다양한 족속들이 섞여 살던 팔레스틴 땅은 철기시대로 바뀌면서 종족들이 단일화하기보다 더 많은 종류의 종족들이 유입되어 팔레스틴 땅

---

57 H. Cazelles, "The Hebrews," *Peoples of Old Testament Times,* ed. D. J. Wiseman, (Oxford: Clarendon Press, 1975), 1-28.

58 Siegfried Herrmann, *A History of Israel in Old Testament Times,* tr. by John Bowden (London : SCM Press, 1981), 43.

59 정중호, *이스라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53에서 재인용. "이러한 민족형성과정은 한민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한민족이란 한반도에 살고 있던 다수의 민족과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오랫동안의 통합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지, 기원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전, *우리는 단군의 자손인가*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9), 65.

60 정중호, 56.

은 각종 종족들의 전시장을 방불케 하였다."고 말한다.[61] 여호수아 12장에 나오는 명단만큼, 팔레스타인에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들 가운데 여러 부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러면서 점차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나갔다.

이것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건국과정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고, 모세 사후에 그들 모두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땅으로 들어가 그곳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한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건설한 것이다. 이스라엘 건국은 출애굽집단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건국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이해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62] 최근의 고고학적인 결과는 가나안 내부에서 문화적인 변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서, 이스라엘 건국을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주축을 이룬 사건으로 보지 않고, 가나안 내부적인 사건, 즉 가나안의 사회적 체제변혁으로 본다.[63] 초기 철기 시대에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 지을 만큼 독특한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찾아볼 수 없다. Miiller는"고고학적 발굴물이 말해 주듯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특이한 이스라엘 문명을 구별해 내기는 힘들다"고 했다.[64] 정중호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문명이 가나안 문명과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구별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이 한 집단으로 응집되며 세력을 떨치기 시작할 때부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65]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불성설이다. 이제 학자들은 이스라

---

[61] Ibid., 61. 후기 청동기 시대의 팔레스타인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애굽이 쇠약해지면서 해양민족들이 들어왔다. Miller & Hayes, 81.

[62] Siegfried Herrmann, 56.

[63] William G. Dever, *Recent Archaeological Discoveries and Biblical Research*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0), 81.

[64] Miller & Hayes, 85.

[65] 정중호, 55.

엘 건국에서 외부인들의 역할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정복설과 이주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팔레스타인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66]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이 여러 부족들을 결합하고 영역을 확장하면서 국가를 건설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고유의 영토라는 것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계속 확장하면서 자신을 형성시켜 나갔다.[67] 초대 왕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는 매우 협소했고, 그만큼 백성들도 적었다. 하지만 다윗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 영토가 상당히 넓어지면서, 백성들도 그만큼 늘어났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토나 민족개념에서 점차 자신을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을 형성해갔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구성의 복합성[68]은 솔로몬 사후에 일어난 남북 분열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분열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이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상황에서도 남과 북이 완벽하게 결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69] 분열 이후에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했고, 남쪽은 지파명인 유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북왕국으로 이어졌고, 남왕국에 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장악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부족들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여전히 독자적인 성격을 유지함으로써 정권쟁탈전이 치열했다.[70]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야훼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71] 그래도

---

66 정중호, 50f.

67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서울: 조합공동체 소나무, 1999), 25.

68 정중호, 172.

69 정중호, 126.

70 정중호, 139.

71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타락해서 혼합종교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혼합주의적이거나 다종교체제에서 점차 단일종교체제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J. Alberto Soggin, *Storia d'Israele, dalle origini alla rivolta 야 Bar-Kochba, 135 d.C.*, tr. John Bowden, *A History of Ancient Israel from the Beginnings to the Bar Kochba Revolt, A.D. 135*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84),

구약성서를 얼핏 보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나마 야훼신앙을 국가신앙으로 표방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으며 실제 상황은 어떠했는지 출애굽 집단과 이스라엘을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으로 진입해 들어온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출애굽 집단이 이스라엘 건국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비록 수는 적었지만, 이스라엘 건국과 민족개념 형성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72]

그렇다면 이스라엘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한 출애굽 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에 의하면 출애굽한 사람들은 한 무리는 아니었다. 그들은 다양한 무리들이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노예탈출사건이 한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양한 무리들이었고, 그들은 어떤 통일성이나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았다.[73]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몇 무리들은 애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도망하는 과정에서 만나 서로 연대하거나 결속하기도 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74]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체류하면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결속을 다졌는데,[75] 그러면서 야훼신앙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출애굽 무리들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서로 결속하게 되었고, 그 결속을 강화시켜준 것이 바로 야훼신앙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무리들 가운데 야훼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그 신앙을 다른 집단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이다. 이 출애굽 무리들이 내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야훼신앙을 수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표면적으로라도 야훼신앙을 중심사상으로 표방했다. 이렇듯 야훼신앙은 그 다양한 출애굽 무리들을 결속시켜주는 힘이었던 것이다.[76]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다소 혼란스럽지만, 그 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족형성을

67.

[72]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81), 140.

[73] Ibid., 136.

[74] Siegfried Herrmann, 60.

[75] Ibid., 77-78.

[76] Raine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tr. John Bowden,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volume 1; From the Beginnings to the End of the Monarch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76-77.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사울과 다윗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은 아직 단일민족개념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거느린 신하들 중에도 민족적인 다양성을 보인다.[77] 이런 점들을 볼 때, 이스라엘이 결코 단일민족공동체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양한 민족들이 필요에 따라 함께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국민이 되었고 그들이 점차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간 것이다. 이러한 민족형성개념은 폐쇄적이고 국수적인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민족을 개방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야훼신앙이 이스라엘에 점진적으로 침투해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민족들을 한 민족으로 형성시켜주는 원동력이 야훼신앙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형성사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민족개념이 강하게 나타날 때마다 야훼신앙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강하게 드러나는데, 히스기야 시대와 요시야 시대는 민족개념을 강하게 고취시키면서 자민족과 타민족을 철저히 구분하고, 타민족에 대해서 극히 적대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그러면서 순수한 야훼신앙을 이스라엘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스라엘에서 민족개념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다양한 무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포괄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들 이외의 사람들을 타민족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배타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갖는다. "민족주의를 하나의 문화표현으로 볼 때, 민족주의가 민족을 어떻게 신성시하며, 정치적 활동을 어떻게 종교적 예배로 전환시키는지 알아내기란 어렵지 않다. 문화와 민족은 하나가 되며, 각각은 상대방의 신성한 특성을 재강화한다."[78]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한 민족으로 출발했고,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온 것으로 성서기자들이 정리하는 것 자체가 에큐메니칼적이다. 성서기자들은 단일민족개념을 자꾸 강조함으로써 그 사상을 독자들에게 주입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단일민족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려는 것

---

77 룻기를 보면, 다윗・솔로몬 시대에는 자민족과 타민족에 대한 구별의식이 거의 없었던 듯하고, 민족의식 자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8 Kenneth M. Wells, *새하나님 새 민족,* 김인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21.

인데, 이런 노력 자체가 바로 에큐메니칼적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와 민족형성과정에서 출애굽사건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소수였다. 엑소더스에 참여한 사람은 몇천명을 넘지 않았다.[79] 그리고 후대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직접적인 후손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작은 사건을 전체 이스라엘, 즉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사건으로 기록한다.

> 인구증가는 유아사망율 등 숱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루카스(A. Lucas)라는 학자가 1907-1937년에 걸친 이집트의 공식 인구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천 명당 년 평균 인구증가율을 계산한 후, 이를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를 따져보니 70명이 430년 후에 10,363명으로 느는 데 불과했다. 더욱이 족보로 살펴보면 모세는 레위의 증손자밖에 안되니, 이 경우 문제는 한층 복잡해진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200만 명에 달했다면, 당시 에집트 인구는 어느 정도였을까? 기원후 1세기 후반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F. Josephus)는 당시 에집트 인구가 알렉산드리아를 제외하면 750만 명 정도라고 적었다. 기원전 1세기 중반의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루스 시클루스(Diodorus Siculus)는 그 당시 주민을 700만 명이라고 보고했다. 오늘날 학자들은 고대 에집트의 인구 규모를 4-500만 명 선으로 보고 있다.[80]

그들이 경험한 사건을 전 이스라엘이 경험한 사건으로 기록하는 작업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그들 모두로 하여금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케 하려는 에큐메니칼적 사역이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 출애굽 사건을 전체 이스라엘이 함께 경험한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의도이며, 종교가 다양한 사람들을 야훼신앙으로 결속시키려는 에큐메니칼적인 작업이었다. 이스라엘 부족들은 공통된 언어,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공통된 역사 경험에 의해서 하나로 결속되었다.[81]

---

[79] John Bright, 134.

[80] 성서와 함께 편집부, *어서가거라-성서가족을 위한 출애굽기 해설서* (서울: 성서와 함께, 1992), 185-186.

[81] Martin Noth, *The History of Israel*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0), 4.

2. 조상 개념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주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양면성을 갖는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의 조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창세기 25장에서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다.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만의 조상은 아니다. 그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다. 그는 이삭의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아버지였고, 그두라가 낳은 여섯 아들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본문은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여섯 아들들이 각기 민족들을 이루며 살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2-18절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후손들의 계보를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한다.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주변 민족들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분명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만의 조상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타성을 강조할 때는 아브라함보다는 오히려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열두 아들로부터 파생한 것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주변 민족들의 조상인데 비해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3. 가족 개념 확장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주의

제3이사야는 첫 엑소더스인 출애굽 때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다시 포괄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려는 개방적인 시도를 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가족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가족 개념을 확장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주의가 배타성이 강하다면, 가족확장은 개방성이 강하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배타성보다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엘가나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실제로 주인공은 엘가나가 아니고 '한나'라는 여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여인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걱정

인데, 브닌나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더 심하다. 한나는 실로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엘리로부터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확답을 얻고 돌아오는데, 그 약속대로 한나는 마침내 사무엘을 낳는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를 실로로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엘리를 수종케 한다. 그런 다음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 또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한나의 노래는 성경이 말하는 가족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이다.

한나의 노래는 한나가 부른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많다.[82] 본문은 왕의 군대가 승전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찬양이거나 왕위계승자탄생에 대한 감사찬양일지도 모른다.[83] 어쨌든 원래 한나의 기도와 무관하던 이 시가 나중에 '한나의 기도'로 본문에 삽입된 것은 사실이다. 이 노래가 한나의 기도로 삽입되면서 어떤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 시를 여기에 삽입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시를 한나의 기도와 찬양으로 읽게 하고 싶은 의도를 보여준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국가건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매우 사소하게 보이는 엘가나 집안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런데 그 사소한 가족 이야기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족 이야기라는 차원을 벗어나 국가적인 차원으로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가 가족 이야기에서 국가 이야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문이 보여주는 이러한 기능적인 이미지는 구약성경이 말하는 가족 이미지와 일치한다. 구약에서 가족은 가족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가족은 여전히 가족으로 존재하면서도 또 언제나 가족을 넘어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나아간다.

> 국가는 자연적으로 그리고 인위적으로 친족 이미지를 갖는다. "한 국가의 정치체제는 친족적 이미지로 윤색되면서 국민들의 무의식적 정신·심리구조에 뿌리를 두기 마련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국가를 세우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존재해야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전거를 마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 자체에 하나의 지위를 부여해서, 그 구성원들이 무의식적으로 국가를 자신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인

[82] H. P. Smit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ICC Series. (Edinburgh: T&T Clark, 1977), 14.

[83] P. Kyle McCarter, Jr., *I Samuel,* AB. (Garden City, New York : Doubleday & Company, Inc., 1980), 73.

격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라는 개념은 더없이 추상적이면서 동시에 더 없이 친근한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표면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이 제각각 절대적 힘을 지니고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그 구성원들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이미지가 절대로 필요하다......또한 상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맺어진 계약에 토대를 둔 Etat로서의 국가도 그것이 하나의 국가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왜 그들끼리 계약을 맺게 되었는가의 문제, 즉 그들이 계약을 맺는 관계로 이어지게 된 근거에 대한 앞선 이해, 앞선 양해가 있어야 하며 바로 거기에서 그 구성원들을 친족적 관계로 맺어줄 이미지가 필요하다.[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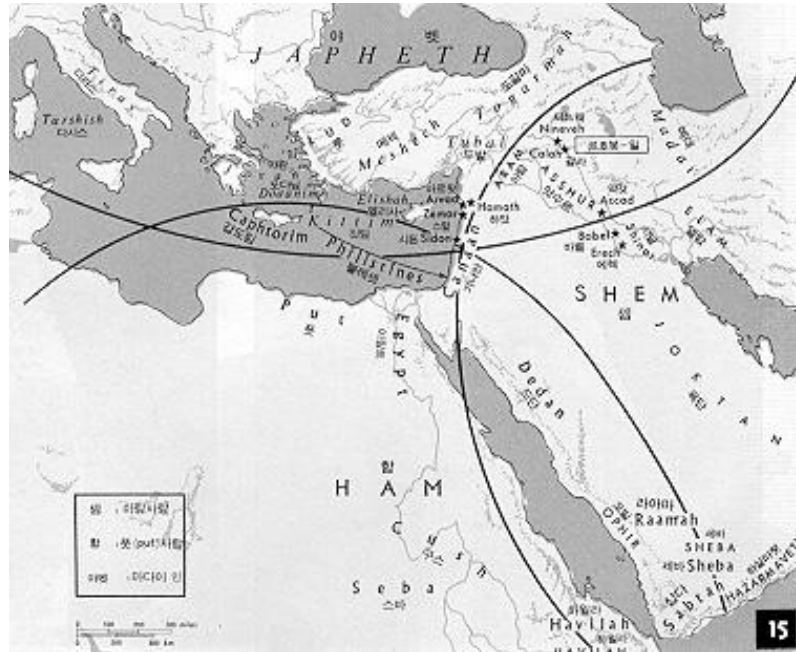
이런 확장은 사무엘서 바로 앞에 나오는 룻기에서도 나타난다. 룻기는 엘리멜렉 집안 이야기이다. 그런데 룻기는 한 가족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룻기는 마지막 부분에 다윗 계보를 첨부함으로써, 한 가족 이야기에서 왕이 등장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가족 확장을 보여준다.

이러한 확장은 창세기 10장의 족보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1절에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라고 한 다음, 그 후손들의 계보를 야벳(2-5절)-함(6-20절)-셈(21-31절)의 순서로 기록한다. 그런데 각 문단을 비슷하게 마무리한다. 야벳의 계보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5절)로 마무리하고, 함의 계보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이었더라"(20절)로 마무리한다. 셈의 계보는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31절)로 마무리한다. 그리고 10장 전체는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백성이 나뉘었더라"(32절)로 끝맺는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을 지역별로 밝힌다.

창세기 10장은 당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망라해놓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알려진 주요 민족들을 언급하고, 그들이 서로, 그리고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모두 70개 민족들이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인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일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다 넓은 인류 가족의 축소판(a

84 유평근 · 진형준, *이미지* (서울: (주) 살림출판사, 2001), 268.

microcosm of the wider family of humanity)임을 보여준다.[85]

지도1[86]

위 지도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야벳, 셈, 그리고 함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구분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서 발견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당시 세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세계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모든 인류는 홍수 후에 노아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 노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이라는 것이다.[87] 이처럼 창세기 10장 기자는 가족개념을 사회나 국가 차원이 아니라 당시의 온 세계로 확장한다.

그리고 가족개념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해나가는 경향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사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에게서 더 명확하고 강하게 나타난다. 이사야서 2장

---

[85]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BC 1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7), 214.

[86] Yohanan Aharoni and Michael Avi-Yonah, *The Modern Bible Atlas*, 문창수 옮김, *아가페 성서지도*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21.

[87] G. J. Wenham, *Genesis 1-15*, 215.

2-4절이 대표적이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은 영토가 매우 좁고 백성들이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당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세계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세계는 하나'라는 인식을 우리는 세계주의(世界主義) 또는 유니버셜리즘(Universalism)이라고 한다. 이런 확장된 가족 이미지로서의 유니버셜리즘은 이사야서 42장 10-12절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제2이사야는 지구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세계를 설정하며,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찬양하는 모습을 꿈꾼다.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런 유니버셜리즘, 즉 확장된 가족 이미지는 제3이사야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제3이사야는 그것을 제2이사야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한다. 이것은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비록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부각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황홀한 모습을 꿈꾸었다. 그들은 온 세상이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때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세상, 세계로 확장된 가족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꿈꾸며 살았다.

B. 다문화주의에 대한 신약신학적 연구

성경에서는 올바른 교회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들어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이다.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이금만은 이렇게 말한다.

> 전 세계에 분포한 그리스도교는 700여개 교파로 이루어져 있으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한 분이므로 크게는 하나의 교회이다(롬 3:29-30;10:12;16:27; 고전

12:4-11; 갈 3:20; 딤전 1:17).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남녀 연령 종족 계층 문화의 차이를 넘어 온 인류를 포용한다고 할 수 있다(고전 1:13; 엡 1:22-23; 계 21:22-27).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분이라고 성서가 말하기 때문이다(엡 4:4-6).[88]

다문화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쳐 준 교회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순종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 인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을 통하여 다문화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이 가능함을 말하도록 할 것이다.

1.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주의

1) 에베소서 2:11-22

"육체로 이방인"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할례의 유무라는 신체적 특성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초대교회와 바울에게 있어서 큰 논란과 진통을 겪게 했다.[89]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를 놓고 강경한 유대주의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90]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다. 따라서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당시 로마 사람들은 할례를 야만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이렇듯이 할례는 상징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나누는 표지였다.[91]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전에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

---

88 이금만, "통전적 에클레시아 교육론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기독교교육 연구의 현황과 새 좌표.* 기독교교육논총 4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59.

89 유승원, *크고 넓은 교회, 높고 깊은 신학*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1), 124f.

90 사도행전 15:1-35, 갈라디아서 5:2-4, 11-12.

91 유승원, 127.

택의 영역에 들지 못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다고 바울은 말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고 참 소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 형식상으로는 이스라엘과의 거리감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가 핵심이다.[92]

가까움과 멀리 있음은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분하는데 사용한 용어이다. 이방은 원방 또는 먼 곳으로 표현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그래서 "가까이 데려오다"는 의미를 갖는 히브리어 קָרַב는 "비유대인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오다"는 뜻으로, 즉 개종을 묘사하는데 사용했다.[93] 개종을 뜻하는 헬라어 동사인 προσέρχεσΘαι도 '근접하다, 가까이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전통적인 유대교의 개종 용어[94]를 사용해서, 에베소서 기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방인과 유대인의 결합을 설명한다.[95]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구속의 수단으로 언급한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수단이기도 하다. 멀리 있던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가까워지게, 즉 하나님의 선택 안으로 불러들여 소외를 극복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였다. 이제 에베소서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평화'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평화의 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으로서 평화 자체가 된다는 것이다.[96]

헬라어에서 평화를 가리키는 단어인 εἰρήνη는 헬라적 배경에서 '전쟁과 싸움의 중지'라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 하지만 바울과 다른 신약의 기자들이 εἰρήνη를 사용할 때는 히브리어 שָׁלוֹם을 염두에 두었다. שָׁלוֹם은 '완성, 건전, 복지, 총제적 구

---

92 Ibid., 129.

93 Ibid., 133.

94 T.K. Abbott, *The International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ltes to the Ephesians and to the Colossians* (Edinburgh : T&T Clark, 1979), 60.

95 유승원, 134.

96 Ibid., 135.

원'의 의미를 갖는다. 헬라어의 εἰρήνη가 '부재', 즉 '쟁투의 부재'라는 소극적 의미를 갖는다면, שָׁלוֹם은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고 할 때, 이는 적극적인 창조를 함의한다. 그래서 둘 사이의 담을 허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를 만든다. 원수가 되는 조건을 폐할 뿐만 아니라 한 새사람을 창조한다.[97]

그리스도는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가운데 가로막는 담을 헐었다. 이 담은 실제 성전 담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15절에서 부연 설명하는 율법을 가리킨다. 이방인의 접근을 막는 성전의 난간도 그와 같은 분리의 근거를 제공하는 율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은 울타리로서 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막힌 담, 즉 양자 간의 반목의 원인을 자신의 육체로 무너뜨리셨다. 유대교의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구실을 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의 표지로서 이방인이 넘을 수 없는 사회학적 담이었다. 에베소서는 이러한 경계의 담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의 율법의 폐지를 선언한다. 또한 '도그마'라는 용어가 함축하는 율법 자체의 억압성도 같이 폐지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예수는 율법을 완성했고 율법의 기능은 예수에게서 끝이 나며, 그래서 연속되던 율법의 선은 예수에게서 마감점이 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다. 율법의 폐지는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었다. 한 새 사람의 창조요 한 새 성전의 건설이었다.[98]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의 상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그 하나는 '한 새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이제 평화를 만드는 일이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 그 화목은 한 몸이 된 교회가 하나님과 이루는 것이다. 즉 우선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묶어 하나로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로 창조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99]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은 둘의 성격을 공유한 통합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새

---

97 Ibid., 136f.

98 Ibid., 141.

99 Ibid., 141f.

사람의 창조이다.

앞에서 본 대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평화를 선포했다. 그 결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사람이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성령 체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얻은 것이다. 아버지께 나아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100]

19절부터는 하나 된 이후에 변화된 신분을 말한다. 그리스도 없이 경계선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예전에는 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πάροικος)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엄연한 시민권을 얻어서 시민(πολῖται)이 되었다. 예전에 이방인들은 '손', 즉 나그네였다.[101] 같이 모여 사는 부족 또는 가족과 혈연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땅도 집도 없이 잠시 머물다가 정처 없이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었다.[102]

이방인이 시민이 되면서, 새로운 한 인간이 집합적 존재로 탄생되고, 그러한 감동적 화목의 대화합은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의 이미지로 제시된다.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신자들 가운데 거하여 신자들이 성전이 되게 하신다.[103]

2) 에베소서 4:1-6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 됨과 다양성, 그리고 성장의 개념을 한데 묶으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

100 Ibid., 144f.

101 레위기 22:10을 보면, "제사장의 객"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었다. Abbott, 68.

102 유승원, 146.

103 Ibid., 148.

가 갖는 관계이다.[104]

3절에서 하나가 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일치 또는 성령의 하나 됨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 됨을 이루는 것은 성령 자신이지 신자들이 아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은 성령이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의 본질로서의 통일성이다. 성령의 하나 됨을 신자들이 힘써 보전하여 신자들 사이에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라는 명령이다.[105]

"힘써 지키라"는 말은 성령의 일치를 보전하는 일이 긴급하고 중요함을 일깨운다. 그런데 힘써 지키는 것은 평안의 매는 줄로 이룰 수 있다. 평화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평안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 성령의 본질은 일치이다. 하나 됨이다.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이루셨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다. 일치도 있고 평화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 몫이다.[106] 그것도 그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긴박감을 느끼며 절실하게 온 마음을 쏟아서 지켜야 한다.[107]

교회의 하나됨과 그 하나됨의 원천과 도구들을 언급하는 4절부터는[108] 명사들을 나열하는데, 그 명사들은 모두 '하나'라는 수사에 의해 수식을 받는다. 일곱 번 나오는 '하나'라는 단어는 이 구절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강력한 일치와 통일의 메시지를 전한다. 여기서는 삼위의 순서가 '성령-성자-성부'이다.[109] 한 몸은 성령의 일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문제이다. 그래서 한 성령이 한 몸에 이어

---

104 유승원, 162.

105 Ibid., 166f.

106 평화는 성령의 연합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Abbott, 107.

107 유승원, 167.

108 Abbott, 107.

109 6절은 클라이막스를 이루는데, 처음에는 교회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순서로 나아간다. 그리고 삼위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주님, 아버지로 나아간다. Abbott, 109.

선언된다. 한 성령의 통일성 속에 한 몸을 이룬 이들은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입은 운명 공동체이다.[110]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연합의 경험은 성령의 체험에서 확인되지만, 고백과 의식에 따른 의미의 실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결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에 입각한 공동체 체험의 기원이 되는 기독론적 고백에 포함된 내용들이 이어진다. '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다. '한 믿음'으로 '한 세례'를 받은 것은 '유일한 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이다. 이것을 통해서 한 성령의 경험이 현재화한다.[111]

'한 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한 다음, 모든 역사의 근원이신 '한 하나님'에 대한 선언으로 나아간다. 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기독교 신앙이 유대와 뿌리를 같이 하는 부분이다.[112]

에베소서 4:4-6절은 신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가능케 한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113]의 근원으로서 만물의 창조주요 보전자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으로 마무리한다.[114]

2.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주의

기원후 50년대에 기록된 바울 서신은 신약성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문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초대 교회에 대한 상세한 역사적 정보는 사도행전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초기 교회의 발전사와 사도 바울의 선교여향의 전체적인 흐름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당시 교회의 실상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바울서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115] 초대 교

---

110 유승원, 168f.

111 Ibid., 169.

112 Ibid., 169.

113 여기서 모든 것, 즉 πάντων은 문맥상으로는 기독교인들을 가리키지만, Abbott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Abbott, 109.

114 유승원, 170.

회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바울 서신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울 서신은 중요성을 갖는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상적으로 묘사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후대에 보여주는 반면, 바울은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전개된 초대 교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초 헬라 교회가 처했던 삶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로 보낸 서신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초기 교회에서 나타난 복음 이해에 대한 갈등은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다.[116]

바울 서신을 통해 이방인 기독교도들을 위한 복음의 해석자로서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바울은 헬라 전통에 서 있던 이방인 기독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롯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설명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행위를 이방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해석했다.[117]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Magna Charta of Christian Liberty)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118]는 어느 특정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향해 보낸 서신이다. 이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는 유일하게 보존된 바울의 회람서신이다. 갈라디아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쓰여졌다. 갈라디아 그런데 갈라디아라는 말이 종족적인 의미로도 정치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단어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119] 교회들은 소아시아의 북부, 로마령 갈라디아가 아닌, Ancyra와 Pessinus 주위의 영토에 있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이라는 언급은 보통 로마령의 거주자들이 아닌, 앞에서 언급한 지역들의 거주자들을 가리킨다. 더욱이 이 편지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갈라디아는 많은

---

115 Martin Dibelius, *바울-인물 사상 업적,* 전경연 역 (서울 :종로서적, 1977), 17.

116 김창선, *복음의 진리를 위한 사도바울의 투쟁-마르틴 루터와 함께 하는 김창선 교수의 갈라디아서 주석*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7), 23.

117 Ibid., 23f.

118 Bruce Manning Metzger, *신약성서개설-신약의 배경, 성장 및 내용,* 나채운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241.

119 Metzger, 240.

유대인 인구를 가진 Iconium, Lystra, Derbe를 가리키지는 않는다.[120]

이 서신은 초대 기독교에 있었던 서로 경쟁하는 두 진영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즉,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대교에 매달리고자 하는 진영과, 다른 한편으론 예수님을 영접한 뒤 할례 및 토라의 여러 개별 규정을 포기할 것을 주장하는 바울 진영 사이의 싸움이다.[121]

전통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 머물고자 했던 진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바울이 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의 진리'를 수용한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는 살아남았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유대교의 틀을 넘어서 기독교라는 독자적인 종교로 발전하는데 갈라디아서는 크게 기여했다.[122]

유대주의 성향의 기독교인인 적대자들과 바울이 논쟁을 벌이는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핵심 질문을 중심내용으로 다룬다. 즉, 인간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죽임으로 인한 것이지, 할례나 모세의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직 유대인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적대자들의 주장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임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본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정면을 반박한다.[123]

이 서신의 교리 부부인 3-4장에서는 인간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믿음의 원리(faith principle)와 행위의 원리(works principle)의 차이를 논하면서 구원받는 데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직접적인 체험에 의해 입증된 것이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이지 모세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124] 유대주의자들이 그

---

120 J. Christian Becker, *사도바울-바울의 생애와 사상에서의 하나님의 승리,* 장상 역 (천안 : 한국신학연구소, 1998), 71.

121 김창선., 37.

122 "이 짧은 여섯 장에 계속 반복되는 원리들의 선언으로 인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닌 보편적 세계 종교가 되었다." Metzger, 242.

123 김창선., 37f.

124 갈라디아서 3:1-5.

토록 신뢰하던 구약성서마저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된 것임을 가르친다.[125]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후에 주어진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에 내재한 믿음의 원리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126]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외에 바울은 행위에 대한 믿음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해 다른 예를 든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 즉 하갈(여종)과 사라(자유로운 여자)가 있었음[127]을 상기키신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게 먹혀들어갈 논증 형식인 알레고리의 수법으로 이 두 여인을 해석한다.[128] 즉 육체를 따라 난[129] 여종의 자녀들은 현재의 예루살렘의 자녀들이고, 한편 사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약속에 의해 그녀에게 허락된 아들인 이삭[130]이라는 것이다.[131] 그리고 그들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즉 당시의 예루살렘이 아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다.[132]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6장에서 자유에 관한 자신의 가르침을 오용하는 것을 경계한다.[133] 율법과 은혜가 배타적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이다.[134]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다.[135]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이루어진 신앙공동체이다. 최초로

---

125 갈라디아서 3:6-14.

126 갈라디아서 3:15-18.

127 창세기 16-17장.

128 갈라디아서 4:24.

129 이것은 자연적인 과정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Burton, 252.

130 창세기 15:4, 17:19.

131 갈라디아서 4:21-31.

132 갈라디아서 4:25-26.

133 Metzger, 243.

134 Hans Conzelman, *신약성서신학,* 김철손 · 박창환 · 안병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336.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안디옥 교회의 설립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이룬다.[136]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무명의 기독교인들이 안디옥까지 갔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는 유대교도들 혹은 이전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지만, 안디옥에서는 회당에 출입한 적이 없는 이방인들(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인다.[137]

레바논 지역 북쪽 Orontes River 변에 위치한 안디옥 시는 한때는 시리아 왕국의 수도였으나, 그 당시에는 그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주재지였다. 최근 고고학적 조사 결과 이 도시의 세계주의적인 성격이 확인되었다. 이 도시는 온갖 종족의 사람들과 온갖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사는 국제도시였다. 팔레스타인의 바로 외곽에 그리고 소아시아의 입구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무역이나 정치적인 면에서도 로마제국의 전역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은 자연히 새 신앙이 유대교와 결별하고 이방세계로 나아가고자 할 때, 선교 전략 기지가 되었고, 사도행전을 보면[138] 선지자들과 유능한 기독교 교사들의 집합소가 되었다.[139]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곳이 바로 이곳이다.[140] 그 이후의 교회 확장 기간에는 안디옥이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바울의 비유대화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141]

그래서 그들은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인종과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사고체계들이 달랐기 때문에 각자 이해한

---

135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안디옥에 있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까닭은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한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 즉 사도회의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Ernest de Witt Burt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Edinburgh : T&T Clark Ltd., 1980), xlv.

136 Metzger, 206.

137 Metzger, 206.

138 사도행전 11:27-13:1.

139 Dibelius, 64.

140 사도행전 11:26.

141 Metzger, 206f.

복음에 대한 많은 차이들이 있었다.

교회가 이방세계로 널리 퍼져갈수록 기독교와 유대교의 결속은 더욱더 느슨해졌다. 바리새인들의 관습에 따라 살던 팔레스타인의 교인들은 이런 사태를 몹시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교회가 유대교와 결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감한 시도를 했다. 그들은 유대교와의 분열의 위기를 막는 길은 전 교회와 교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믿었다.[142]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적인 삶을 살았다. 그곳에서는 불결한 음식을 멀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이방인들이 사는 시리아의 중심도시인 안디옥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이곳에 왔다가, 그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이로 인해서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하는 교회가 되었다. 유대인 기독교도들과 이방인 기독교도들이 함께 살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유대인 기독교도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많은 점에서 다르고, 그것이 갈등의 요소로 남아서 교회의 일치를 어렵게 하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다인종・다문화 교회에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인종・다문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회의에 대해 말하는데,[143] 사도회의는 초대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면서 유대인의 토라를 지키지 않고 할례도 하지 않는 개종자들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유대인 기독교도들은 불만을 갖게 되었다.[144]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사도회의가 열렸다. 그들은 복음선교와 교회의 일치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장벽들을 극복하기 원했다.

---

[142] Metzger, 216f.

[143] "1 십사 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2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달음질하는 것이나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1-2절).

[144] 김창선, 111.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 선교를 하는 지도자들과 이방인 선교를 하는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이들의 갈등은 단지 인종의 차이가 아니었다. 갈등의 초점은 그들이 이해한 복음에 대한 차이점이었다. 겉으로 비쳐지는 것은 인종의 차이인 것 같지만 실지로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차이와 갈등이었다.[145]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율법이 이미 있었다. 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이며 모세의 율법은 그들의 삶의 절대적 기준들이었다. 이 두 가지는 그들에게 생명과 신념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율법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방식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 사이에, 그리고 옛 법과 새 법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게 생길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처음 만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옛 법과 새 법이란 갈등은 없었다. 물론 이방인들도 그들만의 문화와 삶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의 새로운 삶과 자신들의 전통인 삶의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이 갈등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심각하게 되었다. 초대 교회는 이러한 갈등들을 해결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사도들이 마침내 모였다. 심각하게 드러난 갈등의 원인은 유대인지도자들과 이방인 지도자들 사이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은 뒤에도 과거에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전통을 지켜야만 하다고 믿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구원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들이었다. 그것들은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단지 전통이다.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할례가 구원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가르쳤다.

---

[145] Ibid., 37.

그러나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부인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자신들의 전통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신앙보다도 자신들이 지켜오던 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신들의 전통들이 구원을 위하여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들하고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이 교회의 평화를 해치기 때문에 이방인 개종자 몇 명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 의논을 하도록 임명되었다.[146] 이 위기를 다루기 위해 48년 내지 49년경에 열린 공의회에서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 편을 들었다. 여러 가지로 숙의한 끝에 그들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 개종자들을 "형제로들"로 인정하며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은 거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하기로 했다.[147]

이렇게 사도들이 합의를 이루어 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근거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가 하나되고 화평케 되는 기준이요 기초이다. 첫 번째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복음의 순수성의 핵심을 명백하게 만들었다.[148] 그들은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것과 구원과는 관계되지 않는 것들을 구분했다.

이 첫 번째 교회 회의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컸다. 만일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관철되었다면 교회는 계속 회당의 부속물로 남았을 것이다.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구원의 수단으로서 할례의식과 모세의 의식적 규례들을 부과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예루살렘 공의회는 어떤 민족에게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 기독교회 창설을 위한 길을 열어놓았다.[149]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하여 초대 교회는 다문화・다인종 신앙공동체로서

---

146 사도행전 15:1-29, 갈라디아서 2:1-10.

147 Metzger, 217.

148 김창선, 133.

149 Metzger, 218.

확고한 복음의 신앙을 세우면서 갈등의 요소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중요한 문제는 아주 일찍이 대단히 광범위한 범위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계층에 걸쳐 있었던 교회의 사회적 통일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었다."[150]

사도회의에서 바울의 입장이 관철되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할례를 강요받지 않는 가운데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 사도회의의 합의로 말미암아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사도회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모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선언했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더구나 율법의 의식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탁을 같이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혼합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율법도 지키면서 동시에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151]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도회의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강력하게 대처한다.[152]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도록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안디옥을 방문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비난을 두려워해서인지 그 식탁에서 물러났다.[153] 이런 모습을 보고,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 이러한 사태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어렵게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를 겁쟁이요 위선자라고 비난했으며,[154] 이 일로 인해 그들은 결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155]

---

[150] Howard Clark Kee,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중석 김명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99.

[151] Norman Perrin,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4), 99. 이것은 당시에 대단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다.

[152] Dibelius, 112.

[153] 갈라디아서 2:12.

[154] 갈라디아서 2:11-14.

[155] Metzger, 219.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할례로부터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모든 이방적인 제의와 결별하고 새로운 제의양식을 취해야만 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회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이러한 종교적 상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 고대인들의 종교적인 삶은 성전과 제사중심이었는데, 이방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것은 당시 초대 기독교로 하여금 구성원 모두의 종교적 욕구를 채워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고,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대체할 새로운 종교적 상징을 만들도록 촉구하였다. 그렇게 해서 세례는 할례를 대체하는 기독교 입회의식이 되었고, 성만찬은 성전 제사를 대체하는 통합제의가 되었다. 이로써 초대 기독교는 독자적인 종교적 상징언어, 다시 말하면 독자적인 종교체제를 갖춘 새로운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C. 다문화주의에 대한 조직신학적 연구

1. Marginality 신학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상이한 사람들이 공존해야 하는 이 다문화 사회에서, 학자들은 앞으로 소수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2000년 미국 인구 가운데 1/3이 소수 인종들이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한 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소수 인종들이 미국 인구의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156]

사회적 흐름을 주도하는 중심부 사람들이 아닌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소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학과는 다른 신학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중영은 앞으로 도래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marginality 개념을 제시하고, marginality신학을 주창한다. 소수자들인 주변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marginality 신학은 중심을 추구하는 중심주의 신학과 대척점에 선다. 이중영은 marginality 개념이 해석학적 원칙일 뿐만

[156] Jung Young Lee, *Marginality-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Minneapolis : Fortress Press, 1995), 1.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기독교 신학이 바로 marginality 신학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marginality의 대표자라고 말한다.[157] 그리고 이중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예수처럼 주변인들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marginality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교회 역시 marginality 공동체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중영은 현대 교회가 지나치게 중심을 지향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주변부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중영은 marginality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부 사람들과 중심부 사람들을 새로운 marginality 속으로 창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변화와 변혁은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2. Marginality의 유형

이처럼 marginality 개념을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한 이중영은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1) “In-Between” 유형

첫째 유형은 “In-Between” 유형으로, 주변성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주도적인 집단들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marginality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이며, 북미문화의 규준인데, 주변인을 부정적으로 본다. 주변부에서 중심을 지향하는 운동성을 보이는데, 중심성을 강조함으로써 주변성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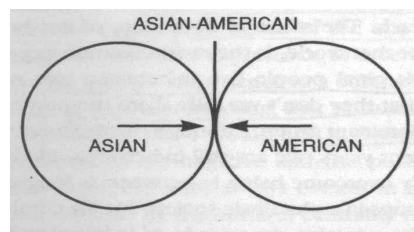



도표4

[157] Ibid., 4.

이 경우 주변인들은 사이에 존재함으로써,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 주도적인 세계에도 속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속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갖도록 강요당하고 고유한 자아 이미지를 박탈당한다. 그리고 중심성에 대한 중심부의 주도적인 관점이 막강한 힘을 떨침으로써 주변인들은 정신적으로 분열된다.[158]

2) "In-Both" 유형

그리고 둘째 유형은 "In-Both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세계가 주변성으로 정의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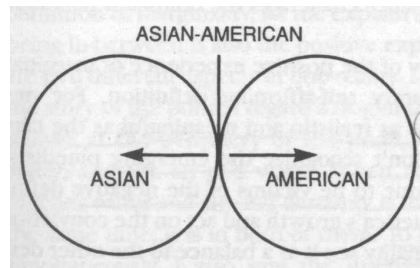



도표5

이 유형은 첫째 유형과 반대로, marginality에 대한 정의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향한다. 이러한 주변성에 대한 정의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났다.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인 지구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주변성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 3세계국가들에서 자유에 의식이 고조되는 데에도 영향을 받았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20 여 년 동안 경제적으로 두 배 이상 급성장했다.

변화의 둘째 요인은 인구의 급속한 증가이다. 특히 아시아-아메리칸들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다. 소수인종들이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미국 사회에서는 어느 특정한 부류가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첫째 유형, 즉 어느 특정한 집단이 중심을 형성하고 나머지는 주변부를 이루는 유형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었고, 소수인들, 즉 과거 주변인들도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백인주도적인 사회에서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인식된다.[159]

---

[158] Ibid., 55f.

[159] Ibid., 56f.

3) "In-Beyond" 유형

마지막으로 셋째 유형은 "In-Beyond" 유형으로,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이 공존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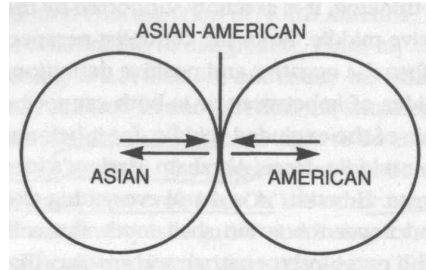



도표6

그런데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 역동적인 운동성을 보인다. 소수인종들, 즉 주변인들은 사이에 낀 존재로서 양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유형과는 달리 두 세계에 다 속한다. 주변은 두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주변성을 창조한다. 그래서 주변은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새롭고 창조적인 핵심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주변성은 중심성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변인들은 주도적인 세력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과 주변의 설정도 무의해지고 중심과 주변이 서로 갈등을 빚지 않으며, 둘이 화해한다.[160]

---

[160] Ibid., 60f.

IV. 정체성형성에 대한 심리-사회학적 연구

A. Erikson의 정체성 이론

1. 정체성에 대한 정의

1950년대에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Erikson이 아이덴티티란 개념을 정신분석학적인 자아심리학의 기본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아이덴티티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161] 아이덴티티는 라틴어 *identitas*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 사람에 틀림없는 본인이다", "그것의 자기 자신", "정체"등의 의미를 갖는다.[162] 아이덴티티는 자기의 연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불변성이고, 또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인데, Erikson은 "자아란 타인에 대해 자신이 갖는 동일성 및 연속성과 부합되는 내적 동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163]라고 정의하면서, 자아정체성을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객관적인 측면은 심리 사회적 정체성으로써 자신이 관련된 집단, 사회에 대한 일치성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집단이나 단체의 역사, 전통, 가치관 등에 자신을 귀속시킴으로 소속감을 가지는 집단 정체성이나 국가 정체성을 말한다.

---

161 박아청, *아이덴티티론* (서울: 교육과학사, 1988, 1998), 3.

162 박아청, *아이덴티티의 탐색II*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5), 21.

163 Ibid., 24.

그리고 주관적인 측면은 개인적 정체성으로서, 시간의 경과 속에서도 자기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자각함과 동시에 이들을 타인이 인식한다는 사실의 지각을 말한다.[164] Erikson은 이런 자아정체성을 완성, 고정, 불변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개정되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라고 주장한다.[165]

결론적으로, 정체성이란 자기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 내적 종합으로 인한 동일성과 연속성 감각, 그리고 자기 외적, 즉 타인, 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자기 인정과 확신감 등을 포함하는 자기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정체성의 특징

1) 통일성

인간들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들을 행하는 통일된 자아가 아이덴티티이다. 한 인간을 통일된 인격체로서 정의하는 것이 아이덴티티이다. 동일시가 다분히 비현실적이고 유희적이며 일시적인데 비해, 아이덴티티는 자기 존재의 근본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것도 아니고 유희적인 것은 더욱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덴티티는 통일된 자아를 의미한다.[166]

2) 포용성

정체성이란 종합적으로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포용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정립하면, 열등감을 갖는 대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자신감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열등감이 타인과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자신이 뛰어난다든가 그렇지 못한다든가 하는 분석과 평가의 차원에서의 자아개념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아이덴티티란 이보다 훨씬 폭넓게 자신의 이상형이라든가 장래에 갖고 싶은

---

164 우종진, "청소년 회심과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에릭슨(Erik H. Erikson)의 정체성(Identity) 이론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0), 38.

165 E. H.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 W. W. Norton, 1977), 24.

166 박아청, *아이덴티티의 탐색II,* 46.

직업 등과의 관련 속에서 신체가 갖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167]

3) 전체성

한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데, 이때에도 타인들에게 동일성과 연속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 맞는 자아이상이 있을 것이고 그 자아이상에 따라 현실의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기독교인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조직, 집단, 사상상의 규율, 해야 할 모습에의 귀속과 충성이 기대되고 있다. 이 '있어야 할 모습'이 바로 내면의 아이덴티티인 것이다.[168] 이렇게 내면의 아이덴티티와 현실의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전체성이라고 한다.

3. 정체성의 모습

1) 이름 정체성

인간은 모두 이름을 갖는다. 이 이름은 인간으로 하여금 가문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며 기본적인 신뢰감의 토대를 형성한다.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가에 따라 자신의 존재의 의미 또는 자신의 역할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2) 발달적 정체성

인간은 성장하면서 각 발달단계마다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는데, 이것을 각 단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3) 부정적 정체성

각 발달단계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즉 열등감이나 죄악감, 또는 혐오감으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 자기 정의를 가리킨다.

---

167 박아청, *아이덴티티의 탐색II*, 47.

168 Ibid., 48.

B. Erikson의 인생주기론

1. 인생주기론에 대한 이해

인생주기(life cycle)란 수태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주기적으로 일정한 단계를 경고하는 과정을 말한다. 본래 생물학 용어로서 수정-태아-출생 후의 발육-성장-성숙-노쇠-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순환과정을 의미한다.

Erikson은 Freud의 정신분석 이론을 발전시켜[169] 아이덴티티의 개념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인격의 완성을 점성론,[170] 즉 점진적 성숙과 발달에 의해 인생주기란 시점으로부터 설명하고 있다. Erikson은 인간의 발달을 점진적 성숙의 순서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171] 어떤 단계의 발달과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172]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이론은 1950년도에 발간된 Erikson의 저서 Childhood and Society에서 Eight ages of Man이라는 것으로 처음 선보였다.[173]

Erikson은 인간발달의 전 생애에 대해 접근을 시도한 최초의 인물인데,[174] 인간이 평생을 통해서 나아가는 단계를 8가지로 나누고 이들에 대해서 심리-성적 발달과 심리-사회적 발달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Erikson이 제시하는 인생주기

---

[169] Erikson은 프로이트에게서 영향을 받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프로이트와는 다른 점을 보인다. Larry A. Hjelle &Daniel J. Ziegler, *성격심리학*, 이훈구 역 (서울: 법문사, 1983), 43.

[170] 漸成論, epigenesis.

[171] "현대에 이르러 비로소 아동기 그 자체를 발달의 한 단계로 인정하고, 어린이는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의 측면에서 점진적 변화를 통해 성인이 된다는 이해가 보편화되었다." 정영근, *인간과 교육의 이해* (서울: 문음사, 1995), 163에서 재인용.

[172]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이 어린이들을 올바로 이해하여 건강한 개별적 인격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성장 발달하며, 어떻게 행동하고, 또 그 시기에 일어나는 발달상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정영근, 163.

[173] 부영호,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관한 발달심리학적 고찰-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실천신학전공, 2006), 24.

[174] 정옥분,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4), 43.

의 8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각 단계는 모두 '발달적 위기'에 직면하며, 여기에는 각 위기적인 시기가 있다.

둘째, 각 단계의 위기는 모두 '대립'되는 성격 특성에 의해 표현된다. 예를 들어, 유아기는 '신뢰 대 불신'으로 제시된다.

셋째, 각 단계에 있어서 위기의 해결은 그 단계의 위기를 나타내는 상호 대립된 특성의 영속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의해 행해진다. 예를 들어, 대립되는 특성 가운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측면만을 강조하고 다른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특면을 배제해서는 발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넷째, 각 단계는 각기 달성해야 할 발달과제를 갖고 있으며, 그 달성은 다음 단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전체적 발달로서 보다 좋은 전망을 가지면서' 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사람은 모두 각 단계의 특징적인 과제로 나아가도록 동기 유발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들 과제는 사회구조에 의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인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선택적 도전으로부터 성립되어 있고, 어떤 단계의 과제를 달성할 수 없으면 다음 단계의 과제로도 진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표7 에릭슨의 인간발달 이론에서의 가설표

발달 단계	심리 사회적 과제와 위기	기본적 덕목	중요한 관계의 범위	사회적인 질서의 관련요소	사회 심리적 양상(樣相)	심리성적 단계 (Freud)
I	기본적 신뢰감과 불신감	희망	어머니	우주적 질서	얻는다 대답한다	구순－호흡기적 감각－근육운동(취하는 양식)
II	자율감과 부끄러움, 의혹	의지	부모	법과 질서	유지하다 방출하다	항문－요도적, 근육적 (피지－배변적)
III	주도감과 죄	목적	기본 가족	이상의 원	만든다(구한	유아－성기

	악감			형(모범)	다) '~처럼 만든'(놀이)	적, 이동적 (침입-포함적)
IV	근면감과 열등감	적격	이웃, 학교	기술적 요소(원칙)	물건을 만든다(완성한다) 물건을 연결시킨다	잠재기
V	아이덴티티와 확산	충성	동료집단 외부집단 리이더쉽의 모델	이데올로기적 전망	자연스럽게 행동한다(않는다), 활동을 공유한다.	사춘기
VI	친밀감과 고독감	사랑	우정, 성애, 경쟁, 협력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대	협력과 경쟁의 모형(모범)	자신을 타인 속에서 잃어버리고 그리고 발견한다.	성기기
VII	생산감과 정체감	돌봄	분업과 가사의 공유	교육과 전통의 흐름	존재를 만든다. 돌본다.	
VIII	통합감과 절망	지혜	인류 우리들	지혜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비존재(죽음)에 직면한다.	

그러므로 만약 실패한다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서 장래의 위기가 크게 고조된다고 본다.

그러나 Erikson은 각 시기를 옛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즉 이전에 생겼던 모든 결정들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새로운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시작할 때의 조건들을 기초로 삼는 결정론을 피한다.[175]

2. 인생주기들에 대한 설명

인생주기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75] Gabriel Moran, *종교교육 발달,* 사미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47.

1) 유아기(출생에서 1세 반 무렵까지) : 기본적 신뢰 대 기본적 불신(Basic Trust vs. Mistrust)

인간이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될 최고의 발달과제는 ‘기본적 신뢰 대 기본적 불신’이다. 이 과제의 달성은 건강한 성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유아는 기본적 신뢰의 능력이 기본적 불신에의 경향을 만회하도록 균형을 취하지 않으면 장래, 타인과의 지속적으로 만족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어머니와 자녀간의 상호성이 강조된다. 이 어머니-자식과의 관계에 대해 Erik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기본적 신뢰가 기본적 불신을 만회하는, 균형을 취한 영속적인 패턴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퍼스낼리티의 최초의 과제이며, 어머니의 돌봄에 있어서도 당연히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이다.…그러나 극히 초기의 유아기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뢰의 양은 음식의 절대량이라든가, 표현된 애정 양이라든가 하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성적인 관계의 질에 좌우되는 것 같다.[176]

이 어머니-자녀 관계는 어린이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그 어린이의 아이덴티티 감각을 명확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한편 그 어린이에 의해 자신의 아이덴티티 감각도 더욱 명확한 것으로 되어 간다. 그것은 어머니-자녀 관계를 개인의 발달과 환경 변화간의 상호성의 작은 우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신생아가 어머니의 신체와 공생관계(symbiosis)로부터 분리할 때, 입으로 물건을 집어넣게끔 된 선천적으로 통합된 신생아의 능력은 신생아를 양육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통합적인 어머니의 능력과 의도에 일치하는 능력을 갖는다. 이 시점에서 어린이들은 입을 통해서 살아가고, 유방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다.[177]

그러므로 이 시기는 프로이트의 구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rikson은 이 시기의 덕을 ‘희망’으로 보고 희망의 실현이 새로운 희망을 낳고, 꺾어진 희망을

---

176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97-102.

177 Ibid., 97f.

버리고 장래의 희망을 갖는 예지력을 들고 있다.

2) 보행기(1세부터 4세 무렵까지) : 자율 대 부끄러움, 의혹(Autonomy vs. Shame and Doubt)

이 단계의 총괄적 의미는 근육계의 성숙과 그 결과 얻어지는 “잡아두는 것”과 “내버려두는 것”과의 격렬한 갈등에 부딪히는 무수한 행동의 패턴에 맞추는 능력과 또는 아직 현저하게 의존적인 어린이가 자신의 자율적인 의지를 갖기 시작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항문기의 어린이는 배변의 훈육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것임을 깨닫는다. 동시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혹을 품거나, 어리광으로 의존적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자율과 부끄러움, 의혹의 관계 속에서 자율감이 월등해지면 의지를 몸에 익히고 보존, 방출의 통제가 가능하게 되고 열등감이 생기지 않고도 지날 수 있게 된다.[178]

어린이의 자율은 근본적으로 자율적 존재로서의 부모에 대한 반응이다. 즉,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는 부모들로부터 아동들의 자율의 원형이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단계의 긍정적인 결과는 자존감정(self-esteem), 자기통제, 자기 확신, 자기의 장래에 대한 의지이다. 자율의 단계에서 자신의 장래에 대한 의지의 원초적인 형태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의 청년기의 자아 아이덴티티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된다.[179]

Erikson은 이 시기의 덕으로서 ‘의지’를 들고 의지의 작용이 합법성과 필연성의 수용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옳고 그름을 분화하는 의식화 또는 사회의 의식으로서 판단 절차 또는 비뚤어진 율법주의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180]

3) 아동기(3세부터 6세 무렵까지) : 적극성 대 죄악감(Initiative vs. Guilt)

---

178 박아청, *아이덴티티의 탐색II,* 108.

179 Ibid.

180 Ibid.

프로이트의 남근기에 해당하고 외디푸스 콤플렉스가 생기는 시기이다. Erikson은 이동과 인지력의 발달에 의해 어린이가 자발적이 되고 지배와 책임을 확장하는 시기라고 본다. 이 시기를 통해서 새로운 목표를 찾아내고 새로운 능력이 어린이 속에서 발달한다.[181]

자발적 행동은 어린이에게 직업과 목표의 추구, 계획, 결정, 달성이라는 성질을 자율성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열심히 배운다거나 또 잘 학습하고 나아가서 중심적인 활동인 놀이로부터 이 시기의 덕인 목적이 생겨난다. 놀이는 신체적인 게임에 심리적인 게임이 추가된다. 흉내놀이의 세계에서 부모, 어린의 역할을 상상하여 연출하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놀이는 '또래의 현실'을 어린이에게 준비하게 하고 사물의 목적, 내적 세계와의 관련 또는 과거의 기억이나 장래의 목표에로의 이용 등을 배우게 된다. 이 놀이의 시기는 '극적인 의식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어린이들은 강아지로부터 우주비행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역을 연출한다. 이 극적 의식화의 부정적인 측면은 인생을 통하여 보이는 역할을 연출하고 '행동하는 의식'이다.[182]

적극성 대 죄악감이라는 심리-사회적 의기의 긍정적 해결은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적 탐색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다주는 즐거운 경험이라고 하는 감각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 이 심리-사회적 위기를 부정적으로 해결하면 압도적인 죄악감을 형성한다. 실험이나 탐색을 부모가 어떻게 제한하는가에 따라 어린이는 자기 주위의 세계에 대한 어떠한 의문이나 의혹도 그것들이 부모들의 침입이라고 느낀다. 어린이의 질문은 부분적인 진실, 부적절한 설명, 그리고 무관심과 마주친다. 실제 호기심 자체가 금기시되어 어떤 것에 흥미를 갖는 것이 죄라고 느끼게 된다. 이 같은 위기를 죄악감의 방향에서 해결하는 어린이는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에 대하여 부모나 그 외의 권위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183]

이 시기에는 이전의 생활에서 생긴 많은 공상을 억압하거나 또는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어린이이게 부가된 의무가 되고, 그가 지금까지 지니고 온 신비한 것

---

[181] Ibid., 109.

[182] Ibid.

[183] Ibid.

에 대해서조차 구체적인 사물과 연결시키게 된다. 그리고 적극성을 위한 통치자인 양심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단순한 생각이나 행위에 대해서까지 자동적으로 죄악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4) 학동기(5, 6세부터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까지): 근면 대 열등감(Industry vs. Inferiority)

이 시기는 프로이트의 잠재기에 해당한다. 성적 관심이 후퇴하고 '나는 배우는 존재다'라고 하는 단계를 맞이하여 '어떠한 일로 얼마나 바쁠까'를 생각하게 한다. 프로이트는 이 시기가 퍼스넬리티 형성에 아무런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84] 사실 이 단계의 심리학적 발달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학자들이 거의 연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Erikson은 개인의 일에 대한 기본적 태도가 이 단계에서 확립된다고 주장한다.[185] 이 단계에서 어린이는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켜 평가에 관한 개인적 기준을 획득하게 되면, 자기가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가 하는 평가도 할 수 있게 된다.

근면이라는 개념 속에는 능력을 형성시켜 유의미한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열의가 포함되어 있다. 학동기에는 어린이를 동기를 유발시키는 많은 측면이 존재한다. 이들 일에 대한 능력은 새로운 것으로 어린이를 성인의 능력에 가깝게 한다. 이와 같은 능력의 증대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동기유발적인 요인에 덧붙여 능력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수많은 외적 강화의 원천이 있다. 부모나 교사는 성적, 물질적 보수, 특권, '보다 능숙하게 된다'와 같은 칭찬의 말을 통해 어린이를 격려한다.

Erikson은 근면의 반대 개념인 열등감은 자기에게 가치가 없다고 하는 느낌이나 부적절감은 자기와 사회 환경의 두 가지 원천에서 생긴다[186]고 보았다. 근면 대 열등감이라는 갈등의 해결은 성공에 대한 태도에 크게 의존한다. 이들 태도는 내적 동기유발 및 환경으로부터의 실마리에서 추출된다. 그러므로 학동기에서 얻어지는 성

[184] Ibid.

[185] Ibid.

[186] Ibid. 110.

공감에서 책임감, 완성감, 근면감이 형성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일에 대한 자신감도 줄어들어 청년기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아이덴티티 확산에서 발견되는 무력감, 열등감을 맛볼 것이다.

5) 청년기(12세부터 18세 무렵까지) : 자아 아이덴티티 대 역할 혼미 (Self-Identity vs. Role confusion)

이 시기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인간이 독특한 존재이며 사회 속에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감정을 갖는다. Erikson은 이렇게 말한다.

> 젊은 사람은 타인에게 자기가 최선의 것을 의미하는 경우, 그 최선의 자기가 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타인은 분명히 그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이덴티티란 용어는 자기 자신 속의 지속적인 불변성 (동일감, sameness), 자기 동일감 (self-sameness) 및 다른 사람과 어떤 종류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의미에서 상호적인 관계를 나타낸다.[187]

이 시기를 맞이한 청년은 개인 고유한 특징, 예상되는 미래의 목표, 자기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힘을 느끼고, 현재의 자기가 무엇이며, 미래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결정하려고 한다. 자아 아이덴티티 감정은 사회와 관련 속에서 특정한 역할, 가치관의 달성을 통해서 획득되는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증된 자기평가, 즉 자존감정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편, 어린이로부터 성인으로 이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역사적 변화에 대한 감수성 때문에 청년들은 아이덴티티 형성의 과정에서 동요한다. 아이덴티티 확산, 아이덴티티 혼미, 아이덴티티 위기, 부정적 아이덴티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 시기에 발달하는 덕으로 Erikson은 '충성'을 든다.[188]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어떤 이데올로기적 견해를 신봉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이때 충성에 대한 능력이 발달하지 않으면, 그 개인은 약한 자아를 갖든지 아니면 자기가 종속될 이탈 집단

---

[187] Erik H. Erikson, *Identity and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59), 102.

[188] 박아청, *아이덴티티의 탐색II,* 111.

을 갖든지 해야 한다. Erikson은 충성을 "가치체계의 필연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맹세한 충실을 유지하는 능력"[189]이라고 규정한다. 충성의 실질적인 것은 이데올로기와 진실과의 확인과 또 동료의 인정에 의해 획득된다. 아이덴티티의 확립이 인간이 어떤 특정한 인간들과의 집단에 소속해 있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어떤 인간의 아이덴티티는 그의 환경에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190]

6) 성인 전기(18세부터 25세 무렵까지) : 친밀성 대 고립(Intimacy vs. Isolation)

이 시기는 개인이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즉 우정, 사랑, 성적 친밀성, 그리고 자기 자신, 자신의 내적 자원, 자신의 흥분이나 참여의 범위 내에서의 친밀성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의 문제로 이행하는 시기이다.[191]

'친밀성'이라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 내지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다른 누구가의 아이덴티티를 융합하는 능력이다.[192] 프로이트는 이 시기를 성기기라고 부르는데, 자아 아이덴티티를 다른 사람의 아이덴티티와 연결시키는 친밀성 위에 세우지 않으면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상호성 속에서 진정한 성적 생식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친밀성 단계의 위험성은 고독이다. 그것은 친밀성에 관련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피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덕은 '사랑'이다. 이 시기에 대응하는 의식은 엘리트주의이다. 엘리트주의는 공동사회적 자기애의 형태를 띤 배타적 집단의 형성으로 표출된다.

7) 성인기(20세부터 50세 무렵까지) : 생산성 대 정체(Generativity vs. Stagnation)

---

[189] Ibid.

[190] Ibid.

[191] Ibid. 112.

[192] Ibid.

이 시기의 성인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사회가 만든 것은 어떠한 것이든 그 발견과 완성을 위해 원조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개인은 그 것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 생산성은 본래 포괄적인 의미로 낳은 것을 뜻하는데, 세대에서 세대로 태어나는 것, 즉 어린이, 생산물, 관념 및 예술 작품을 가리킨다.

따라서 생산성이란 사회가 존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인은 자기의 자질, 기능, 창조성이 젊은이들의 생활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어느 시점에서 느끼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기분은 인간이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인식할 때 발생한다. 인간은 어떤 일의 방향을 설정하듯이 영원히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사후에도 존속하는 사회에의 공헌을 개인적, 공적 수준에서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헌은 일반적으로 개성적이고 창조적인 개인적 가치, 목표의 표출이란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인생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음과 동시에 인생의 만족에 대한 개인적 투자와 깊이를 반영해준다.[193]

생산성과는 대조적으로 성인기의 여러 요구에 응답할 수 없음으로 인해 정체가 생긴다. 정체란 심리적인 성장이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 자기의 에너지나 기능을 자기의 확대나 개인적 만족이라는 목적만을 위해서 소비하는 성인은 자기의 욕구 이외의 것에 대해 또는 타인을 돌보다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가정의 관리, 양육, 직업의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성인은 성인기가 끝날 무렵이 되어 심리적 정체감을 느낀다.

이 시기의 덕은 '돌봄'이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한다든가, 타인에게 지식, 경험을 함께 나누기를 바람으로서 표출된 육아와 교육, 현장교수 등에 의해 달성된다. 돌봄과 교육이란 습관, 의식, 전설의 반복에 의해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시기의 의식화는 생산적 의식화이다. 그것은 부모가 된다는 것, 생산, 교육, 치료 그리고 어른의 이상적 가치를 젊은이에게 전달하는 역할의 의식화를 가리킨다. 이 의식화의 왜곡은 권위주의적 의식이다.[194]

---

193 Ibid. 113.

194 Ibid.

8) 노년기(50세 이상) : 자아 통합 대 절망(Integrity vs. Despair)

통합은 자기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하여 공포심을 갖지 않고 대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통합의 감각을 확립한 사람은 자기의 과거에 대하여 실존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기의 인생과 개성이 개인적인 만족과 위기의 축적에 의해 생겨난 것임을 인식한다.[195]

지금까지의 여러 경험에 대하여 어떤 것을 부정하거나 다른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고, 전체로서 받아들이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통합이란 일상 회화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함께 과거의 역사를 통합하고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다.

통합의 반대방향은 절망이다. 유아가 신뢰 대 불신의 위기를 부정적인 방향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성인이 통합 대 절망의 위기를 부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빈번하다. 절망이란 감정은 '인생은 무의미하다'든가 '종말이 가깝다'든가 하는 감정을 증대시킨다.[196]

통합과 절망이란 갈림길에서 '지혜'의 덕이 발전한다. Erik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지혜란…죽음에 직면하여 갖는 인생 자체에 대한 초연한 관심이다.…의미있는 노년은 가능한 최종적 노쇠 전에는 인생주기에 불가결의 전망을 주는 통합된 유산에 대한 욕구에 이바지한다. 여기서의 힘은 죽도록 되어 있는 생에 대한 초탈적이면서도 능동적인 관심의 형태를 취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숙한 기지로부터 축적된 지식, 성숙한 발달 및 포괄적 이해 등의 뜻을 함축하는 의미에서 지혜라 부른다.[197]

3. 중년기와 노년기의 정체성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의 교인들은 대체로 중년층과 노년층이 많은데, 그들은 아이덴티티의 발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198]

---

195 Ibid. 114.

196 Ibid.

197 Erikson, *Identity:Youth and Crisis*, 140.

많은 사람들은 청년 후기에 이런 저런 경로를 밟아 아이덴티티를 획득하여 어른의 세계에 들어간다. 직업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결혼에 의해 가정을 만들고 해서 30대 후반이 지나기까지의 성인기는 일반적으로 청년기에 획득한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지의 안정감이 증대하고 지의확대를 시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생활에 안정감을 갖고 내부의 마이너스 방향보다는 플러스의 방향이 훨씬 많이 있음을 경험한다. 40세 전후부터 사람은 다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전환기에 접어든다.

이 시기는 체력의 쇠퇴, 자기에 남은 시가(여생)이 적은 것에 대한 초조감(시간적 전망의 초조), 자기의 직업이나 하는 일에 대한 한계감, 늙어가는 것과 죽음으로 향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 30대에서는 상상(의식)조차도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심신의 마이너스 방향에로의 변화가 돌연히 중대한 관심사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내부의 이러한 부정적 변화에의 인식을 계기로 "나의 인생은 이것으로 좋은 가?" "정말 나는 무엇인가?"하는 진지한 문제에 접하게 된다. 그것은 자기의 재음미와 인생의 방향 재설정을 위한 모색이며, 심리적으로는 청년기의 모러토리윰에도 닮은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 진지한 삶의 모색, 즉 아이덴티티의 탐색의 결과, 지금까지의 삶의 스타일이나 가치관에 궤도 수정 또는 궤도 전환이 이루어져 다시금 안정된 아이덴티티가 확립되어 간다.[199]

도표8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제의 모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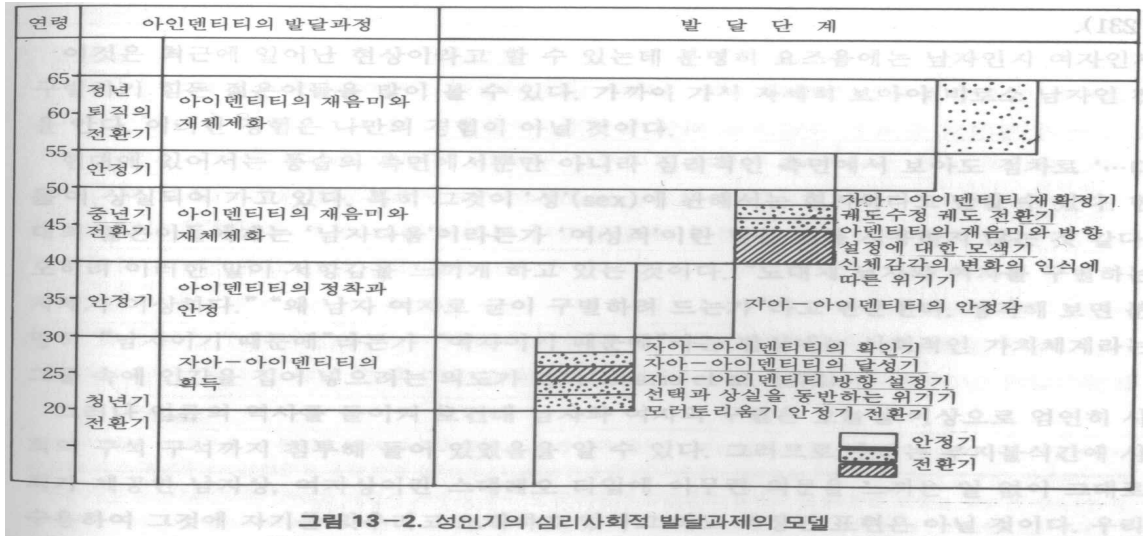
198 박아청, *아이덴티티의 탐색II* , 253-256.

199 "성인은 노인이 되기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한 대개가 평신도들로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이다. 성인은 '인간의 인간화'가 되고, 또 될 수 있는 사람들, 윤리의 순리성(順理性)이 잘 읽혀지고 성품발달이 영성과 통일되어 창조자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 생명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사람들이다." 최성찬, "성인교육의 바람직한 인간상,"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21세기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기독교교육논총 2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282.

연령 | 아인덴티티의 발달과정 | 발 달 단 계

65
정년 퇴직의 전환기
아이덴티티의 재음미와 재체제화
60
55
안정기
50
중년기 전환기
아이덴티티의 재음미와 재체제화
45
40
안정기
아이덴티티의 정착과 안정
35
30
청년기 전환기
자아－아이덴티티의 획득
25
20

자아－아이덴티티 재확정기
궤도수정 궤도 전환기
아덴티티의 재음미와 방향 설정에 대한 모색기
신체감각의 변화의 인식에 따른 위기기
자아－아이덴티티의 안정감
자아－아이덴티티의 확인기
자아－아이덴티티의 달성기
자아－아이덴티티 방향 설정기
선택과 상실을 동반하는 위기기
모러토리움기 안정기 전환기
안정기
전환기

그림 13－2.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제의 모델

중년기 심신의 변화에 대한 체험(위기)을 어느 정도로 주체적인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며 해결하는가에 따라 중년기의 아이덴티티 지위는 크게 변동한다. 중년기 심신의 변화에 서서히 적응하여 아이덴티티의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점차로 해답을 제시하기도 하고, 중년기 이전의 아이덴티티와는 크게 다를 바 없고 또 변화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다. 그러나 그중에는 큰 병이나 자식의 결혼과 자립 등 중년기의 급격한 부정적 변화의 체험을 계기로 그때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진정한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획득해 가는 사람들도 역시 많이 있다. 또 20대 30대를 통해서 모색해온 진정한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중년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을 얻고, 중년기 이전과 비교할 때 보다 깊은 자기안정감이나 긍정감을 얻게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인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회교육에서 성인교육이 소홀히 여겨진 또 다른 이유는 성인들의 신앙과 인격도 성숙을 향해 끊임없이 발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200]

---

200 임희숙, "성인들을 위한 교회교육의 전망과 과제," 한국기독교육학회 편, *기독교교육 연구의 현황과 새 좌표,* 기독교교육논총 7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239.

V. 정체성형성에 대한 신학적 연구

A. 신앙발달단계론

1. 개관

기독교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일생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달해 가는 인간들의 신앙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 신앙의 동반자로서 참여하여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비록 성숙한 신앙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나, 신앙발달의 보편적인 단계를 이론화시키는 것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다양한 형태나 신앙발달의 역동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를 위하여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James Fowler, John Westerhoff III, Thomas Groome 등의 신앙이해와 신앙발달 이론으로부터 많은 통찰력을 얻고 있다.[201] 여기서는 Fowler의 신앙발달 이론을 다루려고 한다.

Fowler의 신앙발달단계론은 기독교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춘기는 "1981년 파울러의 *신앙의 단계* (*Stages of Faith :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의 출판을 통하여 심리학과 교육의 관심분야인 발달이론이 종교에도 적용되어 신앙발달의 이론으로 정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발달이론이 기독교교육에서도 최고의 관심분야가 되었다"고 말한다.[202]

---

201 백은미, "신앙발달 이론들에 있어서 여성의 신앙발달 이해의 한계와 방향모색," 한국기독교육학회 편, *기독교교육 연구의 현황과 새 좌표*, 기독교교육논총 7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177f.

202 한춘기, "교육을 통한 신앙발달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기독교교육논총 1*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287.

Fowler는 신앙발달단계를 다음과 같이 일곱 단계로 나눈다.[203]

도표9

단계	단계 명칭	신앙의 특징
0	유아기	원시적 신앙
1	취학 전기	직관적-투시적 신앙
2	아동 중기	신비적-문자적 신앙
3	청소년기	종합적-관습적 신앙
4	초기 성인기	개별적-성찰적 신앙
5	중기 성인기	결합적 신앙
6	중기 성인기와 그 이후	보편화된 신앙

2. 신앙발달 일곱 단계

1) 0단계-원시적 신앙

우리 모두는 영아로 인생을 시작하고, 우리 신앙의 인생을 위해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자궁 안에서 생겨나고 출생 후 몇 달 안에 이루어진다.[204] 이 단계는 원천적 신앙(Primal faith), 미분화된 신앙(Undifferentiated faith), 또는 단계 이전의 신앙(pre-stage)이라고 명명한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아직 신앙의 단계라고 부르기에는 이르며 신앙의 기초가 되는 덕목들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뢰나 불신, 희망과 좌절, 용기와 비겁 등은 비록 신앙과 동일시되지는 않지만, 장차 신앙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뜻이다.[205]

신앙은 지속적으로 원초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호작용적 의식(rituals)의 상호성 속에서 구체화되는 환경을 지향하는 언어 이전의 신

---

203 Richard Robert Osmer, *교육목회의 회복*,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254.

204 James W. Fowler,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40.

205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66f.

뢰와 충성심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초보적 신앙은 유아기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리와 부정의 위협을 유발하는 불안을 상쇄하기 위하여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궁극적 실재의 전이미지를 구성한다.

사람들은 이 첫 원시적 신앙 단계를 키워 가고 자라게 함에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제공하는 사람(주로 어머니)과의 상호성의 관계와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신앙을 형성한다. 만일 주된 돌봄자로부터 신뢰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불신과 절망과 같은 자질들이 인격의 밑바닥에 자리하게 된다.[206]

2) 1단계: 직관적-투시적 신앙(intuitive-projective faith)

이 단계는 언어를 갖는 초기 아동기에 나타난다. 이 단계는 두 살 이내에 도덕적 정서 및 기준에 대한 각성과 부합한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상상력의 사용이다.[207] 이야기, 태도, 그리고 상징에 의해 자극되어지지만, 아직 논리적 사고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상상은 오래 지속되는 신앙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각 및 감정과 연결된다.[208]

이 단계에서는 주변 환경과 거기에 속한 대상들을 탐구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능력이 발생한다. 아직 안정된 논리적 조작 능력은 부족하다. 이것은 타인의 전망과 함께 그리고 타인의 전망으로부터 자신의 전망을 구분하고 통합하는 제한된 능력과 결부되어 있다. 박원호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를 의식하는 시기로서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기적(egocentric)이 된다. 이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이기적이 아니라 아직까지 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지 못했다는 뜻이다.”[209]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세계는 언어 사용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

206 Ibid., 67f.

207 Ibid., 68.

208 Fowler,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141.

209 박원호, 68.

권력은 사회적 행동의 전형이 된다. 권위에 의한 처벌과 권위에 대한 복종은 도덕적 행동을 결정하도록 한다. 두렵고 떨리는 신비적 체험으로서의 하나님 경험이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된다. 보다 깊고 오래도록 보존되는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 신앙의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토대 위에 새워진 인상적인 불변의 틀 안에서 보다 좋게 혹은 보다 나쁘게 이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 이러한 이미지들은 권력, 죽음, 금기들과의 갈등의 과정에서 입증될 수 있다.[210]

3) 2단계: 신화적-문자적 신앙(mythic-literal faith)

이 단계는 초등학교 시기 및 그 이후에 나타나는데, 많은 경우 청소년시기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성인들까지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다.[211] 구체적 조작적 사고-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발달된 능력-가 나타나서 인과율, 공간, 시간, 그리고 수의 영역으로 세계를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제 신화로부터 실재를 구분할 수 있고, 환상으로부터 사실을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을 순서적인 일련의 사건으로 정리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 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 시기에 상호공정성을 중시하는 도덕적 개념을 갖기 때문이다."[212] 설화 및 이야기 안에서 삶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213]

앞선 단계에서의 이미지의 축적은 '봉인'되고, 일회적이고 직관적인 앎의 형식들은 새로운 선형성과 예측 가능성을 통해서 인지적으로 세계를 구성함으로써 부수적인 것이 된다. 이 단계는 단순한 공평성이라는 외적 구조에 전형적으로 의존한다. 그것은 돌보아주고 공평한 지배자 혹은 부모의 유비를 통해서 궁극적 환경을 매우 자주 구성한다. 선행은 상을 받은 반면에 악행은 벌을 받는다. 만약 세계가 이러한 도식을 항상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어린이가 깨닫게 되면, 소위 '11세의 무신론'이라

210 Richrd R, Osmer and Friedrich L. Schweitzer, *공적신앙과 실천신학*, 연세대학교교육학포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80.

211 박원호, 69.

212 Ibid.

213 Fowler,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142f.

불리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 어린이는 개념들과 상징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상태로 남게 된다.[214]

하나님을 바라보되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상징이나 신앙을 문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자적이라 명한다.[215]

4) 3단계: 종합적-인습적 신앙(synthetic-conventional faith)

이 단계는 청소년기 초기에 나타나는데, 형식적 조작적 사고의 등장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추상적 생각과 개념들을 의존할 길을 열어준다. 그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성찰할 수 있고, 이것에서 의미와 형식을 찾을 수 있다. 동시에 개인적 미래-정체성, 일, 경력, 또는 소명-에 대한, 그리고 개인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게 된다.[216]

이런 새로운 인지적 능력이 상호 대인적 관점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청소년기 초기의 인간 정체성을 구성하는 지배적인 특징은 '상호 대인적 관점을 획득하는 것'이다. "나는 나를 보고 있는 너를 본다. 나는 네가 나를 보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나를 본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타인의 정체성은 흡수하는 듯한 관심이 된다. 자아의 모습은 역할 모형과 중요한 관계를 통해 획득된다. 자기존중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승인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열쇠이다.[217]

이 시기의 신앙은 동조의 신앙단계(a stage of conformity)라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자신의 깊은 반성이나 선택, 또는 비판 없이 암시적으로 형성된 신앙이다.[218] 이런 중요한 타자와의 새로운 개인적 관계는 우리가 그분께 알려지고 깊이 그리고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열망과 상호 연관된다.[219]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우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고,

---

214 Richard R. Osmer, Frierich L. Schweizer, 80.

215 박원호, 70.

216 Fowler,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145.

217 Richard R. Osmer, Frierich L. Schweizer, 81.

218 박원호, 70.

219 Fowler,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146.

우리는 어떻게든 궁극적인 존재와 깊게 혹은 높게 관련된다. 종교에 대한 '비신화화'를 하고,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공격으로 비쳐진다. 유사하게 궁극적 환경은 개인적인 용어들로 구성된다.

이 단계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 안에 있는 의미 있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신앙을 성찰하고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집단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아직 자기의 신앙을 객관적이고도 반성적인 관점에서는 바라보지 않는다.[220] 그래서 정체감 속에 자아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과제와 함께 종합적 관습적 신앙을 형성하는 사람은 삶을 위한 방향성과 용기를 주는 신념, 가치, 그리고 헌신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세계관과 가치를 형성하는 작업은 청소년이 그들의 상상과 성인의 진리에 대한 갈망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지원해주는 이야기, 사상, 신념 체계, 예식, 훈련, 그리고 역할 모델들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221]

5) 4단계: 개별적-성찰적 신앙(individuative-reflective faith)

대개 청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나타나는 단계로, 이전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하나는 개별적 성찰적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형성해온 가치와 신념에 대해 묻고 검사하고 교정하는 것이다. 이 단계가 요구하는 또 다른 변화는 사람들이 '실행 자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222]

일단 정체성으로 구성된 신앙의 역할과 관계는 이제 비판적 선택의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체제라는 용어는 이 단계에 대한 일반적인 은유가 되고, 그것의 목적은 통제이다. 이 단계는 자아, 타자, 그리고 세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당연하게 통제하고 싶어 하는 충동 때문에 무의식의 신비를 비롯해서 그 어떤 형식의 신비도 부정하는 자기기만에 취약하다. 상징을 상대로 가장 오래된 보편적으로 순진한 태도는 종결된다.[223]

---

220 박원호, 71.

221 Fowler,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146.

222 Ibid., 147f.

이 단계에서 개인은 비신화화의 전략이라는 상징과 연계한다. 상징들은 틸리히가 표현한 것과 같은 '깨진' 것으로 경험된다. 그것들은 비판적으로 조사되고, 그것들의 '의미'는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 손실되어 거의 깨달을 수 없으면서도 합리적으로 형성된 개념들로 전환된다.[224]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시기로, 그것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오르지 못하고 3단계에 머물러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225]

6) 5단계: 결합적 신앙(conjunctive faith)

이 단계는 중년기 또는 그 이후에 나타난다. 이 단계는 신앙의 내적 성숙기로서 자아 내부의 철저하게 상반된 긴장에서 시작된다. 진리의 역설적 성격이 받아들여진다. 반대되는 것으로써 경험되거나 이해된 것을 통합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초월적이며 동시에 내재적이다. 하나님은 인간 중심적 범주로 축소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인적 경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신앙 단계는 명확한 또는 절조된 개방성(committed or principled openness)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226] 자신의 신앙적 입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면서도 결코 폐쇄적이지 않고 다른 입장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애쓴다.[227]

상징들이 다시 상징들이 되는 '제2의 순수성'의 유형은 복잡하고 풍부한 삶의 신비를 파악함으로써 인식론적인 겸손의 상태로 발달한다. 낯선 사람은 한 개인이 그를 통해 새로운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자기기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촉매로써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성스러움에 대한 다양한 명칭과 은유들은 우상숭배를 피하고 역설을 존중하기 위해서 사용된다.[228]

223 Richard R, Osmer, Friedrich L. Schweitzer, 80.

224 Ibid.

225 박원호, 72.

226 Osmer, 245.

227 박원호, 73.

228 Richard R. Osmer, Frierich L. Schweizer, 82.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서 고통받는 사람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해방적 실천에 동정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힘을 더해 준다. 이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을 교회생활의 여러 수준에서 다중적 권위의 통찰에 개방하고 다른 관점, 즉 결코 쉽게 단일 이념 또는 신학에로 귀착될 수 없는 관점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긴장을 가지고 산다.[229]

7) 6단계: 보편화된 신앙(universalizing faith)

이 단계의 구조는 세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식론적 및 도덕적 준거점으로서의 자아를 탈중심화하는 급진적 과정의 성취에 근거한다. 개인의 정서는 의미와 안정을 제공하는 가치와 권력의 제한된 중심을 넘어서도록 인도된다. 궁극적 존재 안으로의 참여 혹은 동일시는 개인이 사랑하게 만드는 변화를 초래하고, 궁극적 실재에 자리 잡 궁극적 정체성의 초점으로부터 가치 판단을 하도록 만든다. 고행하고 수행하는 것이라고 기술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까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사랑과 정의의 전적인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230]

이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종말론적 이미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보편적 공동체에 대한 이미지를 간직한다. 이들은 현재의 역사적 질서의 변화 안에서조차 급진적 신앙, 즉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신앙을 갖는다.[231]

파울러가 이 단계에 대해 기술한 것은 신앙에 관련된 개인적 면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Gandhi, Martin Luther King, Jr., Dietrich Bonhoeffer 등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에 기초한다. 모란은 이렇게 말한다: "파울러의 6단계인 보편적인 신앙의 단계는 기억하기가 가장 쉽지만 반면에 이 단계의 실재성은 가장 의심스럽다. 그 이유는 그것의 명료성과 설득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은 우리들 대부분이 6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232]

---

[229] Osmer, 245f.

[230] Richard R. Osmer, Frierich L. Schweizer, 82.

[231] Osmer, 246.

[232] Moran, 162.

B. 공적 교회와 공적 신앙[233]

1. 공적 교회-공적 공동체

공적 공동체로서의 '공적 교회'(public church)라는 개념은 Martin E. Marty가 새로 만들어낸 용어이다.[234] 공적 교회는 다원주의 시대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상담하고, 교육하고, 능력을 부여하는 사람들의 임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대해서 Dykstra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는 한 회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공동체에 인도되거나 병합될 수 없다. 바꾸어 말해서 도덕생활을 위한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공동체의 생활양식에 상당히 좌우된다."[235] 공적 교회는 사회적 생태적 정치적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공적 영역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목표이다. 그렇지만 공적 삶은 사적 및 공적 영역이 철저하게 구분됨으로써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친밀성의 횡포'(tyranny of intimacy)는 종교의 사유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파울러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점, 즉 유혹, 폭력, 배신을 대신해서 이성이 지배하는 공적 영역에 대한 인식을 재수립하도록 촉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김태원은 이렇게 말한다. "바람직한 형태로의 공동체성의 회복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인간적 정신적 질병들을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도록 진정한 인간화(Humanization)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매개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의 회복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시대적 과제인 것이고 이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236]

---

[233] Klappenecker, 88.

[234] Martin E. Marty, *The Public Church: Mainline-Evangelical-Catholic* (New York: Crossroad, 1981).

[235] Craig R. Dykstra, *비전과 인격,*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4), 188.

[236] 김태원, "공동체를 통한 기독교교육,"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21세기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기독교교육논총 2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106.

공적 교회의 특징은 공적 참여이다. 단계 모형은 실천신학의 한 차원이고, 파울러에 따르면, 교회론적 토대를 확보하고 있는 신학의 한 분과이다. 파울러의 단계 모형은 교회생활에 대한 그의 생각을 구성하는 한 가지 차원인데, 그는 이를 "돌봄과 소명의 생태환경"이라고 기술한다. 파울러는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직하고 개방된 토론의 문화가 촉진되고 있는 교회 안에서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신앙발달은 다원주의의 상황에서 시작되며, 타인의 희생을 통해 얻는 자기의 욕망, 개인의 고립, 피상적인 화합, 그리고 미분화된 동질성을 반대한다.[237]

Hans Küng은 교회의 차원을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근거해서 네 가지로 설명한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단일성(The Church is One), 교회의 보편성(The Church is Catholic), 교회의 거룩성(The Church is Holy), 교회의 사도성(The Church is Apostolic)이다.[238]

Hans Küng이 주장하는 교회의 네 가지 차원은 공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을 잘 설명한다. 먼저, 단일성을 드러내는 공적 공동체로서 교회는 주 예수에 대한 동일한 신앙고백, 하나님 통치를 향한 동일한 희망, 동일한 드림으로 만인이 한마음으로 세상에 대한 봉사를 체험한다.[239]

이것은 가시적이고 획일적인 통일을 목표하는 공동체가 아닌, 교회의 지체, 기능, 은사 등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치는 다양성을 통한 일치이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원화가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공적 공동체의 단일성은 다양성을 전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양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부름이 다양하고 성령의 은혜가 각각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적 교회는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교회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회 안에서나 세상을 향해 개방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

[237] Richard R. Osmer, Frierich L. Schweizer, 88.

[238] 이형기 편저, *역사 속의 교회* (서울: 도서출판 교육목회, 1995), 201.

[239]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78), 121.

둘째, 보편성을 드러내는 공적 공동체로서 교회는 개인주의와 세계화에 따른 종족주의에 의해 나타나는 타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타인을 향해 열린 공동체를 의미한다. 보편성을 드러내는 공적 공동체는 처음부터 남을 위한, 인류와 세계를 위한 존재여야 하며, 세상의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을 위해 연대하는 삶을 실천해야 하고, 그들을 위한 당파성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보편성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거룩성을 드러내는 공적 공동체로서 교회는 구성들의 종교적 윤리에서 비롯하는 거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바로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거룩해진다. 따라서 교회 자체는 거룩하지 않지만,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적, 역사적 형태로서, 모이고 세워지고 임무를 부여받을 때, 그리고 교회 자신의 믿음이 아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교회의 거룩성이 나타난다.[240] 그리고 교회가 분명히 거룩하지만, 이 거룩함은 교회가 세상과 분리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거룩성을 띤 공적 공동체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듯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다. 그러므로 공적 공동체로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적 공동체로서 교회는 사도성을 지닌다. 사도성이란 참 일치, 참 보편성, 참 거룩성의 표준이다.[241] 이러한 교회의 사도성은 사도적 임무와 그에 대한 충실성을 가리킨다. 사도 직분은 독특하고 반복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적 임무는 여전히 남아 있고, 교회는 그것을 계승한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연속성을 갖는다. 사도적 계승은 사도적 신앙의 계승만이 아니라 사도적 봉사의 계승이기도 하다.[242]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적 공동체이며, 교회는 세상을 향해 사도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2. 공적 신앙-탈인습적 신앙

---

240 Ibid., 325.

241 이형기, 266.

242 Hans Küng, 356.

1) 탈인습적 신앙

오늘날 현대 사회의 기독교 교회들은 근대화로부터 파생된 변화, 곧 개인주의화, 구조적 분화 그리고 다원주의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현대의 공적 삶과 연계시킴으로써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243]

탈인습적 신앙은 현대 사회의 공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신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탈인습적 신앙은 개인이 환경적 변화와 개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일관된 자아상을 획득하도록 하는 상징적 구조를 지님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 그 중심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며, 따라서 하나님나라의 실현을 지향하게 한다. 파울러는 기독교교육을 실천신학으로 간주하는데, 실천신학을 "기독교 공동체의 삶과 사역의 실제(praxis)를 그 다양한 측면 속에서 비판적이고도 건설적으로 숙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기독교교육은 "인격을 형성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교회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숙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244]

이같은 탈인습적 신앙은 고립을 통해 성취되기보다는 개방적 대화 속에서 동등한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성취될 수 있다. 관계적, 평등적, 그리고 개방적 자아는 절차적 과정(관계성)과 타인과의 호혜적 참여(평등성)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대화 학습(개방성)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탈인습성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개인주의화되고 구조적으로 분화된 그리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도덕적 다양성과 불일치성에 직면해 있다. 현대인들은 상대주의의 상황 속에서 그들 자신의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형성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적절한 객관적 준거들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선택의 자

---

243 파울러는 기독교교육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Mary C. Boys,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교육,* 김도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210.

244 James Fowler, "Practical Theology and the Shaping of Christian Lives," in *Practical Theology : The Emerging Field in Theology, Church and World*, ed. Don Browning (New York : Harper & Row, 1983), 154f.

유를 가진 기독교인들은 일관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수정 가능한 신앙을 획득하고 성취하도록 도전받고 있다. 달리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일관성 있는 자아상과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의 진정한 대화에 참여하도록 도전받고 있다.[245]

이러한 오늘날의 도덕적 및 종교적 위기는 '탈인습적 신앙'의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로써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해석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과업에 필요한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탈인습적인 신앙은 전반적으로 종교의 역할, 특히 현대 사회의 사적 및 공적 영역들 안에서의 기독교 신앙의 역할을 재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탈인습적 신앙은 기독교인들이 개방적 대화 속에서 상호 존중과 동등한 책임을 지닌 사람들도 존중받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고(타당성) 기독교 전통에 비추어 자신의 경험들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타당성의 보완)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발달된다는 것이다.

그룸은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적 신앙 공동체는 기독교인이 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되고 전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또 그 공동체에 신실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종교교육은 우리의 사회화 과정의 한복판 속에서 비평적인 성찰행동을 증진시켜야만 한다."[246]

2) 탈인습적 자아정체성

탈인습적 자아정체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247]

(1)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사는 인간들에게 요청되는 첫 번째 자아의 형태는 관계적 자아이다. 여기서 관계적 자아란 자신과 타인 사이의 상호주관적 관계들로부터 형성되는 자아개념으로서, 고립된 분화 과정 혹은 타인과의 분리 상태에서 형성되기

---

245 Richard R. Osmer, Frierich L. Schweizer, 261.

246 Thomas H.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3), 166.

247 조은하, "공적 신앙의 회복을 위한 교육목회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기독교교육학 전공, 2007), 64-66.

보다는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주관적 관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자아개념을 말한다. 이렇듯 관계적 자아는 개인주의화된 사회 속에서 요청되는 자아의 대안적인 형태로서, 자신과 타인 사이의 상호주관적인 연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아정체성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자아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타인과의 분리를 통해 자아 정체성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특징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교육받은 자들은 관계(connections)를 보여주는 데에만 한해야지, 공동체에 자신들을 강요하는 데 한해서는 안된다."[248]

(2) 평등적 자아(equal self)

현대 사회는 사적 및 공적 영역에서 다원적으로 수행되는 역할을 통제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자아를 필요로 한다. 구조적으로 분화된 사회에 사는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자아의 형태는 평등적 자아이다. 여기서 평등적 자아란 21세기 사회를 사는 이들에게 요청되는 다양한 역할들을 분석하고 그 다양한 역할들 사이의 균형과 통합을 위하여 특정의 기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주체적인 형태의 자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구조적으로 볼 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분화된 사회에서 그 두 영역의 가치를 동시에 존중함과 동시에 그 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주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자아개념의 형성이 곧 평등적 자아의 실현이다.

이 점에 있어, 교회의 기능이 점차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좁혀져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되는 후기 현대사회 속의 기독교인들은 그 자아정체성 형성과정에 있어 구조적으로 분화된 사회 속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형태의 자아개념에 관해 폭넓은 이해 그리고 서로 상반되는 자아개념을 존중하면서도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평등적 자아 개념의 형성을 필요로 한다.

현대 사회의 구조적 분화에 의해 요청되는 평등적 자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근거들을 필요로 한다. ① 사적 및 공적 영역들로부터 오는 다양한 요청들을 통제하기 위해. ② 이러한 요구들을 내면화된 원칙들로 통합하기 위해. ③ 공적 삶과 관련하여 기독교 신앙을 획득하고 재정의 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이 같은 현대 사회의 두 번째 요청은 총체적으로 교회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닌 자아상을 지칭한

[248] Boys, 193.

다.[249]

(3) 개방적 자아(open self)

공적 영역에서 세 번째 요청은 비교적 평등하고 개방된 의사소통의 공간 안에서 타인의 관점과 대화할 수 있는 자아, 곧 개방적 자아를 요구한다.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는 인간들에게 요청되는 이 개방적 자아는 그들로 하여금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비교하고 성찰하게 하는 자아개념을 의미한다. 이 유형의 자아는 21세기 사회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 사이의 분리와 적대현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 사이의 개방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그 결과 적대현상과 갈등현상을 극복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둘 사이의 변증법적 통합까지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인식능력을 지닌 자아개념을 지칭한다.

여기에 대해 목영해는 이렇게 말한다. "후현대주의 시대에 적절한 이상적 인간상은 무아인 즉 열린 자아인이다. 열린 자아관에 의하면 자아는 인간이 자기주위와의 관계맺음에서 형성된다.…열린 자아인은 후현대주의 시대의 적절한 교육적 인간상이다. 후현대주의 시대의 학교교육은 다양한 관계맺음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해 가는 인간을 양성해야 한다."[250]

타인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독특한 종교적 전통의 개혁에 대한 이러한 개방성은 개방적 자아와 개인의 신앙이 고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타인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독특한 종교적 전통의 상징적 심오함에 대해 비판적이며 건설적으로 사유함으로써 자아는 공적인 삶-다원화에의 개방성, 유토피아적인 상상력 촉진, 그리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평등성의 확인의 중요성-에의 참여를 가능하게 자원들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다원화되고 세계화된 사회 속에서 개방적 자아가 요청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즉 자아는 지속적으로 많은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반성적 사고와 개방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다.[251]

---

249 Richard R. Osmer, Frierich L. Schweizer, 252.

250 목영해, *후현대주의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5), 112.

251 Richard R. Osmer, Frierich L. Schweizer, 253.

결국 이러한 개방적 자아 개념은 특히 문화적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재정립되어야 할 기독교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

3) 탈인습적 목회

포스트모던 시대로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목회의 과제는 위에서 언급한 관계성, 평등성, 그리고 개방성을 지향하는 자아정체성과 신앙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1) 관계적 목회

먼저 관계성에 기초한 자아정체성과 신앙을 형성하는 목회는 고립되고 폐쇄된 자아가 아니라 자신을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 두고, 자신과 타인의 상호주관적 관계를 잘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목회를 가리킨다. 이는 다원화되고 다문화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고립된 하나가 아닌 다양한 문화, 관점, 방법을 통해서 자아와 신앙을 형성해갈 수 있도록 돕는 목회를 의미한다. 이는 신앙공동체내의 여러 관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공동체 밖에서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아와 신앙을 형성하는 목회이다.

(2) 평등적 목회

둘째로, 평등성에 기초한 자아정체성과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와 관점을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관점과 동등하게 보는 능력을 키워주는 목회가 필요하다. 이러한 평등성은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필요하며, 구조적으로 볼 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분화된 사회에서 그 두 영역의 가치를 동시에 존중하면서 그 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주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평등성에 기초한 목회는 타문화와 빈번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세계화의 상황에서는 매우 절실하다. 과거 역사에서 자주 보았던 문화제국주의적 접근은 타문화에 대한 시각에서 평등성을 결여한 것이며, 이러한 평등성의 결여는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를 형성하고, 문화와 문화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초래한다. 평등성에 기초한 자아정체성과 신앙을 형성하기 위한 목회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인종적, 성적, 계급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지구적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고침으로

써 평등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3) 개방적 목회

셋째로, 개방성에 기초한 자아정체성과 신앙의 형성을 위해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자신을 개방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목회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김청봉은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교육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그것이 비판적 성찰과 연결될 때 현재의 삶과 경험을 기독교공동체의 이야기와 비전에 비추어 성찰할 수 있으며, 신앙과 삶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교육과정의 커뮤니케이션은 인간들 사이의 진실한 만남을 가능케 하는 관계적, 인격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커뮤니케이션은 행동을 유발하는 프락시스적 측면을 지니며, 인간성 회복과 변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252]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사람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신과 다름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가리킨다.

파울러의 신앙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사회 인식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가리킨다. 즉 가족적, 인종적, 종족적, 계층적, 종교적 견지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만을 자신의 사회 인식의 범위로 삼는 자아와 신앙의 단계에서 다른 그룹과 다른 전통의 진리와 주장에 대하여 원칙 있는 이념적 유연성을 가지는 것으로, 또한 존재에 대한 자기도취성을 초월한 사랑을 지닌 자아와 신앙의 단계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현대의 탈인습적 정체성 확립을 목표하는 목회는 확고한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면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종교, 문화, 인종과의 관계에서 평등하고 상호주관적[253]이며, 개방성을 지닌 자아와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회복을 가리키며, 이런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형성교육"[254]이라고 한다.

---

252 김청봉,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교육,"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기독교교육논총 4*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136.

253 이것을 "간주관성"이라고도 하는데, 간주관성은 다학문적 개념으로서 '공동체적 자아, 공유적 이해, 그리고 합의된 객관성'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손원영, "간주관성과 기독교교육,"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기독교교육논총 4*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143.

254 윤화석, "기독교교육 인간론의 기독교교육 신학적 의의," 한국기독교교육학회편, *기독교교육논총4*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85.

VI. 다문화교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목회전략과 실제

A. 연구반의 조직

1. 연구반의 책임

연구자와 연구반은 본 연구과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연구하고, 연구자의 모든 목회 분야에서 연구자의 유능성을 평가하고 연구과제가 논문으로서 학문적, 실천적 과제가 될 수 있도록 문제나 과정을 설정하고, 완성된 논문이 연구자의 목회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공헌되도록 적극 협력 하도록 한다. 또한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의 목회 상황을 논문으로 신학화하기 위해 연구자의 평가, 계획, 임상에 적극 협조하고 논문이 완성된 후에도 연구자의 목회의 협력조직으로 영구히 남도록 운영한다.

2. 연구반의 특성

연구를 위해서 조직한 연구반은 다음과 같다.

도표10

이름	성	연령	직업	직분	인종
Ray Levie	남	70대	회계사	장로	유럽계 백인
Charles Gonzalez	남	50대	회사원	장로	유럽-스패니쉬계 백인
Jacob Budhoo	남	50대	건축	장로	스패니쉬계 흑인
Lillian	여	50대	회사원	안수집사	스패니쉬계 백인
김동연	여	40대	네일업	안수집사	한국인

본 연구반의 특징은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의 다인종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Ray Levie는 78세의 남자이며 유럽계 백인이다. 두 교회가 통합되기 이전의 영어회중의 장로이며 통합교회 이후의 장로 및 당회 서기로서 봉사하였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에 출석하였고, 이후 안수집사, 장로를 거치면서 이 교회 100년 역사의 많은 부분을 경험한 분이다. 그는 정통장로교회의 신학과 신앙을 소유하였으며, 성경과 장로교 예배 및 헌법에 능통하다. 그는 1953년 한국전쟁에 참가하였고 한국에 대한 남다른 경험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1994년 당시 당회의 서기로서 영어 회중과 한국어 회중이 통합하는데 큰 역할을 한 장로이다. 그런 역할을 담당해서인지 통합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ruch는 다인종, 다문화 교회라는 정체성이 확고한 분이다. 또한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 미래의 발전을 위한 목회정책에도 많은 조언을 하며 당회 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

Charles Gonzalez는 50대 남자로서 유럽-스패니쉬계 백인이다. 현재 이 교회의 장로이며 7년 전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로 이명한 사람이다. 가족 전체가 교회에 출석하며 The Bedford Prak Presbyterian Church가 다문화 다인종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열심이다. 다른 영어 회중 교회들의 목회전략들에 대한 정보를 목회자에게 제공하며, 날마다 신문과 Newsweek, Times, 기타 시사 간행물들을 빠지지 않고 읽으면서 세상의 뉴스와 상황에 대하여 많은 지식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의 신앙과 신학은 매우 보수적이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영어 성경공부를 인도하기도 하며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목회자를 협력하고 있다.

Jacob Budhoo는 50대 흑인 남성으로 직업은 건설업이다. 그는 남아메리카의 가나에서 왔으며 그 곳에서 장로직을 안수받았으나 아직 이 교회의 장로는 선출되지 못하였다. 그의 신앙은 순수하며 성경에도 해박하여 영어 회중의 성경공부와 설교를 하기도 한다. 영어 회중 내의 남아메리카계 흑인 회원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목회자를 적극 지원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개방적이며 순종적이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Lillian Gonzalez는 스패니쉬계 백인 여성이며 안수집사이다. 영어 회중의 구

역장을 맡고 있으며 점심식사 봉사와 성찬식탁 준비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이다. 다문화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헌신해 왔으며 목사의 설교에 대하여 언제나 칭찬하는 분이고, 목회자의 목회방향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분이다.

마지막으로, 김동현은 여자 안수집사로서 한국인이다. 그녀는 7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현재 남편과 아이들 모두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교회 내의 대부분의 집사들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구역장을 맡아 봉사하는 일에 남편과 함께 앞장서고 있으며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가 다문화 다인종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긍정적이며 협조적이다.

본 연구반원들은 모두가 목회자에게 협조적이며 목회 방향과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조언과 충언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과 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의 모든 일에 충성을 하는 분들이다. 이상의 모든 연구반원들은 필자가 계획한 다문화교회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목회전략에 후원과 지지를 하며 실행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이다.

B.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한 목회전략

1. 비전 및 목표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다인종이 함께 모여 하나의 교회를 이룬 다문화교회이며, 다문화사회 속에 위치해 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다문화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기 위해 다문화 교회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수행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각각의 인종이 자기들 고유의 문화와 특징들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인종을 포용하여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갈 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교회의 각기 다른 인종과 언어를 사용하는 회원들이 각각의 인

종들의 문화정체성만을 따라서 교회생활을 한다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로서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문화교회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이 다문화교회의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정체성이 확립될 때 이 교회는 지역사회를 이끄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회에서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한 목회 전략"을 통하여 다문화사회를 위해 선교하고 봉사하는 다문화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회 전략들을 시행하고자 한다.

2. 의식 변화

1) 변화목표

Nathan Glazer는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피부색, 언어, 문화의 차이를 차별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할 보편적 정서로 인식하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255]고 말하고 있다.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가 다문화교회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식변화의 목표를 가지고자 한다.

① 한국어 회중과 영어 회중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② 언어와 인종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성장함을 깨닫게 한다.

③ 다문화 다인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의 목표를 가진 일치된 공동체가 될 때 지역사회의 선교와 봉사를 실천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④ 다문화 다인종이 교회의 의결기관에 공평하고 균형 있게 참여하여 리더쉽을 공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

[255] Nathan Glazer, 11.

2) 행정목표

이와 같은 의식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정목표를 세웠다.

① 교회는 인종과 언어를 성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인식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제자의 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요한복음을 지속적으로 설교하도록 한다.

② 다인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세계성찬 주일에 이중언어 예배를 드리며 년 4회 이상 함께 모여 성찬식을 하도록 한다.

③ 다인종 다문화 교인들이 공통의 목표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로 결속되기 위하여 동일한 주제 아래 성경을 공부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여름 수련회를 매년 여름마다 실시하도록 한다.

④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선교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역동적인 교회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도활동 및 교육을 하도록 한다.

⑤ 교회의 직원을 공천하는 공천위원회가 미국장로교의 헌법에 따라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도록 교육하도록 한다.

3. 행동 변화

1) 변화목표

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의 일을 함에 있어 인종을 초월하여 협력하고 참여하도록 한다.

② 교회의 직원 선출에 있어 인종과 언어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기초로 한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회 건물을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함으로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선교에 참여하도록 한다.

2) 행정목표

① 년 4회 이상 성찬식과 이중언어 예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② 여름 수련회 및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담당할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리더들을 교육한다.

③ 교회 예산에서 1000불을 선교비로 책정하고 예산의 일부를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예산 배정을 당회에 상정한다.

④ 년 2회 이상 전도교육 및 실습, 새신자 양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⑤ 주일예배 출석 교인 수 40명으로 성장시킨다.

⑥ 교회의 제직들과 공천위원들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미국장로교의 헌법의 정신에 따라 모든 일을 신앙과 공평성을 교회의 모든 일에 적용하도록 한다.

⑦ 교회의 전반적인 업무와 봉사의 일이 원활하게 분담되고 모든 교인들이 1인 1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구역 조직 및 부서 업무 조직을 한다.

⑧ 교회 건물을 렌트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건물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4. 구조변화

1) 변화 목표

① 어느 한 인종이나 그룹에 치우치지 않고 교회 내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당회를 조직하게 한다.

② 모든 인종이 함께 참여하는 집사회를 구성하게 한다.

③ 전 교인이 리더십을 공유하고 교회 내외의 모든 봉사와 선교의 일을 분담하는 구역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한다.

④ 교회의 예배와 교육 및 선교와 봉사 등 모든 교회 행사에 다인종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함으로 다문화 교회로서의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⑤ 자원봉사자들이 확보되고 바자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며 교회의 수입이 증가 되도록 한다.

⑥ 교회건물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렌트하도록 실질적인 건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다.

⑦ 당회와 지역사회와의 공식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와의 모든 업무를 당회와 연결되도록 한다.

2) 행정목표

① 다인종의 대표들이 공평성, 다양성의 원칙에 따라 3년조로 당회를 구성한다.

② 집사회를 당회 아래 두며 3년조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한다.

③ 전 교인을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봉사를 담당하도록 운영한다.

④ 교회건물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한다.

⑤ 교회건물을 렌트하여 교회재정을 확보한다.

⑥ 교회의 모든 업무와 안건을 당회에서 다루며 당회의 결의에 따라 실행되도록 한다.

⑦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모든 일을 당회가 하도록 한다.

5. 시행전략

위의 목표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모두 4단계로 나누어 시행전략을 실시하도록 한다.

1) 1단계-예배와 설교와 성찬식을 통하여 다문화 다민족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2) 2단계-신앙수련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임을 느끼고 체험하도록 한다.

3) 3단계-새로운 통합공동체로 탄생하여 지역사회에서 선교와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

4) 4단계-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당회구성의 다양성, 공평성을 유지하여 지역사회에서 주어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다.

C. 새로운 정체성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1. 목표

기간: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 까지.

도표11

연도	목표	표어	성경구절
2006년	치유와 회복에 대한 설교하기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19
2007년	성령 안에서 새로운 다문화 공동체로 탄생하기	성령과 함께 가라	사도행전 5:42
2008년	다문화 공동체로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되기	배우며 일하는 교회	딤전 1:12

2. 목회중점사항

도표12

연도	목표	세부목표
2006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설교, 성전에서 기도하기, 심방	.점심식사 후 성전에서 기도하기
2007년	전도 및 선교, 각 회중의 리더십 개발과 영적 성장	.전도-바울전도대 결성, 전도지 제작, 교회홍보용 선물 제작, 길거리 전도 및 전도대상자 를 위한 전도와 기도. .각 기관의 이름을 선교회로 바꾸고 선교를 위한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지도. .리더십- 구역장 학교 실시, 구역봉사의 활성화로 교회봉사 체계화 .영적성장-가정심방, 병원심방, 전화심방, 중보기도, 새신자 환영,
2008년	전도, 리더십 향상, 성경공부를 통한	. 2007년 했던 전도를 더 발전시켜 계속한다. . 각 기관별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하여 각 선교기관

	신앙체계 확립, 교회 및 지역사회 봉사 확대	의 정체성 확립 및 성장, 그리고 평신도 지도력을 키운다. . 교인들로 하여금 주인의식(ownership)과 동료의식(partnership)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1인 1가지 이상의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한다.-각 부서의 부서장을 중심으로 교회 봉사를 체계화한다. . 구역예배의 활성화를 통하여 찬양, 친교, 기도, 봉사와 전도의 영적 양육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한다.(매달 넷째 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동시에 실시) . 당회 정책세미나를 실시하여 교회미래발전을 위한 목회계획을 수립한다. . 년 1회 각 가정의 심방을 실시함으로 각 가정의 목회적 돌봄을 이룬다.

D. 새로운 정체성형성을 위한 시행전략

1. 이중언어 예배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 형성

"예배 없이는 누구도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예배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256] 이 말은 예배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 준다. 예배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신앙행위에 있어 중심요소이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거기에 각 개인으로 하여금 응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참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유지하도록 한다.[257]

1) 목표

예배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을 알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이중언어 예배를 통하여 언어와 인종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인

[256] F.M.Segler, *Christian Worship,* 정진황 역, *예배학 원론* (서울: 요단출판사, 1984), 25.

[257] 고용수, "예배와 기독교교육,"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기독교교육 논총 1*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9.

식하도록 한다.

2) 이중언어 예배의 실제

이중언어 예배는 2006년 시작하여 2009년 까지 시행하였다. 정기 주일예배는 10시에 영어예배, 11시 30분에 한국어 예배를 분리하여 드리고, 이중언어 예배는 8월 여름 휴가 시기와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세계성찬주일, 성탄주일, 공동의회 주일에 오전 11시에 드렸다.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각각의 회중 대표가 예배의 사회자가 되고 모든 예배 순서는 언어만 다를 뿐 동일한 찬송가, 성시교독, 성경본문, 설교로 진행된다. 모든 예배 순서 담당자는 각각의 회중이 균등하게 봉사하며 설교는 영어와 한국어로 각각 주어진다.(부록2 참고)

한영합동예배를 통하여 동일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를 올리고 동일한 본문과 설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므로 다문화 공동체가 하나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는 새로운 다문화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증진시킨다.

2. 설교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 형성

K. Barth는 신학을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보았고 설교를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보았다.[258] 모든 신학은 설교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설교를 교회의 중요한 본질적인 기능의 하나로 본다. 왜냐하면 교회의 위기는 교회 강단의 위기이며, 강단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설교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과 방법을 얻게 된다. 따라서 설교가 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

---

258 김종렬,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강단* (서울: 목회교육연구원, 기독교문사, 2006), 31.

를 세울 수 있다. 특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의 현장에 알맞게 선포됨으로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룰 수 있고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다.

설교는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Pre-text, Text, Con-text의 세 차원을 포용해야 하며, 그것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Pre-text), 주해하고(Text),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Con-text) 설교일 때, 그 설교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종말론적 사건이 된다.[259]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의 현장은 다문화 다인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교회는 다문화 공동체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삶과 신앙을 배움으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도를 실천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원리를 배우며,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올바른 교회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며 모든 인종과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다문화교회를 위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다.

1) 제자도를 통해서

2007년 4월 26일부터 2007년 7월 22일까지 1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에 대하여 설교를 하였다. 이 설교를 한 목적은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의 성도들이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다.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인종이 다르고 문화와 사고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아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의 삶과 믿음을 생각해 보는 일은 새로운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은 현재를 사는 성도들이 배우고 따라야 제자의 길을 보여 준다. 예수

[259]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90.

님의 12제자들은 각기 다른 제자도를 보여 주었다. 예를 들면 마태는 제자의 길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섬기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260] 따라서 12제자들이 걸어갔던 그들의 제자의 길을 설교함으로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의 모든 성도들이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하였다.

도표13

날짜	본문	제목(한글)	제목(영어)
2007.4.29	마태 13:44-48	제자도1-마태	Discipleship of Matthew
2007.5.6	요한 16:14-18	제자도2-나다나엘	Discipleship of Nathanael
2007.5.13	마태 26:31-35, 69-75	제자도3-베드로	Discipleship of Peter
2007.5.20	요한 14:22-24	제자도4-다대오	Discipleship of Thaddaeus
2007.5.27	요한 1:35-40	제자도5-안드레	Discipleship of Andrew
2007.6.3	요한 13:34-35	제자도6-요한	Discipleship of John
2007.6.10	요한 11:5-16	제자도7-도마	Discipleship of Thomas
2007.6.17	요한 14:8-27	제자도8-빌립	Discipleship of Philip
2007.7.1	마태 10:1-4	제자도9-시몬	Discipleship of Simon
2007.7.8	마태 10:1-4	제자도10-야고보	Discipleship of Jacob
2007.7.15	마태 20:20-28	제자도11-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Discipleship of Jacon Son of Zebedaeus
2007.7.22	마가 14:21	제자도12-가룟유다	Discipleship of Judah Iscariot

2) 로마서를 통해서

2008년 4월 6일 부터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08년 9월 21일에는 로마서 12장 4-5절 말씀을 가지고 '한 몸으로 살아가기'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이 설교에서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와 같이 우리 많은

260 장흥길, *나의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설교를 위한 마태복음 연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서, 2004), 30.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였다.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할 것이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은 건강한 몸을 가꾸기 위해 꼭 거쳐야 할 과정이므로 이것을 이겨낸다면 우리 공동체는 마침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과 목표를 심어 주었다. 지금까지 이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을 가지지 못했었다. 부정적이고 희망이 없는 많은 조건들에 눌려서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과거의 부정적이고 약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격려하는데 힘을 썼다.

2008년 11월 2일에는 로마서 16장 1-16절을 가지고 새 사람, 새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설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새롭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새로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한 개인의 정체성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른 인종일지라도 포용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설교 하였다(실제 설교 원문-부록3 참고).

2008년 9월 28일 부터는 로마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설교하였다.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의 성도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리 의식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데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육체의 욕심과 이기심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인종이 서로 언어도 다른 상황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겸손과 인내와 사랑의 덕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어렵기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였다.

도표14

날짜	본문	제목(한글)	제목(영어)
2008.4.6	1:1-7	은혜를 입은 사람들	Men of Grace

2008.4.13	1:8-17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라	Encourage each other with faith
2008.4.20	1:16-17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	The Church to be built on the power of the Gospel
2008.4.27	2:1-29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Righteous Judgment of God
2008.5.4	3:21-31	칭의와 성화	Justification and Sactification
2008.5.25	4:1-25	아브라함의 믿음	The faith of Abraham
2008.6.1	5:1-11	평화, 희망 그리고 기쁨	Peace, Hope and Joy
2008.6.8	5:12-21	아담과 그리스도	Adam and Christ
2008.6.29	15:1-13	오직 하나님께 영광	Glorify God
2008.7.6	8:1-17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Living through the Holy Spirit
2008.7.13	8:26-27	중재하시는 성령님	The Holy Spirit to mediate
2008.7.20	8:28-39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The Zeal of the Lord
2008.8.17	10:1-15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Jesus is Lord
2008.8.24	11:22-36	끈질긴 은혜	Persistant Grace
2008.8.31	12:1	나는 무엇을 믿는가?	What is my Confession?
2008.9.7	12:1-2	변화를 받으라	Live Holy Life
2008.9.14	12:3-8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십시오	Live as a one Body
2008.9.21	12:21-31	한 몸 이루기	Make one Body
2008.9.28	13:1-7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Christian Attitude to Political Power
2008.10.12	14:1-23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For the Kingdom of God
2008.10.19	15:1-13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God as the Fountain of Hope
2008.11.2	16:1-16	새 사람 새 정체성	New Being, New Identity
2008.11.9	16:17-27	로마서의 결론	The Conclusion of Romans

3)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는 초대 교회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의

교회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갔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선교사인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의 빛에 의하여 모든 것들을 재조명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2009년 8월 9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였다(실제 설교 원문 제시-부록4 참고).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한다. 통합 이전의 교회정체성으로는 두 교회의 통합과 일치를 통한 발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영어 회중은 영어 회중대로 자신들이 지켜온 신앙의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기 원하며 한국어 회중은 한국어 회중대로 자신들의 신앙의 방식을 고집하므로 두 회중 간의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이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의 목표와 합의된 의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빛의 조명을 통해서만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도표15

날짜	본문	제목(한글)	제목(영어)
2009.8.2	1:1-5	은혜와 영광의 나라	The Kingdom of Grace and Glory
2009.8.9	1:6-24	순수한 복음	The Purity of Gospel
2009.8.16	2:1-9	예루살렘 사도회의	The First Counsel of Jerusalem
2009.8.23	2:15-21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
2009.8.31	3:1-14	예수님이 세운 새로운 법	The New Law of Jesus Christ
2009.9.6	3:15-29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Clothe Yourself with Christ
2009.9.13	4:12-19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2009.9.20	4:20-31	바울의 마지막 권면	The Last Encouragement of Paul
2009.9.27	6:1-18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	Live to Follow the Rule of Cross

3. 성찬식을 통한 새로운 정체성 형성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강화시키는 귀중한 의식이다. 성만찬이 갖는 의미 가운데 “성도의 교제로

서의 성만찬"(The Eucharist as Communion of the Faithful)이 있는데, 성령의 임재에 의해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한 교회의 감사와 찬양의 행위는 성도간의 교제를 만들어낸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며, 나아가 이 세계와 역사와도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다. 성만찬은 모든 사람들을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와 자매로 화해케 하는 사건이다.[261]

영어회중은 그들의 예배 전통에 따라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시행해 왔으며 한국어 회중은 일 년에 1회 성찬식을 시행해 왔으나 이를 일 년에 4회로 이중언어 예배 때 실시하도록 하였다. 모든 성찬예식 순서(부록5 참고)는 한국어와 영어로 동일하게 되어 있으며 각각의 회중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성찬예식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였다. 성찬의 메시지는 모두가 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부터 구원을 얻은 한 공동체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과 함께 힘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였으며 영적으로 강화된 성도들은 세상과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평화와 사랑의 사도가 되어 살도록 격려하였다.

4. 신앙공동체 수련회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형성

"사람들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는 한 회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공동체에 인도되거나 병합될 수 없다."[262] 이 말은 역설적으로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질 때 다문화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신앙공동체는 공통적인 기억이나 전통, 곧 삶에 관한 공통의 이해와 삶의 방식, 그리고 공통의 목적과 의지를 공유한다. 신앙공동체는 본질적인 요소에 일치, 곧 그 공동체가 지니는 이해, 가치, 방침에서의 통일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263] 비록 공동체내의 다양성이 존중되기는 하지만 자기 정체성을 앞설 수는 없다. 따라서 신앙공

261 은준관, 338.

262 Craig R. Dykstra, *비전과 인격,*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4), 188.

263 손원영,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22.

동체는 스스로 믿는 내용에 관해 일치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앙공동체가 믿는 바를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신앙고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작성하며 고백하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교회 내에 있는 다인종 회원들은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앞세우지 않고 교회공동체의 신앙고백과 교회 전체의 정체성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해마다 여름에 신앙수련회를 하도록 계획하였다. 모든 인종의 회원들은 여름 신앙수련회를 통하여 공통의 목적과 의지, 신앙고백을 배우고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수련회는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신앙적 영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신앙수련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했으며, 2006년에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2007년에는 전도, 2008년에는 기도를 주제로 실시하였다. 이 수련회는 한국어 회중이나 영어 회중 모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예배 및 성경공부, 기타 활동들을 하게 하였다. 이 수련회들의 활동들은 두 회중이 일치된 교회의 목표를 설정하게하고 그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가짐으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친밀감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다인종이 하나의 주제로 통합되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며 하나의 공동체로 삶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다인종이 함께 리더십을 공유하고 새로운 평신도 리더십이 개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수련회의 모든 순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있고 한국어 와 영어를 분리하여 진행되기도 한다. 예배 및 활동, 봉사 등은 함께 이루어지며 성경공부는 언어 문제로 인하여 분리하여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중언어를 함께 사용하며 하는 데 예배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통역의 어려움이 있었고, 다문화권 인종들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부록 6 참고).

5. 복음전도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형성

1) 복음전도

교회와 복음전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전도는 교회에 부과된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교회 사역이 본질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John R. W. Stott는 말하기를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철저히 사랑하고 순종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랑의 순종이 전도로써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다.[264] 전도는 모두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으므로 전도활동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 공동체로 하여금 생명력이 있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역동적이 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1) 전도의 정의

William Tample은 "전도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며, 또한 그를 교회를 유명한 전도자 Daniel Nails는 사막에서 목마름에 죽어 가던 구걸자가 오아시스를 만나 살아나서 다른 구걸자에게 샘물의 장소를 알려 주는 것이다. 1974년 로잔에서 모였던 세계복음전도에 대한 국제대회에서는 복음전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 말씀에 따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심을 입었으며, 믿는 모든 자에게 죄의 용서와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복된 소식을 전함이다.[265]

세 사람이 정의가 전도에 대하여 모두 의미 있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②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한다.

---

264 John, Stott, *존 스토트의 복음전도*, 김성녀 역 (서울: IVP, 2004), 23.

265 민경설, *하나님의 주권과 전도의 역동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51.

③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④ 목마른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난 경험을 하다.

⑤ 다른 목마른 사람에게 그 오아시스를 알려준다.

⑥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은 영어를 사용하는 성도나 한국어를 사용하는 성도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선교의 사명이다.

또한 공동의 선교의 비전을 통하여 언어를 초월하여 연합할 때 베드포드 파크 장로교회공동체가 다문화 다인종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2) 전도의 방법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원리는 씨를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이를 생명의 경작원리라고 한다.[266] 전도가 쉽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자라난 것으로, 다른 사람이 뿌린 것에 대해 열매를 거두는 것일 수도 있다. 씨를 뿌린 자와 거두는 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생명 경작의 원리처럼 씨를 뿌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전도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셨다. 생명 경작의 원리는 7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살펴보자.

① 씨 준비-전도를 위해 준비할 씨는 무엇인가?

② 일꾼 준비-어떤 일꾼이 전도를 위해 필요할까?

③ 땅의 확보-전도대상자가 정해 져야 전도할 수 있다.

④ 거름주기-씨가 싹이 나서 잘 자라려면 거름이 필요하듯이 전도에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

[266] Ibid.

⑤ 파수꾼 세우기- 자라나는 곡식을 지켜야 한다. 가라지를 뽑아내기도 해야 한다. 곡식이 자라서 알곡이 될 때까지 방해와 시험을 이기도록 돌보아야 한다.

⑥ 추수꾼 세우기-서로 협동하여 농사를 짓는 것처럼 전도자들 상호간에도 서로 연합해야 한다.

⑦ 알곡비전 갖기-전도자는 항상 어떤 부정적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알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과 생명경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항상 풍작이고 흉작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전도자는 성령 충만하여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2) 계획단계

(1) 2006년 말부터 전도를 위한 준비를 하고 2007년부터 시작하도록 하였다.

(2) 2007년 4월 교회의 새로운 이미지 형성과 홍보를 위한 전도지 만들었다.

(3) 출석교인 40명 이상 목표를 갖고 시작 하였다.

(4) 한국어권, 영어권이 연합하여 전도대를 구성하였다.

3) 실행을 위한 준비

(1) 2007년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제1차 전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2) 2007년 봄에 Bronx 지역에 대한 인구 조사와 지역사회 리서치를 하였다.

(3) 전도를 위한 선물을 제작하였다.

(4) 2008년 9월에 제2차 전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부록 7 참고).

4) 구체적 실행

리서치 결과, 교회 주변에는 많은 아파트 들이 있으며 이 아파트에는 많은 가구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다. 또한 Bronx에는 흑인들과 히스패닉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먼저 교회를 홍보하는 교회안내서와 간단한 복음전도의 말씀이 들은 전도지를 제작하였다. 또한 작은 선물도 마련하여 전도지와 선물을 함께 전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전도지는 영문과 한글 두 가지로 작성하였다 (부록 8 참고).

(1) 바울전도대 조직

전도를 위해 약 15명으로 한국어 회중의 바울전도대가 구성되었고 전도대원들은 매 주일 오후 5시에 Bronx 한인타운의 중심지에서 길거리 전도를 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는 15명 정도의 전도대원이었으나 점차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 나중에는 20여명이 길거리로 나가 전도하게 되었다. 전도하는 방법은 만나는 사람마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다가 점차 복음찬양을 함께 하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소개하며 한인 타운에서 교회의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노력하였다. 한인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다문화권 지역민들에게도 전도하였다.

(2) 2인 1조 전도대원

주 중에는 2명씩 짝을 지어 각각 전도하는 지역을 나누어 전도를 하였으며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여 기도하며 꾸준한 전도를 시작하였다.

(3) 전교인 전도대회

2008년 4월 20일 한국어 회중 전원과 영어 회중 전원이 예배를 드린 후 교회 주변으로 흩어져 길거리 전도를 실시하였다.

(4) 2007년 제1차 전도훈련 교육

2007년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1박 2일 동안 전도훈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실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방법과 태도를 배우고 연습해 보는 것은 전도훈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부록에 소개된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전도대원들을 교육하고 실천하였다.(부록 6 참고)

(5) 2008년 제2차 전도교육 및 실천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계속 전도하기 위해 전도대원들을 다시 교육하고

훈련하였다. 2007년의 전도교육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2007년 동안 전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하고 실제적인 전도계획들이 만들어졌다. 또한 2007년에 비해 거의 모든 교인들이 이 전도교육과 실제에 참여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영어권 회중 가운데도 전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이 전도운동은 2008년 9월 까지 진행되었다. (부록 7 참고)

(6) 새 신자 환영예배 실시

2008년 6월 22일 전도대회 이후 19명의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을 환영하는 새 신자 환영예배를 드렸다. 이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들이 늘어났다.

(7) 전도지 만들기

전도지는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의 이미지를 새롭게 홍보하고 지역선교에 대한 사명과 지역 봉사를 알리는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 교회는 Bronx 한인장로교회의 오래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각종 부정적인 교회이미지들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이 전도지를 만든 목적은 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가 다문화 교회로서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길 것인가 하는 교회관과 신학과 교회의 목회방침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6. 봉사와 친교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형성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두 가지 봉사의 일이 필요하다. 하나는 교회건물을 유지하고 청소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주일예배후의 점심식사를 담당하는 일이다. 그 동안 이 두 가지 일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사용되어 왔다. 또한 이 두 가지 봉사로 인한 한국어와 영어 회중의 갈등이 있었고, 재정적으로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두 가지의 교회사역을 평신도들이 다섯 개의 그

룹으로 나누어 봉사한다면 두 언어 회중의 간의 갈등이 해소되며 재정적인 면과 지도력과 은사개발의 측면에서 아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며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그룹원 안에서 혹은 그룹들 사이에 친교가 이루어지므로 다문화공동체의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1) 점심식사 봉사

그 동안 점심식사가 단지 몇 사람에 의해 운영되었고 이로 인한 불평이 있었으며 교회 봉사가 단지 몇 사람의 전유물처럼 되어 왔으며 영어 회중이 봉사의 일에서 제외됨으로 양 회중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체계화 하였다. 교회의 모든 봉사를 위하여 전 교인을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리더들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4개는 한국어 회중의 그룹이며 하나는 영어 회중의 그룹이다. 각각의 다섯 개 그룹을 "구역"이라고 이름을 짓고 모든 구역은 한 달에 한 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점심식사를 위한 봉사를 교대로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교인이 봉사하며 교회의 리더와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영어 회중의 참여를 높임으로 서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할 뿐 아니라 다문화권의 음식을 맛봄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함으로 다문화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과 일치를 위해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2) 건물청소 봉사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본당과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교육관 건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 건물의 유지와 보수, 청소는 매우 큰 봉사 중의 하나이다. 일 년의 예산 중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이 전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물 유지와 청소의 비용을 절감한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비와 교육비를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다.

2008년 1월부터 12월 까지 매월 넷째 주일 점심식사 후에 실시하였다. 모두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맡은 구역을 청소하였다.

도표16

순번	장소	담당자
1	본당	목사, 리만 칼리지 학생들
2	2층 친교실, Parlor Room	영어 회중
3	지하 식당	사라 여선교회
4	지하 주방	한나 여선교회
5	복도, 가든	디모데 남선교회

3) 1인 1 봉사하기 운동

지금까지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의 모든 교회의 일은 거의 한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회 청소, 교회 행정 업무, 점심식사 봉사, 주보, 예배 피아노 연주, 주일학교 운영이 모두 한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교회의 예산의 20%가 이를 위한 인건비로 나가게 되었다. 2006년까지 이를 위한 예산을 교회 주식을 매각함으로 충당했으나, 2007년부터는 매각할 주식이 없어짐으로 교회 재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2006년부터 교회의 각 부서의 업무를 봉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찾았으나 호응이 없었다. 2007년부터 이를 위해 홍보하고 힘쓰다가, 2008년에는 출석 성도 50명이 각각 한 사람이 하나씩 봉사 일을 맡아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분담함으로 재정부족의 극복과 리더십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개방을 위해 큰 도움을 주도록 추진했다.

도표17

순번	부서명	담당업무
1	재정부(Committee of Treasure)	일반재정, 특별재정, 예 결산, 감사, 자산관리, 교회재정관리 교육.
2	예배부(Committee of Worship)	예배, 절기 예배, 헌신예배, 구역예배, 성례, 성가대, 안내, 헌금, 강단장식, 음향, 찬양, 주보, 각종 행사, 영상, 예배위원교육.
3	교육부(Committee of Education)	주일학교, youth, 소그룹 성경공부, 구역장 교육, 부모교육, 교사교육, 전교인 수련회, 세례자교육, 새 가족교육, 월례회지도.
4	건물관리부(Committee of Buliding)	교회청소, 건물관리, 건물유지, 보수, 건물사용허가, 임대, 조경.
5	선교부(Committee of Mission)	선교, 노회 및 지역사회와의 선교정책협의, 다문화권 선교, 전도훈련, 교회홍

		보, website.교회내 게시판 운영 및 관리
6	친교 및 사회봉사부(Committee of Fellowship& Social Service)	점심식사, 경조, 친교, 지역사회봉사, 도서,야구대회, 각종 친목행사, 바자, 각종 모금.

7. 구조변화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 형성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미국장로교에 소속된 교회이다. 미국장로교 헌법에는 다문화 교회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적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교회와 세상에 있어서 이 다양성에 부응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예배에 함께 모이고 공동체적 삶에 질서를 부여하면서, 여러 문화와 필요에 적합한 형식, 실천, 언어, 프로그램, 그리고 양육과 봉사의 다양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267]

이를 위해 미국장로교는 헌법으로 형태의 다양성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당회 구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원칙이란 모든 종족 그룹, 연령의 차이, 성 차이, 각종 신체장애, 다양한 지역, 개혁교회 전통에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신학적 입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결혼 상태에 있는 교인들이 다 교회의 의사 결정에 대표자로서 충분히 참가하고 또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68]

행정이란 치리회가 그것에 따라 결정을 실천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관여하는 것이며, 지도력을 개발하고, 계획을 세우고, 통신 연락하며, 조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269] 그러므로 교회의 행정구조의 변화는 교회가 다문화교회로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당회의 구성을 한국어 회중과 영어 회중에서 균등하게 구성되도록

---

267 총회 사무처 발행, 미국장로교 헌법 제II부 규례서 2004-2005, G-4.0401 "형태의 다양성."

268 Ibid., G-4.0403 "전체 참여."

269 Ibid., G-9.0401 "행정의 원리."

하며 인종과 성을 초월하여 건전한 신앙위에 서 있는 교회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교회발전과 선교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장로교 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인종별, 성별, 연령별 균형 있는 공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집사회 역시 이런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였다.

VII. 목회전략 실행에 대한 평가 및 유능성 개발

A. 평가

1. 설문조사와 평가

2010년 1월 다문화교회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목회전략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다문화교회로서의 정체성에 대하여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의 회중들이 이 교회를 다문화교회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2) 설교가 다문화교회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교인들은 설교를 통하여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가 다문화교회임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은 다문화교회로서의 교회관을 심어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남선교회는 매 주일의 설교 본문을 책으로 만들어 전 교인이 암송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 성찬식에 대하여

성찬식을 통하여 영어 회중과 한국어 회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다고 대답하였다. 그동안 한국어 회중은 일년에 단 1회의 성찬식만을 행

하여 왔으므로 처음에는 성찬식을 자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았고 다소 번거로운 의식인 것처럼 인식하였으나 점점 인식이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다.

4) 이중언어 예배에 대하여

이중언어 예배는 교회의 절기와 성찬식등 특별한 기간에 드리는 것이 좋으며 너무 많이 갖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한국어 회중의 일부는 이중언어 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응답했고 영어 회중의 일부는 특별한 날에만 이중언어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5) 여름 수련회에 대하여

여름 수련회는 연간 행사 중 가장 큰 행사였다. 여름 수련회의 주제는 그 해의 교회의 목표가 되어왔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전 교인을 교회의 목표를 인식하고 교회가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교육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전교인과 전 교회의 목표와 생활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문화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두 언어 회중 사이와 각각의 언어 회중 사이의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친교와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신앙을 위한 수련회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2006년과 2007년은 여름 수련회를 신앙 중심의 수련회였으나 2008년에는 성도간의 친목과 휴식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졌다. 이것에 대해 2008년 수련회보다 2006년의 수련회 운영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의견이었다.

6) 점심식사 봉사와 교회청소에 대하여

구역조직을 통한 점심식사 봉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응답을 얻었다. 모든 성도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구역원 간의 친밀감과 구역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하여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을 나눔으로 다인종 간의 문화 교류가 이루어 졌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교회청소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를 갖게 하였다고 응답한 이들

과 힘들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의식변화 실행 분석

2010년 설문조사를 실행한 결과 다문화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한 목회전략들이 다문화교회의 정체성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이다. 이 의식변화는 한국어 회중보다는 영어 회중에게 더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영어 회중의 모든 멤버들은 목회전략이 다문화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하여 많은 의식의 변화를 주었고, 이것은 회중의 그리스도 신앙의 성숙도에 의존한다고 대답하였다. 영어 회중은 이미 다문화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 회중의 일부는 아직 다문화교회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었다.

한국어 회중에게는 성만찬과 전도활동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의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가 된다는 성만찬의 의미를 재교육하는 기회가 되었고. 전도활동은 처음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평가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다는 데에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전도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의 부정적인 과거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다문화교회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영어 회중들은 이중언어 예배와 성만찬,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한국어 회중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다문화 교회의 정체성과 친밀감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점심식사 봉사와 교회청소는 두 언어 회중모두에게 변화를 가져왔다. 모든 성도가 인종을 초월하여 각기 가진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봉사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함께 봉사함으로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는 변화를 갖게 되었다.

3. 행동변화 실행 분석

2006년부터 2008년 중반기 까지 다문화교회로서 하나 되려는 모든 목회 전략 계획들이 실행되었고 많은 의식 변화가 있었다. 이중언어 예배에 모두 적극적이었으며 성찬식은 일년에 단 1회의 성만찬을 가졌던 한국어 회중이 일년에 4회 이중언어 예배와 함께 드리며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정체성 형성으로 회중의 역동성이 증진되어 2008년 6월 22일에는 19명의 새 신자를 환영하는 예배를 드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 새신자 중 3명은 영어 회중의 멤버로 16명은 한국어 회중의 멤버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 놀라운 결과는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많은 성도들에게 희망과 생동감, 교회 비젼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로부터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고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이 증가 하였으며 영어회중의 증가보다는 한국어 회중의 증가가 더 컸다. 이 변화는 아주 큰 것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과거의 옛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교회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교회 성장이 헌금의 증가를 가져오고 오랜 재정 적자를 벗어날 수 잇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점심식사 봉사와 교회 청소는 큰 변화가 있었다. 한국어 회중이 월 4회 봉사를 하고 영어 회중이 년 4회 봉사함으로 다인종의 음식을 나누며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 또한 모든 교인을 모두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교회의 봉사를 분담하며 섬기도록 한 것은 모두가 기뻐하였고 리더십을 공유하는 큰 역할을 하게 하였다. 교회 청소는 모든 그룹이 각기 맡은 구역을 성실히 청소함으로 전 교인이 월 1회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참여하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준 기회가 되었다.

4. 구조변화 실행 분석

2006년의 교회 재직자들은 모두 노년층이었다. 따라서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젊은 지도자들을 키워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었다. 당회는 이를 위해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당회 아래 3년조를 두며 각 연조별 동일 인원이면서 매년 한 조가 만기 교체하도록 할 것을 결정하였다.[270] 공천위원회는 이 원칙에 따라 새로운 장로 선출을 위한 후보를 공천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 형성을 격려하였다.

교회의 모든 봉사를 직접 담당할 젊은 집사들을 3년조를 두며 각 연조별 동일 인원으로 세웠으며, 교회 건물의 지역사회 개방, 각 인종별 지도력의 공유, 한국어회중과 영어 회중을 위한 균형 잡힌 행정과 실행 등을 목표로 삼는 일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많은 교육과 시간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B. 목회 능력

1. 연구반의 평가

연구반원들은 필자를 설교와 행정에 있어서 유능한 목사라고 평가하였다. 교회를 행정적으로 조직하는 일에 탁월하며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미래의 목표와 선교의 비젼을 상실한 교회에 올바른 목표를 제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래서 목회의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는 목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는 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설교나 교육에 있어서 유능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다문화 교회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프로그램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언어문제로 인하여 부담을 주었다고 하였다.

2. 자기 평가

1) 설교자로서

필자는 목회를 하면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관련 서적들과 다문화 다인종 모임과 회의에 참여하며 다문화 교회를 위한 목회에 대하여 연구해 왔다. 그 결과 다문화 다인종의 갈등과 극복을 성서적으로 다룬 전문서적과 주석들을 연구하여 설교와 교회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그래서 다문화 다인종 공동체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신학적, 성서적 측

[270] 미국장로교 헌법 제II부, G-14.0201 "선거규정."

면에서 찾을 수 있었다. 2007년 전반기에는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제자의 도를 설교하였으며 2007년 후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 까지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2009년에는 갈라디아서를 설교하였다. 목회자인 필자 자신에게는 다문화교회를 이해하는 성서적이며 설교학적인 관점과 실력을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설교하는 이중언어 설교자로서 성장하게 되었고 영어 설교를 통역하는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다문화 회중이 공감할 수 있는 예화나 시, 수필, 음악 등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또한 아직 영어의 적절한 표현력과 어휘력이 부족하여 한국어와 영어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2) 행정가로서

필자는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행정가로서도 성장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도록 교회의 행정조직을 새롭게 보완하였을 뿐 아니라, 교회 행정을 하나의 형식적인 업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교회행정을 교인들의 능력과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하는 윤활유가 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교회 행정이 교회의 목표를 제시하고 교회를 이끄는 힘이 되도록 하였으며 세부적인 교인생활 지침의 역할까지도 하도록 하였다.

필자 개인에게는 2008년부터 2009년 까지 당회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며 이중 언어로 당회를 이끌며 공동의회와 기타 모든 행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함으로 큰 경험을 쌓게 하였다.

3) 목회자로서

필자는 여성목회자이다. 필자 자신은 여성목회자라는 타이틀로 인하여 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경험하여 왔다. 하나님의 소명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으나 사회와 문화, 교회의 전통과 구조는 여성이 목회자로서 능력을 발휘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주어 왔다. 그러나 필자 자신은 단 한 번도 여성목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생각해 오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고 목회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가져왔다. 이런 자기 개발과 노력에도 뛰어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로서의 영적 권위와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가로서, 교육자로서,

설교가로서, 행정가로서 유능성을 개발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나 목회자로서 남녀 성을 초월하여 모든 교회지도자들과 성도들로부터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받고 목회적 리더쉽을 갖는 일은 어려움이 있었다. 성도들은 여성목회자에게 두 가지 모두를 기대한다. 첫째는 여성목회자이므로 더욱 섬세하고 부드럽게 교인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목회적 탁월한 능력과 영적인 권위와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필자에게는 두 가지 기능을 조화롭게 이루어 균형을 갖는 일이 쉽지 않았다.

3. 목회 유능성 개발

1) 설교자로서의 변화 목표

미국사회의 다인종 다문화에 대하여 그리고 소수 민족의 정체성 형성에 대하여 연구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다인종을 대상으로 목회할 때 설교자로서 부족한 것은 다인종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교하는 일이다. 성경본문을 주석하는 작업과 메시지를 이끌어 내는 일의 능력은 갖추어 가고 있고 많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메시지를 적용할 때 다인종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정서에 알맞은 예화나 유머, 문학적 인용들과 구체적 실천사항들을 찾아 내는 데 부족하였다.

앞으로 모든 인종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도록 할 것이며 특별히 그들의 문화와 예배 양식, 교회 전통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할 것이다. 실제로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를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나라의 기독교 문화와 전통에 따라 다른 기독교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아메리카 가나에서 온 성도는 성찬식 주일에는 언제나 하얀 색을 꽃을 제단에 장식한다. 반면 한국에서 온 성도는 여러 가지 칼라의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그래서 각자 예배드리는 시간에 꽃을 바꾸어 놓는다.

2) 행정가로서의 변화 목표

필자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교회의 기독교교육을 위해 일해 왔다. 기독교교육

의 출발은 현장이다. 현장을 분석하고 그 현장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일을 해 왔다. 그래서 교회현장을 분석하고 그 곳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에서도 이 일을 잘 해내었다고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목회란 목표를 잘 세우고 좋은 실행전략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모든 교인들의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다. 행정은 이 부분까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무엇보다 당회의 후원을 받아야 한다. 교인들은 후원을 하더라도 당회의 후원을 얻지 못하면 좋은 계획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2년 동안 이 교회의 당회장 직을 수행하였다. 당회장은 그 교회의 행정책임자이며 교인들의 대표로 구성된 당회를 잘 이끌어 가야한다. 교회의 선교, 교육, 예배, 봉사, 지역사회와의 관계, 친교등 모든 교회의 영역에 대하여 교인들의 대표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중재하여 원만한 결정을 이끌어 내야 훌륭한 행정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당회장 역할을 함에 있어서 많은 것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중재와 리더십의 공유, 합의된 의결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교회행정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아직 홈페이지도 없고 e-mail도 사용하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행정을 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교회에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는 일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것을 위해 봉사할 젊은 평신도 리더십을 키우도록 할 것이다.

3) 목회자로서의 변화 목표

모든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들과 이민의 삶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더욱 격려하며, 심방하고, 기도해 주도록 할 것이다. 다문화교회이므로 필자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성도들을 영적, 목회적으로 돌보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것이다. 한국어 멤버 외에 다른 인종의 멤버들을 위해 병원 심방, 가정 심방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 능숙하도록 훈련할 것이다. 다문화교회에서 목회자로서 가

장 어려웠던 것은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이었다. 영어구사가 능숙하지 않아 환자를 위한 힘있는 기도와 위로의 말을 맘껏 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다. 여성목회자라는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의 취약점을 극복하도록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친교, 봉사를 위해 적극적이 되도록 할 것이다.

VIII. 결론

A. 연구결과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영어회중과 한국어 회중이 모이는 다문화교회이다. 다문화교회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다면 교회가 성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이다.

필자는 이 교회의 목사로서 이 교회 안에 소속된 다인종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그 힘과 능력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목회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고 이 논문을 진행하였다.

첫째,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한국어 회중과 영어 회중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야 할 공동체임을 인식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교회는 1994년 두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통합된 교회이다. 통합 당시 두 교회는 많은 부분을 함께 공유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교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 교회였던 회중이 하나의 교회의 회중으로 새롭게 정체성을 갖는 일이다. 본 논문의 필자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도록 예배와 신앙 수련회, 성찬식등을 행함으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다문화교회로서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 리더쉽을 공유하며 교회의 모든 행사와 봉사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종래의 교회구조는 모든 교회의 봉사를 일부의 사람들만이 감당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부족했고, 자원봉사자가 없음으로 재정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를 위해 모든 성도들의 은사와 능력을 개발하여 전 교인이 모두 교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구역을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며, 재정적인 부족을 해결하고 평신도 은사와 능력을 개발하게 되었다. 비록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 하더라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모든 인종의 의견이 공평하고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교회의 대표를 구성하는 일에도 변화를 가져오도록 힘써 왔다.

셋째,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Bronx지역의 다문화선교를 담당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 건물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결단하게 하였다.

과거의 이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왔다. 지역사회의 범죄를 줄이는 일에 협력해 왔으며 이민자 자녀들의 교육을 돕고 이민자들이 편안하게 정착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교회건물을 개방했었다. 그러나 교회가 분열을 거듭하고 침체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이것을 회복할 뿐 아니라 다문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의 일부를 지역을 위해 사용하도록 노력하였다.

다문화교회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됨으로 모든 교인들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회 전체의 의사결정 구조가 변화하기 까지는 더 많은 노력과 인종 간의 상호 이해와 사랑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B. 기대와 제언

필자는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가 앞으로 이렇게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첫째, 두 개의 개체 교회가 하나의 통합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

둘째, 다인종 다문화교회가 각각의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의 신앙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치하는 신앙과 교회

의 목표와 선교의 비전을 갖는다.

셋째, 다인종, 여러 계층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의사소통 구조로 변화한다.

넷째, 다문화교회로서의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공동체가 된다.

다섯째, 자원봉사자의 확대로 교회봉사가 활성화되고 지역사회를 향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된다.

여섯째, 교회건물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함으로 교회 재정부족을 해결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선교를 위해 앞장서는 교회가 된다.

다문화사회가 인종간의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듯이 다문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을 섬기는 동일한 가치관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문화교회는 비록 다인종, 다언어로 인하여 한 공동체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 신앙 안에서 인종과 언어를 초월한 제3의 영역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공동체이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정체성은 다문화교회 안의 다양성속에서 일치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많은 가능성을 가진 다문화 다인종 공동체이다. 이 가능성을 일부 지도력의 이기심과 배타심, 왜곡된 교회관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당회의 지도력이 공평하게 공유되어 목회적 리더십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하고 봉사하며 서로 함께 존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다.

Appendieces

부록1 : Mission Review Report

Mission Review Report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of Bronx

I. Introduction

Our church has been able to inspire many with reviewed consciousness of the community of faith and Christian love, so that they may have confidence in their identity. Our church seeks to embrace, with a gospel-induced spirit of openness and inclusiveness, all in our community, without any regard for their social status, race, ethnicity. It is especially incumbent upon us to recognize in our programs and our outreach the changing demographics of the community, gearing ourselves to meet the challenge of the Hispanic and African-American communities' needs.

Ninety-three years ago, on June 21, 1900,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was organized. Forty-seven persons were enrolled as charter members. In the Twenties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had a great period of expansion of member numbers and facilities.

Some of the longer serving ministers include the Rev. Dr. Mair, who served as pastor for thirty-four years, and Rev. Charles A. Darocy, who served as pastor for sixteen years. In May 1973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took a new look at its life of ministry and decided to enter into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Church of Bronx.

On May 6, 1973, the Korean Church of the Bronx had its first worship service at their site of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and began sharing the beautiful facilities. it has been a joy to share a common ministry in the changing community. In November of 1973, the Korean Church was formally organized in the sanctuary of the church and was accepted into the Presbytery. The Rev. Dr. Tai Young Yoo began to serve the Korean Church of the Bronx as pastor.

In Febrary 1981, the Rev. Zoltan Fule was installed as Temporary Supply

Pastor to serve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and continued his ministry for the church until the end of 1992, when he retired from ministry. Since then,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has been served by Pulpit Supply pas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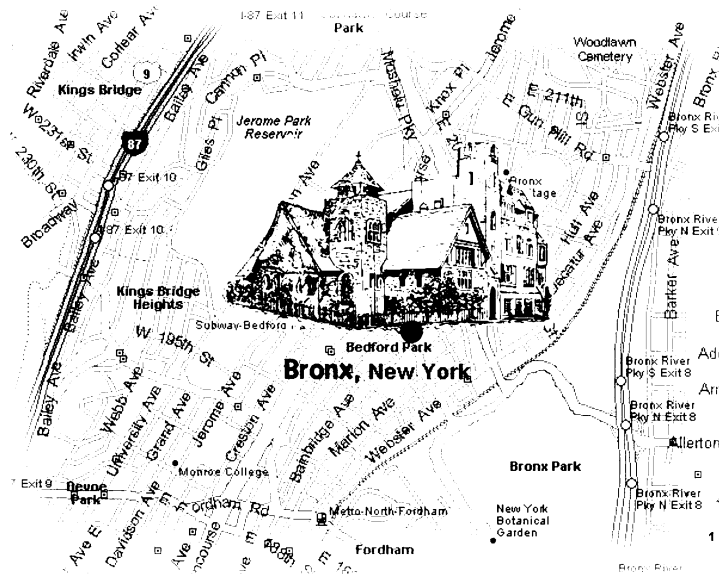
We give thanks to God for the literally thousands of lives that have been blessed and saved through the ministy of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In the past ninety-three years, the church has witnessed tremendous changes in our community and in the world. The very changes that have marked our Christian ministry have led us to a vitality and alertness in carrying out the task set before us by our Lord Jesus Christ. The merged congregations, as a united church, will continue ongoing efforts to enlarge and expand our new ministry to the community, in obedience to our Lord and for His Church.

부록2 :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주보

38권 47호 2008. 11. 23

미국장로교 뉴욕시노회

▪미국교회 창립일: 1900. 6. 17.
▪한인교회 창립일: 1970. 12. 6.
▪통 합 일: 1994. 9. 11.

베드포드파크장로교회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Bilingual Worship Service(Sanctuary 11AM)

목 사(Pastor): 엄 순 희(Soon Hee Earm)
원로목사: 유 태영
장 로: 연영일 이수현 이광자 이명자 연규만
Ray Levie, Dorothy Chang, Charles Gonzalez
반 주 자: 연주영

2943 Bainbridge Avenue, Bronx, NY 10458
교회(718)365-0230

베드포드파크장로교회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추수감사 주일 예배 (Thanksgiving Worship Service)

November 23, 2008 at 11:00 A.M. Presiders: Elder Ray Levie & Youn

Silent Prayer .... Together

Call to Worship .... Presiders

* Opening Hymn .... #21 We Gather Together .. .. Together

* Affirmation Faith .... Apostles' Creed .... Together

Responsive Reading ....#105(p.536) .... Together

* Hymn ....#461 Come, Ye Thankful People, Come .... Together

Pastoral Prayer .... Elder. Ray Levie

Scripture Reading ....Habakkuk 3: 17-19..............Elder Charles Gonzalez

Colossians 2:6-7

Anthem .... Choir

Sermon ....″Thanksgiving and joy″ ..... Rev. Soonhee Earm

Communion .... Together

* Offering .... Lily Valentine, Enoch Budhoo............... Together

* Offering Prayer .... Rev. Earm

Announcements .... Presiders

* Closing Hymn ...#66 For the Beauty of the Earth................... Together

* Benediction .... Rev. Earm

* Those Who Are Able, Please Stand.

2008. 11. 23. 오전 11시 **인도: 레비, 연규만 장로**

묵도와 송영 .... 다 같 이

예배의 부름 .... 인 도 자

* 찬 송 .... 39장... 일어 서서

* 신 앙 고 백 .... 사도 신경 .... 일어 서서

교 독 .... 65번 .... 다 같 이

* 찬 송 .... 306장 .... 일어 서서

목 회 기 도 ....연규만 장로

성 경 봉 독 ....하박국 3장17-19 (p. 1264) .... 인 도 자

골로새서 2장 6-7 (p. 349)

찬 양 .... 성 가 대

설 교 ....“감사와 기쁨” .... 엄순희 목사

성 찬 .... 다 같 이

* 봉 헌 .... (이세원,김영구) .... 다 같 이

* 봉 헌 기 도 .... 엄순희 목사

교 회 소 식 .... 인 도 자

* 찬 송 .... 312장 .... 다 같 이

* 축 도 .... 목 사

* 표는 다같이 일어서 주십시오.

교 회 소 식

Church Anouncements

환영
Welcome

A warm welcome this morning to all our Visitors and Friends.

알 림
Announcements

▪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11시에 한영합동예배로 드립니다.

▪ 다음 주일은 오후 2시에 구역예배를 드립니다. 구역장들께서는 구역예배를 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 후에는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공천위원회가 모입니다.

▪18일 화요일에 뉴욕시 노회가 Eastchester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엄목사님과 레비장로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어제 교회fundraising을 위한 Thanksgiving Dinner 판매를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주관:교육부 연규만 장로, Lillian Gonzalez 집사)

▪환우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자,박점분,이유종,이향숙,강호성,김동연,Dorothy Chang, Emma Abreu)

▪Today we have the bilingual Thanksgiving Service at 11AM.

▪Next Sunday,Nov.30th, the Nominating Committee will hold at 1:20 pm.

▪Yesterday thanksgiving Dinner fundraising was at 5:30pm-9;30pm. We thank to Kyu Youn and Lillian Gonzalez amd our members.

▪A Home Church Bible Study will be having on November 30th from 2:00pm and will clean the church building.

제공
Service

▪ 오늘 점심은 한나 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봉사는 4구역(구역장-지형근)에서 해주셨습니다.
The fourth Home Church Members serve for today lunch.

부록3 : 로마서 설교 예

새 사람, 새 정체성
로마서 16장 1-16절
창세기 32장 1-5절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로마서 16장의 뒷부분을 설교하면서 로마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첫 부분에서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누고 그를 통해 서로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14절에서 말하기를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합니다.
빚을 진 자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결코 쉴 수 없는 것 처럼,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절대로 쉴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로서 살아갑니까?
그는 자신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토록 솟아오르는 샘처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인내가 결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이 와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 내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나 의로운 행위들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로 얻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모두 회개하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게 됩니다.
회개하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8장 2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됩니다.
그의 모든 생활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오랫동안 그를 지배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변화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영적인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진실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몇 달 동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말씀 로마서 16장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그가 아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글입니다.
하지만 이 글은 단순히 바울이 아는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인사말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에 쓰는 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사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자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여기서 안부를 묻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가 열거한 사람들의 신분은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종이나 노예의 신분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 속에서 바울은 그가 모든 인종과 신분과 성별을 뛰어 넘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아이텐티티를 가지고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남자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만나려고 하지 않을 많은 사람들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구요, 동역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인사말 속에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이 그래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 근처에 역사적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처럼,
그 당시 한국에도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과 평민과 종의 신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신분끼리만 결혼을 하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서로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에 따라 철저히 직업도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 온 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예전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은 그 목사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은 서로 신분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로들과 성도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또 장로들과 성도들은 그들의 목사를 충성스럽게 잘 섬겼습니다.
그 목사는 3번이나 총회장으로 한국장로교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회적 신분제도를 뛰어 넘게 하시고 전통적인 한국사회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복음은 인간주의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인간의 범주들을 뛰어 넘는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모든 인간이 똑 같이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범주를 초월한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16장의 시작을 한 여자에 대한 부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뵈뵈라고 이름하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교회의 귀중한 일군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울을 대신하여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여 바울이 이 편지에 다 담지 못한 말씀들을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게 그녀를 존경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녀를 존중하지 않으면 바울이 로마교회에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전하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녀를 존중하지 않을 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로마교회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이며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 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이것을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성과 일치라고 부릅니다.

어제 교회 바자가 있었습니다.
바자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해 주신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자 장로님과 이미자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님들과 간호사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원로목사님이신 유목사님께서 어제 바자에 오셔서 많은 도네이션을 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유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복음의 능력에 따라 이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인 현대인의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같은 번역본 이지만 그 번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이 열린 교회가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을 읽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국교회를 미국교회와 하나되게 하여 한 교회로 만드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인종들이 함께 생활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인종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제 유치부 선생님이신 릴리가 김치를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집에 두고 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미역국도 좋아하고 특히 콩나물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호박죽은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스패니쉬 닭요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샐러드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새로운 정체성을 가르쳐 주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실천하기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향하여 경건의 훈련을 하듯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상적인 교회 관을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새 사람, 새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미국장로교의 정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부록4 : 갈라디아서 설교 예

1. 한글설교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14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지 않은 다른 복음에 물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 대신 다른 복음을 더 중요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과거로부터 지켜오던 모세의 옛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옛 법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옛 법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옛 법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이 옛 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그 옛 법을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법에 너무나 익숙해 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 법을 벗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법이 다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앞선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은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에 익숙해 지면 처음에 그것을 익힐 때까지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다 익숙해지면 오히려 옛 것보다 훨씬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것이 자기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고 나면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옛 기종도 제가 쓰기에는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기능이나 인터넷 기능, 같은 것들이 저에게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게는 옛 것이나 새 것이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 굳이 새 것으로 바꾸면서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옛 법과 새 법은 우리에게 그저 익숙하고 편안한 것과 조금 불편한 것의 차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 세상을 더 이상 구원하기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세우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법을 통해서만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구원의 방법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과 정신이 이 세상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옛 법인 율법과 새로운 법인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옛 법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옛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될 때 옛 법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통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 할례의식을 하루 아침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몇 천년 동안 해 오던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여전히 할례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옛 것을 버리기가 힘들어서 여전히 붙들고 있긴 하지만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할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법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더욱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할례는 그들의 옛 전통으로서의 의미도 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가로막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례와 같은 옛 법은 그 법이 구원의 능력을 가로막지 않을 때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할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였습니다.
할례를 존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할례는 할례일 뿐입니다.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과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교와 구원을 위해 언제나 이 새로운 법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과 불편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 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울법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옛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법아래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법에 따라 이끌어 져야 합니다.
이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외에
다른 법이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다른 인간이 만든 법이 우선 될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한 가지 알아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기쁜 소식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는 여러분이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을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2. 영어설교

In today's scripture, Paul the apostle asked to the Galatians if they stood firmly on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 Galatians did not doubt that they were redeemed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However, the time passed, they had been influenced by the other gospel.
They considered the other gospel more important than the gospel of Jesus Christ.
Paul said that this is the law.
The law that Paul said is the old Law of Moses that they kept from the past days.
But this law is not necessary for our redemption.
The coming of Jesus Christ made this law as nothing.
Nevertheless, Jews thought that the law had the deep meaning for them.
It is because they had lived according to that law.
They had been accustomed by that law.
Therefore, they could not take off that law easily.
They wanted to keep their law.
They had many difficulties for accepting the new ones.
Even the academic scholars often feel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accept the new ones.
It is because that the familiar thing is convenient.
It is because that the new one is inconvenient.
And they don't want to use the new ones.
We should accept the new ones even if it is very difficult and inconvenient to accept the new ones.
We will feel convenient after we will be accustomed by the new ones.

I don't like to have the new cell phone.
It is very inconvenient for me to use the new cell phone.
And I don't feel any inconvenient for the old cell phone.
I don't use the many new technology of the cell phone but several functions.
Therefore, it is very unnecessary for me to use the new cell phone with the inconvenience.

Then, the difference between the old Law and the new Law is nots elated to the

matter of convenience and inconvenience.
That is related to the redemption.
God will not to redeem the Israel and this world by the old Law.
God established the new Law through Jesus Christ.
He had the plan for redeeming the whole people.
We can be redeemed only by this new law.
The power of God can be appeared only by this new law.
This is the will of God.
Therefore, if this world wants to be redeemed from their sins, we should follow the new words.
We believe that only the new of redemption can redeem the human beings.
We should try that these ways and spirit lead this world and the church.
It is the only way for our redemption.
Then, what do you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law and the new one?
That old law has nothing to Jesus Christ.

When the old law is newly interpreted and applied, it has the meaning.
I will tell you about this next time.
Anyway, we should find the way and the principle of redemption only in the faith of Jesus Christ.

Let's take an example.
Circumcision is very important to Jews.
They still believe that they can be the children of God by circumcision.
But we know that they cannot be the children of God by circumcision.
However, they cannot discard their tradition of circumcision easily.
They feel unstable when they do not circumcision.
They feel that they get redemption when they are circumcised.
Even though they believe Jesus Christ and they know that they were redeemed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y find the meaning from circumcision.
Thus, they do it.
It is very natural.

But circumcision is useless for redemption.

It is no problem when they consider the faith of Jesus as the only way for their redemption.
But it is problem when they think that their traditions like circumcision are essential for their redemption, because this thought is barrier against the work and the power of the redemption of God.
Only when the traditions are not considered as essential for redemption, it is only their own tradition.

Thus Paul did not blame the Jews who did circumcision.
But when the circumcision is considered as essential for redemption, Paul strongly criticized it.
He esteemed the circumcision as the tradition of Jews, but he did not think that the circumcision is essential for redemption.
Circumcision is not the way for our redemption.
The law of circumcision is not the Law of redemption of Jesus Christ.

God gave us the new Law for redemption.
Christians should always follow this Law for the mission of God and redemption.
I already told you that it is not easy to follow the new law.
Therefore our determination of faith is needed.
We should accept the change.
We should overcome the conflict and the inconvenience from the change.
It is because this is divine plan for redemption.
It is because that to follow that law is to follow the work of redemption of God.

Let's read verse 12.
The is not based on ; on the contrary, "The man who does these things will live by them."
Christ redeemed us from the of the by becoming a for us,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is hung on a ."
What does it mean?
It means that Christians do not need to live under the control of law any more.
The old law should be renewed under the new one that God gave us.

Church is the place for doing mission of God.
Church should be led by the new law that God established.
We cannot change this.
We cannot fix it.
There is no more than the Spirit of life that God gave us.
When the law of God is firs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s appeared.
But when the law of human beings is firs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annot be appeared.

Paul asked to Galatians.
Let’s read verses 2-7.

I would like to learn just one thing from you: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observing the, or by believing what you heard?
Are you so foolish? After beginning with the Spirit, are you now trying to attain your goal by human effort?
Have you suffered so much for nothing--if it really was for nothing?
Does God give you his Spirit and work miracles among you because you observe the , or because you believe what you heard?
Consider Abraham: "He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Understand, then, that those who believe are of Abraham.

부록5 : 세계 성찬주일 예식 순서(**Orders for Worldwide Communion Sunday**)

1. 성만찬으로의 초대 Invitation to the Lord's tables…….다같이together

Pastor: This is the joyful feast of the people of God!

This is the Lord's Table

People: our Savior invites those who trust him to share the feast which he has prepared.

목회자: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운 잔치 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베푸시는 식탁입니다.

성도들:우리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가 준비하신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2. 찬송Hymn……..284장 1-2절 (E:254)………………….다같이together

3. 성찬제정의 말씀Words of the Institution, 고전11:23-26…집례자Pastor

The Lord Jesus on the night of arrest, took bread,

And after giving thanks to God, He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eat,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new covenant sealed in my blood, Shed for you for the forgiveness of sins. Whenever drink it,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Every time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saving death of the risen Lord, Until he comes.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팔리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4. 분병, 분잔Communion……………………………………위원들Elders

(빵을 나누며: in giving the bread-분병위원: 박춘근, Ray Levie, 연영일, 이수현)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The body of Christ, the bread of heaven) **Amen.**

(잔을 나누며: in giving the cup-분잔위원:Charles Gonzalez, 이명자, Jacob Budhoo)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The blood of Christ, the cup of salvation)

Amen.

5. 감사의 기도 Prayer after Communion…………………다같이together

O God, through this bread and this cup, you have made us one with you and with each other.

May the unity we find at this table be a gift that we carry

out into your suffering, divided world.

Help us to find strength in knowing

that you, the God of peace, will always be with us. Amen.

하나님, 이 빵과 잔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서로서로와 함께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식탁에서 발견한 하나됨이 주님의 고난과 분열된 이 세상으로 가져갈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힘을 갖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6. 파송의 말씀과 축복기도 Charge and Blessing

Pastor: Go out from this table, from this place of peace, to serve a hurting world.

People: We go, knowing that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us.

목회자: 이제 이 평화의 식탁에서 받은 평화를 가지고 상처 많은 저 세상을 섬기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Pastor: Go where there is disunity among Christians, and bring God's reconciliation.

People: We go, knowing that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us.

목회자: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를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십시오.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화해를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

Pastor: Go where there is injustice and brokenness, to bring God's way of peace.

People: We go, knowing that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us. Amen!

목회자: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일치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성도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록6 : **2006**년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과 예배순서

1. 수련회 프로그램

베드포드 파크 장로교회 2006년 여름 전교인 신앙수련회

Summer Retreat of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God Who Fulfils Our Life

PM	29일(Saturday)	AM	30일(Sunday)
7:00 8:00	저녁식사 Dinner	10:00 10:30	찬양 Praise
8:00 8:30	찬양 Praise	10:30 11:30	신앙사경회 II Bible Study II
8:30 9:30	신앙사경회 I Bible Study I	11:30 12:30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9:30 10:00	기도회 Prayer Meeting	12:30 1:30	점심식사 Lunch
일시:2006년 7월 29일(토)-30일(주일) **장소**:베드포드 팍 장로교회 강사(Speaker) 이종록목사(한일장신대 구약학교수) Rev. Jill Schaeffer Elder Jacob 연규만 선생 Min. Piazza		1:30 3:00	레크리에이션 Recreation
		3:00 3:30	찬양 Praise
		3:30 4:30	신앙사경회 III Bible Study III
		4:30 5:00	폐회예배 Closing Worship

베드포드 팍 장로교회, 2006

THE BEDFORDPARKPRESBYTERIANCHURCH

사 경 회

주제: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강사 : 이종록 목사

첫번째 사경회	두번째 사경회	세번째 사경회
말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약속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시편 1편 1-6절	시편 23편 1-6절	시편 105편 1-10절
인 도 : 연영일 장로	인 도 : 이수현 장로	인 도 : 이광자 장로
기 도 : 서순화 권사	기 도 : 이원희 권사	기 도 : 김철숙 권사
성경봉독 : 지형근 집사	성경봉독 : 김영자 집사	성경봉독 : 이명자 집사
1. 복(1절) 2. 두 가지 삶 두 가지 결과 (1절, 4-6절) 3. 오직 말씀만!(2절) 4. 나무처럼(3절)	1. 주 내 목자(1-3절) 2. 오직 믿음만!(4절) 3. 탄원을 넘어서 찬양으로 (5절) 4. 확신과 소망(6절)	1. 우리가 할 일(1-4절) 2. 하나님이 하신 일(5-7절) 3.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8-10절)

Bible Study

1	2	3
Rev. Jill Schaeffer	Elder Jacob	Elder Jacob
Psalm 23		

2. 수련회 개회예배 순서(Orders for Worship)

인도: 엄 순 희 목사

Presider : Rev. Earm

예배로의 초대(Call to Worship)

찬송(Hymn)-------- 25장, 199("Crown Him with Many Crowns," 1-3 line)

I. 죄의 고백(Confession of Sins)

1. 언약의 확인(Affirmation of Commandments)----------다같이(Together)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So do not worry,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at shall we wear?' For the pagans run after all these things, and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여러분, 잘 들으십시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 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2. 죄의 고백(confession of sins)----------------------다같이(Together)

Confess your sins through the texts above and repent.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비추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3. 고백의 기도(The Prayers of Confession)--------Elder Levie, 이수현장로

Almighty and most merciful God, we acknowledge and confess that we have sinned against thee in thought and word and deed, that we have not loved thee with all our heart and soul, with all our mind and strength, and that we have not loved our neighbor as ourselves. We beseech thee, O God, to be forgiving to what we have been, to help us to amend what we are, and of thy mercy to direct what we shall be, so that the love of goodness may ever be first in our hearts, that we may always walk in thy commandments and ordinances blameless, and follow unto our life's end in the steps of Jesus Christ our Lord. Amen.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가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형제들에게도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4. 고백문 쓰기(Writing our Confession)----------------다같이(Together)

We are going to write our sins on the paper. For example, you can write everything you did against God.

이 시간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힘껏, 우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내 몸을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매일 염려하며 살았던 불신앙과 믿음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의 고백은 여러분과 하나님사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세히 부끄럼없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앞에 고백하도록 하십시요.

II. 죄의 용서와 감사(Pardon of sins)

1. 주님께 나아감(Coming to the Lord and burning our sins)-------다같이(Together)

Now, let's come to Jesus Christ to forgive our sins. We will burn our papers in the pot. (Put your paper in the front pot.)

This act means Jesus forgive our sins and burn it too.

이제 우리 죄를 용서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2. 용서의 선언(Assurance of Pardon)------------엄순희 목사(Rev. Earm)

The Lord is merciful and gracious, slow to anger and plenteous in mercy.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Amen.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3. 빛으로의 초대(Invitation to the light)----------엄순희 목사(Rev. Earm)

The Lord invites us to the light.

이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Let's light candles. Light candle of your right side.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오른쪽 옆에 앉은 사람 초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The Lord forgave our sins and led the light and new life.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 감사찬송(Hymn of Thanks)------------------------다같이(Together)

471장, 160(Beneath the Cross of Jesus, in English Hymnal)

5. 헌금 (Offering) ------- 이정희 권사, Sandra-------다같이(Together)

6. 봉헌기도 (Offering Prayer)------------------엄순희 목사 (Rev. Earm)

III. 확신과 결단(Confirmation and Resolution)

1. 촛불로 십자가 만들기(making the cross with our candles)------다같이 (Together)

As we decide to live according to God's will, we will make the cross with candles on the table.

주님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테이블 위에 십자가를 만든다.

-담당:십자가 모양이 되도록 초를 놓는 자리를 정해 준다.

2. 결단의 공동기도(Communal Prayers for confirmation)----------다같이 (Together)

3. 결단의 찬송(Hymn)--------------------------------다같이(Together)

384장, 363(A Mighty Fortress Is Our God)

4. 축도(Benediction)----------------------------엄순희 목사(Rev. Earm)

3. 수련회 폐회예배 순서(Orders for Closing Worship)

인도(Presiders) : Elder. Charles, 연영일 장로

예배의 부름(Call to worship)-------------------------다같이(Together)

찬송(Hymn)-------------55장, 228(EH)---------------다같이(Together)

감사의 기도(Prayer)---------------------------------인도자(Presiders)

수련회 소감(Impression of summer retreat)-------------인도자(Presiders)

감사와 위탁의 말씀(Thanks and Commitment)------엄순희 목사(Rev. Earm)

광고(Announcement)---------------------------------인도자(Presiders)

찬송(Closing Hymn)--------435장, 348(EH)------------다같이(Together)

축도(Benediction)------------------------------엄순희 목사(Rev. Earm)

4. 수련회 진행 및 담당자

[오후]	29일(Saturday)	담당자(staff)	[오전]	30일(Sunday)	담당자(staff)
7:00 8:00	저녁식사 Dinner	이광자 장로 여신도회 Women's Club	10:00 10:30	찬양 Praise	이주연 선생 손영미 집사 이명자 집사 Elder Dorothy
8:00 8:30	찬양 Praise	이주연 선생 손영미 집사 이명자 집사 Elder Dorothy	10:30 11:30	신앙사경회 II Bible Study II	이종록 목사 Elder Jacob Min. Piazza
8:30 9:30	신앙사경회 I Bible Study I	이종록 목사 Rev. Jill 연규만 선생	11:30 12:30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이수현 장로 Elder Levie 이정아 권사 엄순희 목사
9:30 10:00	기도회 Prayer Meeting	이수현 장로 김동연 집사	12:30 1:30	점심식사 Lunch	이광자 장로 각 구역별 Lillian 여신도회
주관: 교육부 부장: 이광자 장로 아동교육부: 이주연, 김동연 청소년교육부: 연규만 성인교육부: 이정아, 김재홍 새가족부: 손영미, 김사라 -------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Thank you for your service.			1:30 3:00	레크리에이션 Recreation	김재홍 선생 유우현 선생 이오진 선생 Lillian
			3:00 3:30	찬양 Praise	이주연 선생 손영미 집사 이명자 집사 Elder Dorothy
			3:30 4:30	신앙사경회 III Bible Study III	이종록 목사 Elder Jacob Min. Piazza
			4:30 5:00	폐회예배 Closing Worship	연영일 장로 Elder Charles 엄순희 목사

부록7 : 전도훈련 내용

1. 1차 전도 훈련 내용

① 성경원리를 가지고 전도하기

. 사람은 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습니다.

.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용서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② 나의 간증으로 전도하기

간증은 개인적인 것이어야 하고, 짧게 3-4분 정도가 좋으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간증한다.

간증 순서- 믿기 전의 나의 생활 (약간), 변화된 순간(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주님을 믿은 이후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③ 내가 은혜 받은 말씀으로 전도하기

둘은 전도자이고 한 명은 전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 연습해 보도록 한다.

1) 위의 1)-3) 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도할 말을 적어 보세요.

5분 동안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2) 이제 옆 사람과 전도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전도하는 대화의 한 예를 소개한다.

-가족, 직장, 가까운 이웃, 땅 끝까지 전도하기

(4) 전도자의 자세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믿음으로 전하기 위해 준비했는가?

기도하고, 사람들을 찾아가자, 예수님만 전하자, 결과는 주님께 맡기자.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을 소망하며 계속 전하자.

2. 2차 전도훈련 내용

a. 목표 – 브롱스를 향해 문을 여는 교회

b. 신앙적 준비

1) 확신 갖기(이사야 41장 10절, 에베소서 2장 8절)

2) 영적 은사 사모하기

3) 전도에 필요한 말씀 암송

4) 기도로 항상 깨어 있기

5) 서로 격려하기-영적으로 하나됨

c. 세부지침

(1) 주일 아침 전도 및 안내: 주일 오전 10:30-11:30 (전도대원 1인 월 1회 봉사)

(2) 주일 오후 찬양 전도: 매월 4째 주 교회 청소 후

(3) 주일 새 가족 안내(목회자와의 만남) 및 환영

(4) 새 가족 돌봄이 교육실시

2008년 새가족 명단 – 이해순 (#2I 266 Bedford Park), 김춘례, 권지윤 할머니, 우영연 (718-562-6899), 김선아 (347-862-8521), John (917-291-4728), Samuel (917-557-1883), Evelyn (718-798-0106), Tracy Ju & Rolan Wang (425-301-5689)

(5) 교회 앞 Apt 전도- 전도지와 선물을 정기적으로 돌리기

(6) 교회 마당에 환영 프랭카드 만들기

(7) 교회 입구 청소

(8)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비젼과 기도

d. 전도 지역 및 담당자

(1)전도지역

.장소- 고향집, 비디오 가게, D train station, 교회주변 아파트, CCM, 리만 컬리지

.시간- 평일 오후 5-7시, 주일 오후 3-6시

.노방전도 담당자- 바울 전도대 전원이 돌아가면서

.평일 담당자- 1조 2명씩

.주일 담당자- 1조 4명씩

.찬양 담당자- 키타, 악보 준비

(2) 담당자

.교회 주변 아 파트 - 김철숙 권사, 이정희 권사, 지형근 집사, 이명자 집사

.보테니컬 가든- 이명자 집사

.리만 COLLEGE - 유우현, 이정진 성도

.독거노인 현황파악 및 전도- 김철숙 권사, 이세원 집사

.CCM 전도- 서순화 권사

.주일학교 부모전도- 이광자 장로

.새로 오는 이민자 전도 및 돌봄- 지형근 집사

.전도지 배치 및 조사- 김동연 집사, 김재홍 성도

.영어권 전도 담당-Charles Gozalez, Jacob Buhoo, Lillian Gonzalez, Lily Valentine.

부록8 : 전도지 내용

1. 한국어

안녕하십니까?

브롱스 지역에 사는 한인들께 베드포드 팍 장로교회가 인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4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따라 뉴욕 및 브롱스 지역의 복음선교와 지역봉사에 앞장 서 왔습니다.

100년의 역사와 더불어 이제 새로운 교회로 다시 태어나 브롱스 지역의 복음화와 봉사를 위해 섬기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초대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복음주의 신앙위에 서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2. 미국내의 많은 교단 중에서 경건과 건전한 신학을 추구하는 미국장로교에 속한 교회입니다.
3. 브롱스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4. 브롱스 지역에 사는 한인들과 새로 이민오신 분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5. 2세 교육과 성인교육, 노인교육을 위해 힘쓰는 교회입니다.
6.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사랑하고 위로하며 사는 교회입니다.
7. 새로 오시는 분들을 한 가족처럼 돌보고 함께 신앙생활하려고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2. 영어

Peace and joy be with you.

We,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greet you, all who live in Bronx, with

love and grace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command of our Lord, our church has a centennial history for preaching the gospel of our Savior and serving our community with love of our Lord from the year of 1901. But we know that our mission has not fulfilled until now, and we have a mission to be fulfilled.
Therefore, we will renew our mission, restart and make our new history from this year. We will do our best to preach the gospel of our Lord and to serve our community.

We invite you to our church for life-together in faith. We hope that you come to our church and experience new life to help others with love and to serve each other with sincerity.

Now, let me introduce our church to you.
Our church,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1. stands firmly on the faith of the death on the cross and resurrec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we are the faith community to witnes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ho is working now through our church over the world.
2. is the church that belongs to PCUSA, the Christian denomination that is pursuing the sound piety and theology.
3. is the church that do our best for evangelizing the district of Bronx.
4. is the church that do serve and help our neighbors and our community.
5. is the church that do make our efforts in educating next generation, adult, and senior.
6. is the church that all of our members do love and comport each other like a family.
7. is the church that have an open mind for waiting new members and for aiding them as our family in Jesus Christ.

부록9 : **2008**년 구역운영지침 및 구역편성

ANNUAL PLAN

FOR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HOME CHURCHES

IN THE YEAR OF 2008

● Rule of Organization

1. To organize 5 home churches.
2. To locate home churches according to their residential districts.
3. To appoint a teacher, a supplicant, a leader, and members in a home church and to assign each of them a task.

● Identity and Purpose

1. Home church is the community for spiritual nurture by worship.
2. Home church is the small group for serving our church.
3. Home church provides the lunch for our congregation in turn once in a month.
4. Home church is the community for nurturing new members.
5. Home church is the community for fellowship.

● Guide for administration of home church

1. Every home churches should meet together at 2p.m on every fourth Sunday and have monthly service.
2. The teacher teaches the word of God in a home church monthly service.

3. The supplicant prays for members of home church and makes a plan for the monthly lunch service.
4. The leader let members know the date of service, visits members, and takes charge to serve the church in turn.
5. All members of a home church have a close friendship like a family.

● Division

The1st homechurch

1. Teacher : Young Il Yeon
2. Supplicant : Suh Soon Hwa
3. Leader : Eun Hee Yang

The 2nd homechurch

1. Teacher: Myung Ja Lee
2. Supplicant: Kim Chol Sook
3. Leader: Bok Hee Chae

The 3rd homechurch

1. Teacher : Soo Hyun Rhee
2. Supplicant: Won Hee Lee
3. Leader: Woo Hyun Yu

The 4th homechurch

1. Teacher: Kyu Man Youn
2. Supplicant: Jung Hee Lee

3. Leader: Hyung Kun Chi

The 5th homechurch

1. Teacher: Charles Gonzalez
2. Supplicant: Lillian Gonzalez

3. Leader- Lily Valentine

제1구역

구역지도자-연영일

기도봉사자-서순화

구역장-양은희

구역원- 연영일-이광자, 김영구-서순화, 이미자, 박점분, 연주영, 호숙경, 김정기-최신숙, 김진용-김숙자, 류재영-고미자, 김지연

제2구역

구역지도자-이명자

기도봉사자-김철숙

구역장-유우현

구역원-이명자, 이세원-김철숙, 박영림, 유우현- 유명순, 이향숙, 방문자, 최정자

제3구역

구역지도자-이수현

기도 봉사자-이원희

구역장-채복희

구역원- 이수현-김영자, 이원희, 장월선, 김재홍-김동연, 채복희, 김경선, 박정우-홍승연, 홍성문-오정옥

제4구역

구역지도자-연규만

기도봉사자-이정희

구역장- 지형근

구역원- 연규만-이주연, 김점순, 이유종-이정희, 지형근-손영미, 이동근-김명주 , 윤석봉-조양화, 이오진,이정진, 임남수

제5구역(the fifth home church)

Teacher-Charles Gonzalez

Supplicant-Lillian Gonzalez,

Leader-Lily Valentine

Members- all of the English members, students of college

부록10 : 설문조사

1. 베드포드 파크 장로교회는 다문화교회입니다.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2. 베드포드 파크 장로교회가 다문화교회로서 성장하기 위해 목회자가 했던 목회활동들입니다.

① 엄목사가 했던 설교들이 다문화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도움이 되었습니까?

② 성찬식을 통하여 한국어 회중과 영어 회중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③ 이중언어예배를 통하여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④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한국어 회중과 영어 회중이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까?

⑤ 구역활동과 점심식사와 교회청소 등의 봉사활동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습니까?

3. 엄목사가 앞으로 할 목회를 위해 조언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1. Do you agree that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is multi cultural? And do you have identity that you are a member of a multi cultural church?

2. The followings are the pastoral activities for the Rev. Earm to make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to grow as the multi cultural church.

① Do you think that sermons of the Rev. Earm were helpful for the unity of the multi cultural church?

② Do you think that Communion is helpful for making the Korean congregation and the English congregation as one?

③ Do you think that biligual service is helpful for your recognizing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as the people of God?

④ Do you think that summer retreat is helpful for making two congregations intimate?

⑤ Do you think that your participation to home chuch and service for making lunch and church building cleaning are meaningful to you?

3. What do you want to give advice for the ministry of the Rev. Earm?

BIBLIOGRAPHY

1) 외국서적

Abbott, T.K. *The International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ltes to the Ephesians and to the Colossians*. Edinburgh: T&T Clark, 1979.

Aharoni, Y. and Michael Avi-Yonah. *The Modern Bible Atlas.* 문창수 옮김. *아가페 성서지도.*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Ahlström, Gösta W.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from the Palaeolithic Period to Alexander's Conquest*. JSOTS 14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Albertz, *Rainer.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tr. John Bowden.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volume 1; From the Beginnings to the End of the Monarch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Albright, W. F. and C. S. Mann. *Matthew*. AB.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82.

Banks, James A. *다문화교육 입문*. 모경환. 최충옥. 김명정 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08.

Becker, J. Christian. *사도바울-바울의 생애와 사상에서의 하나님의 승리*. 장상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8.

Bennett, Christine I.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김옥순. 김진호. 신인순 역 서울: 학지사, 2009.

Betz, H.D. *Galatians*. Hermeneia-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1984.

Bhabha, Homi K.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서울: 소명출판, 2002.

Boys, Mary C.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교육*. 김도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Bright, J. *A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81.

Burton, Ernest de Witt.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Edinburgh: T&T Clark Ltd., 1980.

Conzelman, Hans. *신약성서신학.* 김철손・박창환・안병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Dever, William G. *Recent Archaeological Discoveries and Biblical Research.*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0.

Dibelius, Martin. *바울-인물 사상 업적.* 전경연 역. 서울: 종로서적, 1977.

Dykstra, Craig R. *비전과 인격.*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4.

Erikson, E.H.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1977.

____________. *Identity and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59.

Fix, Michael. *다문화 사회 미국의 이민자 통합정책.* 곽재석 역.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9.

Fowler, James W. "Practical Theology and the Shaping of Christian Lives." in *Practical Theology : The Emerging Field in Theology. Church and World.* ed. Don Browning. New York: Harper & Row, 1983.

Fowler, James W.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Gavit, James *A. Americans by Choice*. New York: Harper, 1922.

Glazer, Nathan.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서종남 최현미 역. 서울: 미래를 소유한사람들, 2009.

Groome, Thomas H.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3.

Herrmann, Siegfried. *A History of Israel in Old Testament Times*. tr. John Bowden. London: SCM Press, 1981.

Hertzberg, Hans W.. *I&II Samuel.* tr. by J. S. Bowde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Hjelle, Larry A. & Daniel J. Ziegler. *성격심리학.* 이훈구 역. 서울: 법문사, 1983.

Kee, Howard Clark.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중석·김명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Klein, Ralph W. *1 Samuel.* WBC 10.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3.

Küng, H.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78.

Kymlicka, W. 장동진 외 역.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서울: 동명사, 2006.

Lee, Jung Young. *Marginality-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Martinielo, M.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역. 서울: 한울, 2002.

McCarter, Jr. P. Kyle. *1 Samuel.* AB.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80.

Metzger, Bruce Manning. *신약성서개설-신약의 배경. 성장 및 내용*. 나채운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Miller, J. Maxwell & John H. Hayes.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Moran, Gabriel. *종교교육 발달.* 사미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Noth, Martin. *The History of Israel*.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0.

Osmer, Richard R. and Friedrich L. Schweitzer. *공적 신앙과 실천신학.* 연세기독교교육학포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______. *교육목회의 회복.*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Perrin, Norman.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4.

Ridderbos, H.N. *The Epistle of Paul to the Churches of Galatia*.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4.

Sandel, M.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김선욱 외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8.

Segler, F. M. *예배학 원론.* 정진황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4.

Smith, H. P.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ICC. Edinburgh: T&T Clark, 1977.

Soggin, J. Alberto. *Storia d'Israele, dalle origini alla rivolta di Bar-Kochba, 135 d.C.* tr. John Bowden. *A History of Ancient Israel from the Beginnings to the Bar Kochba Revolt, A.D. 135.*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84.

Stott, J. *존 스토트의 복음전도.* 김성녀 역. 서울: IVP, 2004.

Sue, Derald Wing & Allen E. Ivey. Paul B. Pedersen. *다문화 상담의 이론과 실제.*

김태호. 임은미. 김인규 역. 서울: 태영출판사, 2008.

Walzer, M.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원섭 외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Watts, John D. W. *Isaiah 34-66.* WBC.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7.

Wells, Kenneth M. *새하나님 새 민족.* 김인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Wenham, Gordon J. *Genesis 1-15*. WBC 1.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7.

2) 국내서적

김봉중. *미국은 과연 특별한 나라인가.* 서울: 소나무, 2001.

김종렬.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강단*. 서울: 기독교문사, 2006.

김창선. *복음의 진리를 위한 사도바울의 투쟁.*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7.

목영해. *후현대주의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5.

민경설. *하나님의 주권과 전도의 역동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박아청. *아이덴티티론*. 서울: 교육과학사, 1988. 1998.

______. *아이덴티티의 탐색II*.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5.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6.

성서와 함께 편집부. *어서가거라-성서가족을 위한 출애굽기 해설서.* 서울: 성서와 함께, 1995.

손원영.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 사회의 이해.*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8.

유네스코 아시아.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서울: 동녘출판사, 2009.

유승원. *크고 넓은 교회. 높고 깊은 신학*.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1.

유평근 진형준. *이미지.* 서울: (주) 살림출판사, 2001.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이전. *우리는 단군의 자손인가.*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9.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서울: 조합공동체 소나무, 1999.

전숙자. 박은아. 최윤정.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이해.* 서울: 그린출판사, 2009.

정영근. *인간과 교육의 이해.* 서울: 문음사, 1995.

정옥분.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4.

정중호. *이스라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총회교육부 편. *생명을 돌보는 선한 일군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총회 사무처 발행. *미국장로교 헌법 제II부 규례서* 2004-2005.

3) 논문

Cazelles, H. "The Hebrews," ed. D. J. Wiseman, Peoples of Old Testament Times Oxford: Clarendon Press, 1975.

Fowler, James W.. "Practical Theology and the Shaping of Christian Lives." in *Practical Theology : The Emerging Field in Theology. Church and World.* ed. Don Browning. New York : Harper & Row, 1983.

Klappenecker, G. "파울러의 신학과 심리학에 나타난 공적 책임의 발달." Richard R. Osmer and Friedrich L. Schweitzer. *공적 신앙과 실천신학.* 연세기독교교육학포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고용수. "예배와 기독교교육."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기독교교육 논총 1.*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김태원. "공동체를 통한 기독교교육."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21세기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기독교교육논총 2.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김청봉.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교육."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기독교교육논총 4.*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박진완. “유럽의 다문화사회에서의 평등실현과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의 보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2009) 15권 1호.

백은미. “신앙발달 이론들에 있어서 여성의 신앙발달 이해의 한계와 방향모색.” 한국기독교육학회 편. *기독교교육 연구의 현황과 새 좌표.* 기독교교육논총 7.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부영호.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관한 발달심리학적 고찰-Erikson의 심리ㆍ사적 발달이론을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실천신학전공. 2006.

손원영. “간주관성과 기독교교육.”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기독교교육논총 4.*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손철성.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107권.

오경석. “다문화와 민족-국가 : 상대화인가. 재동원인가?”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07) 28호.

우종진. “청소년 회심과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에릭 Erikson(Erik H. Erikson)의 정체성(Identity) 이론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0.

윤화석. “기독교교육 인간론의 기독교교육 신학적 의의.” 한국기독교교육학회편. *기독교교육논총4.*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이금만. “통전적 에클레시아 교육론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기독교교육 연구의 현황과 새 좌표.* 기독교교육논총 4.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이종록. “가족. 국가. 그리고 세계-성경이 말하는 가족 보존과 확장.” 이상운 편저. *미래목회를 위한 가정과 기독교 문화.* 서울: 한들출판사, 2001.

_______. “이스라엘·민족·선교-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선교사역.” 한민족선교정책연구소. *한민족·선교·통일.* 서울: 한민족과 선교, 2001.

______. “구약성서에서 살펴보는 에큐메니칼 운동-하나님 나라에대한 비전을 중심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 엮음. *21세기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임희숙. ”성인들을 위한 교회교육의 전망과 과제.“ 한국기독교육학회 편. *기독교교육 연구의 현황과 새 좌표.* 기독교교육논총 7.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조은하. “공적 신앙의 회복을 위한 교육목회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기독교교육학 전공. 2007.

지종화. 정명주. 차창훈. 김도경. “다문화 국가와 정책 이론”.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

최성찬. “성인교육의 바람직한 인간상.”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21세기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기독교교육논총 2.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한춘기. “교육을 통한 신앙발달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기독교교육논총 1*.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4) 기타

Agreement of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New York: 베드포드파크 장로교회, 1994.

History of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70th Year Anniversary Booklet. New York: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1970.

Mission Review Report.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Mission Review Committee. New York: 베드포드파크 장로교회, 2001.